

한국기독교 사회참여운동관련문헌해제

〈 연구참여자 〉

책임연구원 : 조배원(한국사 박사과정)

공동연구원 : 최병택(한국사 박사과정)

홍현영(한국사 석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연구부

발 간 사

오늘날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국내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특별한 사명과 과제를 지니고 있고, 특별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서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국민의 동의를 확대하여 평화의 토양을 더욱 더 다져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여전히 전쟁과 파괴, 독재와 야만으로 얼룩져있는 세계에서, 한국의 민주화과정은 특별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한국 민주화역사는 민주화를 향한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국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 이전의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논할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세기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결과입니다. 한국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피어난 민주주의는, 전쟁과 불안, 독재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민중들에게 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반은 굳건하지 못합니다.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거청산을 위한 동의와 합의의 토대가 아직은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주화운동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말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여전히 채워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또하나의 현실인 듯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 토대인 과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복원하는 것, 오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망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과 합의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거나 역사 속에 묻혀버린 과거 민주화운동을 발굴·복원하는 것은 민주

화운동에 힘 입어 설립된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여러 이론적 논의들을 연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밝혀내어 향후 새로운 민주주의 상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연구총서의 발간입니다.

연구총서 발간은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논의 등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총서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연구소로서 본격적인 연구 이전의 선행연구로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내실을 다져가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문이 많지만 연구소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운동, 학생운동, 정치운동, 교회운동 4개 부문을 먼저 조사·연구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족함이 많은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땀과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작은 성과임은 분명합니다. 이번 민주화운동 연구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향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내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희의 이번 조사·연구가 민주화운동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고, 더 심화된 연구를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연구에 참여해 귀찮고 힘든 작업을 성실히 해주신 연구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총서 기초조사사업을 토대로, 향후 한국민주화운동의 과거복원과 미래전망의 정립에 기여하는 여러 이론적 성과들이 축적되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2003.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 형 규

목 차

I.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7
II. 해제 문헌 차례	29
III. 문헌 해제	37
1. 개신교의 사회참여운동.....	39
1) 개신교 사회참여운동의 배경	39
2) 반독재 민주화운동.....	64
3) 농민 · 노동 · 빈민운동	112
4) 통일운동	130
5) 개신교 사회참여운동의 반성과 전망	193
2. 가톨릭의 사회참여운동	203
1) 가톨릭 사회참여운동의 배경과 국가-교회갈등의 전개	203
2) 반독재 민주화운동	215
3) 농민 · 노동 · 빈민운동	242
4) 통일운동	252
5) 가톨릭 사회참여운동의 반성과 전망	260

IV. 참고문헌	271
1. 개신교의 사회참여운동	273
1) 개신교 사회참여운동의 배경	273
2) 반독재 민주화운동	274
3) 농민 · 노동 · 빈민운동	275
4) 통일운동	276
5) 개신교 사회참여운동의 반성과 전망	278
2. 가톨릭의 사회참여운동	279
1) 가톨릭 사회참여운동의 배경과 국가-교회갈등의 전개	279
2) 반독재 민주화운동	279
3) 농민 · 노동 · 빈민운동	280
4) 통일운동	281
5) 가톨릭 사회참여운동의 반성과 전망	281

I .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I.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배원

1. 머리말

가톨릭과 개신교를 모두 포괄하는 기독교의 사회참여운동은 그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선교 이래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기독교는 빠트릴 수 없는 존재이다. 운동의 공간이 극도로 제한된 암흑의 시기에 기독교는 활동가들을 길러냄과 아울러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기독교 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체제를 비판하며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남미나 필리핀의 가톨릭이 그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한 역할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안에서든 밖에서도 상당히 부진하다. 1970년대부터 교회사 연구자들에 의한 일제시기 ‘기독교민족운동’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민족주의나 민족의식을 다룬 논문이 『기독교사상』이나 『신학사상』 등 신학 잡지에 실렸지만 극히 제한적이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교회사나 한국사 영역에서 ‘기독교민족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일제시기에 국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한편 1970년대 이후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그 수준은 신학대학의 석사학위논문, 학술적 성격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기독교운동 당사자들의 글, 노동운동과 같은 다른 부문운동을 다룬 연구논문에서의 부분적 언급 등에 머물고 있다.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부분이었고, 현재도 각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가? 기독교 안에서 사회참여세력이 기독교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다수가 아니다. 이러한 기독교 내 역관계를 반영해 교회사나 종교사회학에서는 여전히 기

1) 한규무, 2000, 「한국기독교민족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와 역사』12호, 76쪽

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가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층 민중운동과 각 부문운동이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의 보수화와 맞물려 기존 민주화운동이 퇴조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역시 침체되었는데, 이것 역시 연구 부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밖에서는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진전에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제약을 가져왔다는 부정적 시선이 있고, 이것은 일제 말기 이래 기독교가 국가에 종속되어 체제 유지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에²⁾ 더해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을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 밖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첫머리에서 언급했듯이,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은 한국에서 군부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한 주체였다. 특히 몇몇 부문운동에서는 기독교가 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극도의 억압 속에서 기독교는 운동의 공간이었고 훌륭한 지원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진전과 더불어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세력도 주체와 방향성, 자기정체성 등을 고민하며 변화, 발전해 왔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연구 문헌을 조사·정리해 연구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글이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이해의 길잡이가 될 수 있고 향후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한 연구문헌의 주제는 기독교의 사회참여 논리와 그 바탕이 되는 신학, 반독재 민주화운동, 각 부문운동, 통일운동 등이다. 약 200여 편의 문헌을 조사했는데, 상당수는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세력이 자기 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글,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당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전망한 글, 사료 모음집 등 연구문헌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또한 연구문헌도 석사학위논문이나 소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료, 학술적 성격은 약하지만 당시 논의를 잘 보여주는 글, 연구사에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논문이 다수 있다. ‘문헌해제’에서는 이러한 문헌을 중심으로 해제를 달았고, ‘참고문헌’에서는 그 외의

2)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인철, 1994, 『한국 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 1945~1960』, 서울대학교출판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문헌을 포함해 170여 편을 주제별로 분류했다. 문헌 조사와 해제를 바탕으로 다음 장부터는 각 주제별 연구 현황과 과제를 정리해 보겠다.

2. 사회참여운동의 배경과 논리

한국 기독교는 보수적·근본주의적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선교사들의 영향 아래 체제 유지 세력으로 존재해 온 측면이 크다. 특히 해방 후 한국 사회가 미국의 절대적 영향 아래 놓이게 되면서 기독교는 친미보수반공체제의 핵심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기독교가 1970년대 이후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과 논리, 지향 등은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연구문헌들도 거의 대부분 이 점을 포착하고 있다. 즉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전반을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이라는 틀로 바라보며 그러한 운동의 대두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밝히고 이후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기독교가 내세운 논리와 지향을 분석, 평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독교가 사회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 초반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이것의 배경으로 개발독재가 낳은 노동 소외와 유신체제를 들고 있다.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로 인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도시 빈민의 양산, 모든 사회문제의 정점에 놓여 있는 유신독재 등을 목도하면서 기독교 내 진보세력은 이전의 전도 또는 사목에서 벗어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사회참여운동에 나서게 되는 배경이 1970년대 초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이었다면 내적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대부분의 연구는 1960년대 세계 개신교가 '재래적인 형태의 전도'에서 벗어나 전사회의 구원을 위해 사회문제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한국 개신교는 그 영향 아래 '하나님의 선교', 세속화신학, 토착화신학 등으로 불리는 자유주의신학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변화를 근거로 개신교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선교 방향을 새롭게 해나가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초 신학·선교 방

향의 전환과 더불어 이후 운동 전개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중의 고난 받는 현실과 그것의 극복을 위한 투쟁'에 메시아적 의미가 내재해 있다는 민중신학이 성립되었고, 이러한 민중신학이 이후 교회의 사회참여운동에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가톨릭계의 경우, 교회가 사회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와 남미 해방신학의 영향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문제와 사회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해하며 사회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 민중운동이나 일반 사회운동이 성장하게 되면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은 축소되어졌고 그 위상과 역할에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연구는 민중신학에 대한 반성, 민중신학과 사회과학 이론과의 접목 시도, '유물론적 세계관'을 신학 체계로 끌어들이려는 신학적 노력의 등장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경향은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의 내적 논리에 대한 시계열적 검토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나 서구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 사회참여운동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없다. 또한 이러한 신학적 흐름이 어떤 변용 과정을 통해 민중신학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이 없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교회가 어떠한 신학적 논리와 전략을 갖고 민주화운동의 변화나 시민운동의 대두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전무하다. 물론 이 글은 본격적인 신학 논의를 검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신학계의 논의나 변화를 담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위의 문제가 분석, 평가될 때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 연구에서도 민중운동이나 일반 사회운동의 성장에 따른 교회의 역할 축소와 탈정치화를 지적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세력의 고민과 대응, 논리적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없다. 가톨릭교회가 개신교와는 전혀 달리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일원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는 논의와 행동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이후 반드시 채워져야 할 연구 분야이다.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 대두하게 되는 계기와 배경에 덧붙여 그 주도세력의 현실 인식과 지향도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은 거의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세력은 민주화 이전의 한국사회를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결여한 독재체제로 파악했고 따라서 국민의 참정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다는 것이

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혹은 복지국가였다고 한다. 즉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세력은 결코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지 않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수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가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 이것은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 전체 민주화운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운동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운동의 이념적 틀을 제약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민주화를 지향했다고 평가하는 연구들도 전체 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가 전체 운동 안에서 기독교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연구의 큰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신학적 언술로 표현되었던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세력의 현실 인식과 지향을 사회과학적 틀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것이 전체 운동과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1980년대에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세력 내에서는 자본주의체제를 전제로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논의가 글로 외화되거나 정리되어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흐름이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의 변화·발전과 관련해 이후 연구가 논의의 흔적을 찾고 분석·평가해야 할 것이다.

3. 반독재민주화운동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일 것이다. 특히 정치적 자유와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민주주의가 극도로 제한된 유신체제기,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실의 반영으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 1970년대는 빠지지 않는 주제이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와 시각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먼저 기독교 내의 연구는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대두하게 되는 계기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1970년대 기독교가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계기로서 1970년 전태일 분신자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충격과 곧 이어 이루어지는 유신개헌을 꼽고 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노동자를 비롯한 기층 민중의 열악

한 현실에 눈뜨게 했고, 군부권위주의체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신체제의 시작이 기독교 내 진보세력으로 하여금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가톨릭의 경우에는 지학순 주교 구속사건을 통한 정치적 압력의 체험이 사회참여운동의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은 기독교 밖의 연구에서도 대체로 동의되어지고 있다. 한편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연구문헌에서는 교회가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시기와 계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설정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4.19혁명, 한일협정비준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등을 교회가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로 꼽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70년대 이후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을 이전의 소극적 현실 참여에서 적극적 현실 참여로 변화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으로서 1970년대 이전 기독교가 친미보수반공체제의 핵심 세력이었다는 기독교 밖의 시선과 대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 시기를 1960년대 초까지 끌고 가려면 당시 중요한 사회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친 일반적인 수준의 영향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로 인한 기독교 전체의 변화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주체의 문제이다. 물론 운동의 주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을 포함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 교회 내 진보적 지식인,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검토된 연구의 일치된 견해이다. 개신교의 경우 반독재민주화운동세력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를 '유기적 지식인'으로 정의해 제기했고, 가톨릭계의 경우에는 사제단과 평신도 내 소수 진보세력이 그 역할을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평가이다. 개신교에서는 '유기적 지식인'이 교회 내 소수이지만 그 주도적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표성을 띠는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가톨릭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회의 반독재민주화운동세력이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기독교 밖 연구는 대체로 기독교 내 진보적 지식인, 성직자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됨으로써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대중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제기는 1980년대 이후 민중운동의 성장에 따른 기독교의 역할 축소와 맞물려 있다. 운동의 주체를 분석하는 주된 이유는 그로 인한 운동의 성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의 주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현

재와 같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후 연구는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을 누가 이끌었는가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교회 내 진보적 지식인과 성직자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가,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주체의 구성에 변화가 없었는가, 가톨릭교회의 경우 위계적인 조직 체계와 운동 주체의 구성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등이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은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할 때 비로소 노동문제의 극복과 인권 회복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앞장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들은 결코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문제의 중심에 독재 권력이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는 1973년 4월의 '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 1974년 4월의 '민청학련사건', 1976년의 '3.1민주구국선언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197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에 기독교가 깊숙이 관여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이러한 점에 주목하며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에 대해서는 최초의 유신반대운동으로서 기독교가 초교파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민청학련사건'은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세력과 학생운동세력이 처음으로 함께 했던 투쟁으로서, 그 결과 기독교계의 사회참여운동세력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운동의 구성원이 확대되고 조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계에서는 이후 사회참여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의구현사제단이 결성되었다고 한다. 또한 '3.1민주구국선언사건'은 기독교가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재야를 비롯한 다른 운동주체와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한다. 한편 일부 연구는 1970년대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기구 중심의 성명서 발표 수준에 머물렀고, 이러한 운동 방식이 주체의 협소함과 맞물려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1970년대 각 부문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어떠했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그러한 평가가 기독교의 한계인지, 아니면 한국 민주화운동 전체가 갖는 시대적 한계인지를 엄밀히 따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교회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고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대다수 연구가 1970년대를 주목하고 있는 데 반해 1980년대 이후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세밀한 연구가 많지 않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 급격히 후퇴 또는 소멸해 간 현실에 대해서는 분석이 거의 없

다. 다만 1970년대를 반성하며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노력, 그것의 일환인 민중교회운동이나 평신도운동, 기층 민중운동의 성장에 따른 기독교의 위상과 역할 변화 등을 평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특히 그것의 전체 민주화운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층 민중운동의 성장과 시민운동의 등장 이후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4. 부문운동

기독교가 참여했던 부문운동에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청년학생운동, 여성운동 등 다양하다. 이들 가운데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의 경우 5.16쿠데타 이후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비판과 참여가 극도로 억압된 상황에서 기독교의 참여가 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전체를 이끌어내는 핵심 영역이었다. 이렇게 부문운동에서 차지하는 기독교의 역할이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나 전체 민주화운동, 각 부문운동 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신학대학의 석사학위논문, 교계 정기간행물에 실린 소논문 정도가 전부이다. 기독교 밖에서의 연구는 각 부문운동을 분석하면서 기독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하고 해제한 연구는 대부분 기독교 안의 것들로서 노동, 농민, 청년학생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노동운동

먼저 노동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참여를 살펴보자. 개신교의 노동운동 참여는 1950년대 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교단이 산업전도위원회를 조직해 교단 별로 산업전도를 시작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산업전도의 시작을 한국 사회의 산업화에 대한 교회의 대응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화당 정권이 공업화를 추진하면서부터 도시로 산업인구가 유입하게 되자 교회는 교세 확장 차원에서 전도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의 산업전도는 노동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을 뿐이고 그들의 영적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이해한다(김명술, 서원섭, 정명기, 조승혁, 조원경). 산업전도에 대한 기독교 내 평가에 비해 기독교 밖 평가는 좀 더 혹독하다. 홍현영

은 산업전도 활동이 노동자들에게 종교적, 사회적 의미에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노동윤리를 내면화함으로써 꾸준히 작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즉 초기의 산업전도는 다분히 ‘친자본적’이었다는 것이다.

산업전도는 1960년대 말에 이르면 도시산업선교로 전환하게 된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교회가 주목하게 된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1968년 도시선교위원회,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 등의 결성으로 구체화했다. 도시산업선교의 중심인물이었던 조승혁 목사는 도시산업선교로의 전환을 사회구조의 개혁을 포함한 복음의 사회적 확대를 실천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이러한 방향 전환의 결과 도시산업선교는 공장별 노동조합의 결성과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기독교 내 연구자들은 대부분 그와 동일한 시각으로 도시산업선교를 이해한다. 반면 기독교 밖 연구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독교계 지식인들이나 도시산업선교 주체들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성 확보를 체제 내로 제한했으며 ‘산업평화’를 조성하려는 국가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홍현영).

도시산업선교로의 전환 배경, 특히 신학 논리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 역시 이 주제 분야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노동 현실에 대한 개신교 교회의 대응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당시 서구의 ‘하나님의 선교론’이 미친 영향에도 주목한다. ‘하나님의 선교론’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선교론이었다. 이것은 국가, 성별, 민족, 이념, 종교, 문명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기존의 교세 확장이라는 좁은 개념을 탈피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선교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1968년 아시아기독교협의회가 산업전도에서 산업선교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세계 개신교계에서의 신학적 흐름, 선교 방향의 전환 등이 한국 개신교 교회의 산업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개신교 교회의 노동운동 참여에서 또 한 주체는 크리스찬아카데미이다. 크리스찬아카데미는 1970년대에 들어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화해와 사회 통합, 이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화 이념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주체를 ‘중간집단’이라고 하며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집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 글에서 검토한 연구들은 이 같은 크리스찬아카데미 활동의 내용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형성

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 교육 활성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크리스찬아카데미의 활동과 논리를 소개하는 데 머무름으로써 분석적인 평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분석적 평가의 결여는 교회의 참여로 노동운동이 조합주의로 흘렀다는 기독교 밖의 부정적 평가와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결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톨릭계의 노동운동 참여는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톨릭노동청년회를 다룬 연구들은 1960년대 초반 교회 내 청년봉사단체로 시작했던 조직이 어떻게 노동운동단체로 변화해 갔고,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변화한 시점으로는 1963년, '강화도 심도직물 노동탄압사건'이 일어났던 1966년, 김수환 주교가 추기경으로 선임되고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공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 시작한 1969년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시점이 왜 변화의 계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분석과 설명은 없다.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기독교 내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민주노조 결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선험적으로 평가할 뿐이다.

위에서 연구 현황을 검토해 보았듯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노동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연구의 쟁점이다. 대체로 기독교 밖의 연구는 교회의 노동운동 참여가 노동운동의 진전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즉 기독교가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틀을 크게 제약했다는 것으로, 1970년대 노동운동을 '조합-경제주의' 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기독교 안의 연구는 교회의 노동운동 참여를 통해 노동자들의 사회인식과 계급의식이 성장할 수 있었고 민주노조운동도 발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평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노동운동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산업전도-산업선교, 크리스찬아카데미,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관련된 사료의 꼼꼼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회의 노동운동 참여 과정에서 무슨 '사건'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참여의 논리, 그것의 신학적 배경, 운동 주체들의 사회 인식과 전망 등이 당시 사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회의 노동운동 참여가 두드러졌던 1970년대 노동운동의 조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의 노동운동 참여에 대해 현재의 시각에서 당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 참여의 주체들이 동일했는가를 비교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선교, 크리스찬아카데미,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각각 노동운동 참여 정도, 참여 방식이

달랐다. 산업선교는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참여를 지향했고, 지오세는 다소 덜 적극적이었으며, 크리스찬아카데미의 경우 반체제 지식인과 교회의 교육이 결합하여 노동운동 활동가 양성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각각의 신학적 배경에서부터 구체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2) 농민운동

기독교의 농민운동 참여는 노동운동 참여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해 동일하게 사회선교로 발전해 나갔다. 또 농민운동, 특히 1970년대 지역에서의 농민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농민운동의 성장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농민운동 참여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부문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다. 기독교농민회,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소개하거나 자주적인 농민운동이 발전하면서 교회의 농민운동 참여는 침체 또는 개량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개신교의 경우, 많은 연구들이 기독교농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성서의 ‘耨耨有田’ 원칙에 따라 농민운동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선교의 틀 안에 위치하는 기독교농민운동의 논리, 초기의 단순 전도에서 사회선교로 옮겨가는 배경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 전체 농민운동과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미흡하다. 가톨릭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안동가톨릭농민회를 사례로 농민운동의 조직과 활동, 그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가톨릭 농민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가톨릭 농민운동은 농촌 신자들 사이에서 활동가 중심으로, 분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민대중의 운동으로는 전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안동가톨릭농민회 사례를 근거로 가톨릭 농민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논의하기에는 선부르다. 전체 가톨릭 농민운동의 기반과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례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전체 농민운동 속에서 가톨릭농민회의 역할과 위상, 농민운동의 발전에 따른 가톨릭농민회의 성격 변화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1970년대 사회선교로의 전환에 따른 가톨릭농민회의 활성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결성 이후 ‘새생명공동체운동’으로의 방향 전환 등을 언급했을 뿐, 그 이유와 논리적 배경, 그에 따른 가톨릭농민회 활동의 구체적 변화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농민운동 연구에서 큰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년학생운동

청년학생운동이 전체 운동의 선도세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청년학생운동도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기독교 청년학생운동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기독교청년협의회나 기독교 학생회총연맹,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등이 자기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발간한 책이나 글,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논문 등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기독교 청년학생단체의 자기 역사 정리는 비록 학술논문이 아니지만 기독교 청년학생운동을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이다. 기독교 청년학생운동의 발전 과정이나 사회인식, 논리 등은 대체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전체와 동일하게 전개되어 간 듯하다. 기독교계 청년학생들은 1970년대 전까지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이라는 틀 안에서 노동현장을 체험하고 산업화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이 1970년대 이후 사회선교론과 이에 영향을 받은 민중신학의 등장, 독재의 강화 등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심화하고 반독재민주화운동, 기층 민중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연구는 기독교 청년학생운동의 선도성을 설명하고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운동의 토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을 주목한다. 하지만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의 논리, 구체적 활동, 이후 기독교 청년학생운동과의 인적, 논리적, 조직적 연계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없다.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을 기독교 청년학생운동의 모태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분석,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다른 부문운동에서도 그렇듯이 기독교 청년학생운동 연구에서도 전체 학생운동과의 관계, 학생운동의 성장에 따른 기독교 청년학생운동의 변화 등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밖에 교회는 도시빈민운동, 여성운동 등 다른 부문운동에도 참여해 왔다. 특히 도시빈민운동은 1970년대 이후 기독교가 사회참여의 중요한 매개 고리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것이다. 수도권도시선교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천주교도시빈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교회는 지역에서 도시빈민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전체 도시빈민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이 글과 이후의 논문 해제에서는 기독교 도시빈민운동을 검토하지 못했다. 이 글의 큰 허점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운동의 경우, 개신교가 여성신학을 신학의 한 흐름으로 발전시키며 여성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왔지만, 이론

적·실천적 측면에서 전체 여성운동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어오지는 못했다. 많은 경우 개신교 내 여성 활동가들이 전체 여성운동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기독교 여성운동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5. 기독교 통일운동

기독교 통일운동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8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간의 통일운동을 정리하고 이후 전망을 모색하는 내용과 기독교 통일운동의 논리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신학의 제창을 주장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 가운데 개신교의 통일운동을 다룬 글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톨릭에 비해 개신교가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좀 더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입해 온 상황, 이와 맞물려 해외 기독교들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한국 기독교계의 사정³⁾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 통일운동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는 본격적인 통일운동의 전개를 1980년대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통일운동 참여의 계기, 시기 구분 등에서는 논의가 다양하다. 개신교 통일운동의 위치를 전체 한국 민주화운동 속에 놓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 계기를 광주민중항쟁으로 설정하고 있다. 광주민중항쟁이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안보’라는 논리로 무참히 진압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교회는 적대적인 분단구조 하에서는 국가안보를 내세운 군사독재가 근절될 수 없으며, 참다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것을 계기로 통일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채수일, 이삼열, 조승혁).

반면 이러한 논리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내의 흐름에 더 주목하는 연구들은 1980년대 전반기에 세계교회협의회, 해외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발표한 일련의 선언을 개신교 통일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선언들에서 개신교는 통일을 기독교의 임무로 인식하며 화해와 공존으로 자주적 평화통일

3) 기독교계는 1981년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 개최, 198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1차 총회에서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신설 등 1980년대 초반부터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을 이를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논자에 따라 개신교 통일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설정하는 선언은 각각 다르다. 김상우는 1981년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 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 모임에서 발표된 '비엔나선언'을 본격적인 통일논의의 시초로 보고 있다. 그리고 '비엔나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해외 기독교인들의 통일논의가 1985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총회선언의 형태로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한다. 김형태, 나이영은 198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가 신설된 것을 본격적인 통일운동 전개의 중요한 계기로 설정한다. 강문규, 노정선은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동북아시아 평화와 정의협의회'에서 발표한 '도잔소 선언'을 주목한다. 이 선언이 처음으로 남북분단을 '갈등구조 하에 있는 국가간의 문제'로 지적하고 양자 사이의 교류와 화해가 '선교사업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천명함으로써 한국 개신교 교회가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을 벌여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각각의 선언은 교회가 기존의 반공주의에 입각한 남북대결의식을 반성하며 통일을 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질적 차별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선언을 개신교 통일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볼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면 각 선언 주체가 갖는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선교나 신학에서의 입장, 이후 개신교 통일운동의 양상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 것을 전제로 특정 선언을 교회 통일운동의 분기점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신교 통일운동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신교 통일운동의 역사를 1970년대까지 끌어올리는 연구들도 있다(김용복, 김홍수, 손규태, 주재용). 물론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도 개신교 통일운동이 1980년대 이후 비로소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연구들은 7.4남북공동성명이 정권의 실천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와 통일운동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이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 주목한다. 주지하듯이 한국 교회는 일제시기부터 반공주의 입장에서 있었고 이러한 태도가 한국전쟁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었다. 교회는 반공주의와 북진통일을 정권 유지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활용했던 이승만 정권에 밀착해 있었고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이었다. 이러한 교회에게 7.4남북공동성명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김관석, 문익환, 박상증, 홍현설 등 교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평화공존의 논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교회 통일운동의 역사를 1970년대까지 끌어올리는 연구들은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7.4남북공동성명이 교회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교회 지식인들의 긍정적 반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1970년대 개신교 교회의 통일 논의가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다. 김용복은 교회가 관념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월남 전 북한 치하나 한국전쟁의 경험 등으로 인해 북한을 통일의 한 주체로 인정하거나 그들과 대화·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하게 나이영은 교회 내 통일논의가 활성화했지만 여전히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으로 인식되는 한계를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수는 당시 통일 논의가 북한 공산주의 자들과의 대화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대결논리에서 벗어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와의 ‘평화적 대결’을 전제한 점에서는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준걸은 통일운동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1970년대 통일논의가 교단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인사들에 한정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개신교 통일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는 대부분의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을 발표한 것과 1995년 회년 선포이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은 분단 상황이 군사독재정권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였고 인권유린과 노동자·농민에 대한 탄압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일운동은 이 점에서 진정한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 된다고 주창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1980년대부터 개신교계에 나타난 변화, 즉 민주화와 통일을 선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집중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선언’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인도주의, 민주참여를 통일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하였다. 연구자들은 ‘선언’이 갖는 이 같은 의미에 주목하여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김상근, 나이영, 노정선). 김상근은 ‘선언’이 금기시되었던 통일논의를 민중의 차원으로 끌어들이 활성화했으며 ‘평화와 통일’이라는 남북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와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기념비적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가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한 것은 회년 준비의 한 과정으로서 남북교회 공동기도문을 작성하거나 이산가족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등의 실천을 가리킨다. 노정선도 이 점을 주목했는데, 그는 ‘선언’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으로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화해와 교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실제 1988년 ‘선언’ 이후 개신교 통일운동은 회년을 준비하는 데 집중되었다.

1995년 8월 15일 개신교 교회는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으로서 ‘함께 사는 통일, 서로 배우며 닦는 통일, 새롭게 만드는 통일’을 제시했다. 김상근은 이 원칙이 두 체제의 공존과 변형을 보장하려 한 점에서 현실성을 띤 것이었고 회년운동이 ‘3대 원칙’의 실현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텃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사실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두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남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개신교는 1995년 회년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초점을 맞춰 통일운동을 전개했는데(문은배), 이러한 흐름은 기본적으로 회년 선언에서 제시한 ‘공생적 통일’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상근은 회년운동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분석은 없다.

회년 선포와 그 준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회년운동의 의미와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성격 등에서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나와 있지 않다. 이는 개신교 통일운동 연구사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988년 ‘선언’이 통일 논의를 민중 차원으로 끌어내고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였다면 이것이 회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회년운동 자체에서 어떻게 실천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1995년 회년 이후 교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으로 통일운동의 방향을 선회했을 때 그 논리, 교회 내 진보세력만이 아니라 보수세력까지 아우르려는 노력과의 상관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민중 차원의 통일운동이 논리나 실천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개신교 통일운동의 주체와 관련해 대부분의 연구는 민중운동과의 연계, 민중 차원의 통일 논의 등을 당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개신교 통일운동이 주로 해외 기독교들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부 교회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실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몇몇 연구는 개신교 교회가 남북통일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으로 조직화된 교회대중,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와의 연대, 선교라는 비정치적 주제를 활용하였다는 점, 통일교육을 규모 있게 진행시킬 수 있는 기독교 관련 언론과 기관 확보 등을 들고 있다(안재웅, 채수일). 그러나 이것은 조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민중 중심의 통일운동 전개, 대중적 통일운동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개신교가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을 활용해 어떻게 민중성, 대중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실제 성과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과제라고 하겠다.

모든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 그렇듯이, 통일운동도 그 논리적 근거를 신학에서 찾고

있다. 개신교 통일운동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도 대부분 운동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통일신학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기존의 신학이 서구의 이데올로기와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통일을 가로막아 왔다고 진단한다(노정선, 이재정, 주재용). 즉 서구 신학은 ‘분단신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신학, 서구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자주적 신학의 정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분단신학의 내용, 서구신학이 왜 분단신학인가, 통일신학의 내용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 ‘분단신학’과 통일신학이라는 대립 항을 설정하고 서구 신학을 분단신학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내용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존 신학의 보수적, 체제 유지적 성격을 서구 기독교의 한국 선교 정책, 선교 종주국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한국 교회 상황 등으로부터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⁴⁾ 통일신학이 ‘하느님의 선교신학’, 민중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이만열). 따라서 민중이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통일운동의 주체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도 통일신학의 내용이 명확히 설명되어야만 그 타당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신학의 형성을 민중신학 이전 개신교 내 통일 논의에서부터 찾는 경향도 있다. 주재용은 1960년대 개신교 내 몇몇 지식인들이 평화통일론을 펼쳤는데 이들 통일론의 일관된 방법론은 ‘통일의 신학’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통일의 신학’은 통일의 당위성을 성경의 논리와 배경으로 설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평화를 인류가 추구하는 당위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논한 것이며,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개신교 통일운동은 전체 통일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검토한 연구 대부분은 개신교 통일운동이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사회 전체의 통일논의를 선도했고, 통일 논의의 저변 확산,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에서도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의의 ‘선언’이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개신교의 경우 국내의 억압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교회협의회나 해외 기독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북한 기독교와의 대화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익환 목사와 같은 교회 내

4) 강인철은 1945~1960년 한국 개신교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근본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미국 교회와 그 선교사들이 한국 개신교에 대한 지원과 통제의 해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점을 꼽았다.(강인철, 1994, 『한국개신교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인물이 통일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한 사례도 다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개신교 통일운동의 선도성이나 전체 통일운동에 대한 영향을 곧 바로 증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신교 통일운동의 흐름이 전체 통일운동의 흐름과 거의 맥을 같이했고, 7.4남북공동성명이나 전체 통일운동 진영의 논의가 개신교 통일운동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논의도 있기 때문이다(나이영).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의 문제를 떠나 개신교 통일운동과 전체 통일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독교 통일운동 연구는 개신교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가톨릭계가 교단 차원의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은 사실 때문일 것이다. 문규현 신부, 조성만 열사 등 전체 통일운동에서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들을 가톨릭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들이 곧 가톨릭계의 통일운동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한반도 평화문제나 통일운동에 대해 종종 성명서를 발표해 왔고, 가톨릭대학생연합회가 학생운동 안에서 통일운동에 참여해 왔지만 그들이 가톨릭 전체의 통일운동에 대한 입장과 실천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주교회의 내에 설치된 민족화해위원회나 북한 선교부가 가톨릭 교단의 통일운동을 이끄는 중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의 방향은 주로 북한 선교에 맞추어져 있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이나 부문운동에서는 운동의 형성과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가톨릭계가 통일운동에서는 왜 이렇게 보수적 혹은 소극적 입장을 취했는가. 이후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6. 맺음말

기독교는 친미보수반공체제의 핵심 세력이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회 비판과 운동의 조직화가 극히 제한되었던 시기에 거의 유일한 저항 공간이었고 한국 민주화운동에 상당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는 양과 수준에서 모두 미진하다. 눈 여겨 볼 만한 연구는 종교와 국가의 관계라는 틀 속에서 기독교의 체제유지적 측면을 밝히고 평가하는 데 집중되어 있거나 1970년대 기독교 사회참여운동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기독교 스스로는 사회참여운동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현실에서 그에 대한 연구조차 활발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는 두 가지 대립적인 평가가 유의미한 상호 논

쟁 없이 병존하고 있다. 하나는 대체로 기독교 밖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체제유지세력으로 존재해 왔고 197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운동의 변혁적 성격을 제약했다는 평가이다. 나머지 하나는 기독교 안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선교 이래 민족민주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1970년대 이후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전체 민주화운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이렇게 대립된 시각은 앞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의 중요한 과제는 상반된 두 평가 사이에 적극적이고 열린 토론을 열어 놓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결여한 채 그 의의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 당시 운동의 조건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위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이 모두가 열린 토론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기독교와 국가와의 관계, 기독교 내 보수와 진보 각각의 국가와의 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은 향후 연구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과 전체 민주화운동과의 관계를 살필 때 남미나 필리핀 민주화운동에서 가톨릭의 위상과 역할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서구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의 영향이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한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비교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 글은 가톨릭의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연구 현황 조사와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개신교에 비해 실제 연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구문헌 조사와 해제를 충분히 하지 못한 이 글의 부족함이 큰 이유이다. 또한 본문에서 밝혔듯이 몇몇 부문운동이나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문헌 조사와 해제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후 더 보충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가톨릭과 개신교 외에도 불교, 천도교와 같은 종교 역시 사회 참여를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종교계의 사회참여라는 큰 틀에서 각각의 사회참여운동을 이해하고 상호 비교할 때 종교의 사회참여운동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 천도교와 같은 다른 종교의 사회참여운동에 관한 연구 현황을 조사·분석하지 못한 것은 이 글의 큰 한계이다.

Ⅱ . 해제 문헌 차례

II. 해제 문헌 차례

1. 개신교의 사회참여운동

1) 개신교 사회참여운동의 배경

- 김일주. 1991. 「한국의 민중적 기독교세력 등장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유경. 1984. 「197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발생배경과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섭. 1991. 「70년대 이후 진보적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고찰」 감리교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 윤승용. 1992. 「社會變動에 대한 宗教의 反應形態研究 : 산업화이후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길호. 1993. 「한국 현대사의 사회변동과정에서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제양태 연구」 감리교신학대 석사학위논문
- 최형묵. 1987. 「사회변혁운동 이념과 기독교신학- 1980년대 한국상황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복. 1991. 「민중신학과 토착화신학」. 『기독교사상』91년 6월
- 송건호. 1984. 「기독교의 사회참여 -70년대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84년 11월
- 이영숙. 1991. 「한국 진보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사회변동 추진에 대한 연구 -1957~1984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91년 3월~5월
- 이원규. 1989. 「한국개신교회의 정치참여(1970년대 기독교진보주의 종교이념의 발전과 그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사회』 한국신학연구소
- 이준걸. 1999. 「사회적 성화사상에서 본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반독재 민주화운동

- 김영철. 2001.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 김진배. 1987. 『1970年代 民主化運動 : 기독교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I-II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김홍수. 1995. 「5월 광주항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응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5
- 문장식. 2001. 『한국민주화와 인권운동 : 鹽光會를 중심으로』 쿰란출판사
- 변형윤. 1986. 『한국사회 발전과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50주년 기념사업회. 1998.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50년사』
- 강인철. 1994. 「한국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 1945~196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섭. 1991. 「70년대 이후 진보적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고찰」 감리교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 원성훈. 1994. 「韓國基督教 進步勢力의 現實參與運動에 관한 研究 -維新體制期間 反體制運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길. 1996. 「韓國宗教에 있어서 體制抵抗의 政治運動과 그에 參與한 宗教指導者들의 特性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대. 1999. 「韓國民主化運動에서 教會의 政治的 役割에 對한 研究-197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서. 2000.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기독교」. 『한국사회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 김상근. 1984. 「1970년대의 한국 기독교운동」. 『기독교사상』 84년 11월
- 이상규. 1994. 「해방 후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4
- 조승혁. 1986. 「민주화와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사회 발전과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1985. 「기독교청년운동의 전개과정-70년대 이후 교청, 교단청년, EYC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역사 속의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1985. 「기독교청년운동의 역사와 과제」. 『한국역사 속의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3) 농민 · 노동 · 빈민운동

- 조승혁. 1981. 『都市産業宣敎의 인식』 민중사
- 김명술. 1995. 「한국기독교 도시산업선교의 계보」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민. 1987. 「한국농민현실과 농민선교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연순. 1998. 「1970년대 노동교육 사례연구: 크리스찬 아카데미 산업사회 중간집단 교육」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원배. 1988. 「한국농촌현실진단과 농민선교의 방향」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현영. 2002. 「1970년대 개신교의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규. 1989. 「도시산업사회와 교회」. 『한국교회와 사회』 한국신학연구소
- 정명기. 1985. 「도시빈민선교의 이해」. 『한국역사 속의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4) 통일운동

- 국토통일원. 1995. 『남북대화시대의 종교계 통일운동방향』
- 노정선. 1988. 『통일신학을 향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이삼열. 1991.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 전대련 · 노종호. 1986. 『한국기독교사회운동- 그 형성 · 전개 · 과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채수일. 1995.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한국신학연구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1990.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8. 『기사연리포트 7-민중의 진출과 민족민주운동』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8. 『노정권의 출범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민중사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1991. 『분단의 실상과 교회의 통일운동』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 김상우. 1993. 「한국개신교에 있어서의 반공이데올로기 형성과 변화」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이영. 1992. 「분단시대 민족적 선교과제로서의 한국교회 통일운동」 감리교신학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은배. 2001. 「한국교회 남북통일운동의 흐름」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호. 1996. 「통일을 향한 교회의 이데올로기 전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우성. 1991. 「분단에 대처하는 한국 교회 : 1945년-1989년까지의 통일논의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문규. 1991. 「남북한 교회의 만남의 역사와 전망」. 『기독교사상』 91년 8월
- 강문규. 1991. 「남북교회의 만남과 앞으로의 과제」. 『기사연 무크』 3
- 김상근. 2000.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평가와 제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자료집』
- 김용복. 1984. 「민족분단 속의 한국기독교」. 『한국사회와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박종화. 1993. 「평화통일신학의 쟁점과 전망」. 『목회와 신학』 93년 1월
- 손규태. 1990. 「평화를 위한 통일의 신학」. 『기독교사상』 90년 1월
- 안재웅. 1998. 「기독교 평화통일운동의 평가와 과제」. 『기독교사상』 98년 6월
- 양성모. 1998. 「민족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정. 1992. 「한국교회와 회년운동」. 『교회와 세계』 109
- 이만열. 2001. 「한국기독교와 통일운동」. 『한국기독교사연구』
- 이삼열. 1988. 「한국 기독교와 통일운동-교회협의회 선언의 입장과 배경」. 『기독교사상』 88년 7월
- 임진철. 1990. 「80년대 한국기독교운동과 민족민주운동」. 『기사연 무크』 1
- 주재용. 1981. 「한국교회의 통일론」. 『기독교사상』 81년 6월

5)개신교 사회참여운동의 반성과 전망

- 조원경. 1985. 「1960년대 이후 한국기독교운동에 대한 신학적 반성」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수. 1992. 「한국교회의 민중운동과 민중신학의 미래」. 『기독교사상』 92년 11월
- 박성준. 1989. 「한국기독교의 변혁과 기독교운동의 과제」. 『신학과 실천 II』 한국기독교학
생회총연맹
- 안병무. 1982. 「민족 · 민중 · 교회」. 『민중과 한국신학』 한국신학연구소
- 조승혁. 1985. 「민중적 사회발전에 관한 한국교회의 반성」. 『기독교사상』 85년 8월

2. 가톨릭의 사회참여운동

1) 가톨릭 사회참여운동의 배경과 국가-교회갈등의 전개

- 김 녕. 1996. 『한국정치와 교회-국가갈등』 가톨릭사회과학연구소
- 윤여덕 · 오경환 · 박문수. 1990. 『한국 가톨릭교회와 소외층, 그리고 사회운동』
- 강경애. 2000. 「1970년대 한국 천주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70년대 천주교 사회운동을 통해 본 교회,국가갈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 녕. 1998. 「카톨릭교회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과 제약요인 : 한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가톨릭사회과학연구』 9
- 박재정. 1992. 「가톨릭교회와 한국정치」.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

2) 반독재 민주화운동

-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2000. 『암흑 속의 햇불』
-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교회. 1994. 『명동성당 시위 전단 자료집』
- 김기석. 「1970년대 한국가톨릭의 정치참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수영. 「한국가톨릭 사제의 사회참여 활동의 특징과 변화」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선영. 1991. 「한국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정의구현활동, 그 논리적 구조와 대안적 전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인철. 1997. 「천주교사회운동과 가톨릭의 한국화-천주교사회운동에 대한 도전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우리신학연구소
- 강경애. 2000. 「국가, 시민사회와 가톨릭교회의 관계-제5공화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9-2
- 김 녕. 1999. 「유신시대 명동성당에서의 민주화운동」. 『가톨릭사회과학연구』 10
- 한용희. 1987. 「1970년대의 한국교회와 정치」. 『가톨릭사회과학연구』 4

3)농민 · 노동 · 빈민운동

- 김종현. 1995. 「慶北地域 農民運動史研究, 1976~1994 -安東가톨릭농민회 활동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래성. 1998. 「경북지역 농민운동의 전개, 1976~1983 -안동가농의 분회조직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호경. 1984. 「가톨릭농민운동-한국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67
- 조여옥. 1984. 「가톨릭 노동청년회(지오쎄)운동」. 『신학전망』 67

4)통일운동

- 유경춘. 2002. 「분단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한모. 1984. 「한국통일과 가톨릭교회의 입장」. 『가톨릭사회과학연구』 3
- 변진홍. 1999. 「신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가톨릭사회과학연구』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2001.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의 역할과 전망」. 『사목』
- 김성태. 「한국천주교의 통일사목방향」

5)가톨릭 사회참여운동의 반성과 전망

- 박영대. 1997. 「교회변혁을 위한 교회론적 접근」 우리신학연구소
- 이대훈 · 박준영. 1997.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중의 정치세력화론 검토」 우리신학연구소
- 박준영. 1997. 「90년대 가톨릭운동의 새로운 신학적 토대에 대하여」 우리신학연구소
- 박영대. 1997. 「80년대 천주교사회운동 평가와 90년대 천주교민족민주운동 시론」 우리신학연구소

Ⅲ. 문헌 해제

Ⅲ. 문헌 해제

1. 개신교의 사회참여운동

1) 개신교 사회참여운동의 배경

1. 제목: 「한국의 민중적 기독교세력 등장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

2. 저자: 김일주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230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고려대학교

7.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절 연구의 이론적 구성과 범위

3절 연구의 시각과 방법론 및 연구의 몇 가지 주요 개념들

2장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와 기독교의 정치세력화

1절 기독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

2절 정치권력의 집중화와 기독교 세력의 정치화

3절 기독교 세력의 정치화와 세계적 추세

3장 사회계층의 구조적 긴장과 기독교의 성장

1절 사회계층분화와 구조적 긴장 및 종교의 대두

2절 사회계층의 구조적 긴장과 기독교의 사회참여

4장 기독교내부의 신학적 변화와 민중적 기독교 세력의 등장

1절 해방신학의 도입과 기독교 내부의 갈등

2절 민중적 기독교 세력의 조직화와 적극적 정치사회 참여

5장 민중적 기독교의 정치세력화와 그 한계성에 대한 고찰

- 1절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등장배경에 관한 비교분석
- 2절 정통보수 기독교 세력의 입장에서 본 민중적 기독교 세력의 문제점
- 3절 특정종교 세력의 신념체계인 민중신학 평가
- 6장 결론 : 국가와 민중적 기독교-그 평가와 전망

8.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국 기독교세력을 국가론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며,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 국가권력의 집중화와 사회계층적 분화, 기독교 내부의 변화관계를 통하여 기독교세력의 정치화를 설명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첫 번째로는 정치권력의 집중화와 권위주의 정권의 경직화 현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산업화 근대화 초기에 국가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자본축적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을 증대시키고 집중화시킬 필요를 느끼는데, 이때 국민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억압적 수단으로 권력의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영역과 사회영역 간에는 긴장과 대립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유신체제의 성립은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즉 권위주의가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체제를 조직하는 구성원리로서 체계화 명문화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정치영역의 파행성은 종교계를 포함한 여러 사회집단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기독교세력의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대표적인 반체제운동이 되었으며 박정희 정권은 '배제적 통제', '국가조합주의'라는 기제를 통해 종교 세력을 억압했던 것이다.

둘째로는 산업화 근대화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화와 구조적 긴장을 다루고 있다. 종교의 정치참여는 사회적 부의 불평등한 분배라는 계층간의 문제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종교는 소외계층에게 소외의 근원을 분명하게 제시해줌으로써 계급적 계층적 의식을 부여해주는데, 피지배자의 계급적 계층적 조직의 매개자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계급동원의 효과적 기제로서의 기능적 분화가 1970년대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은 그 목표가 분명해지고 조직적 형태를 보였으며 사회변혁을 위한 적극적 사회참여라는 급진성을 띠게 되었다고 보았다.

셋째로는 기독교 자체의 내부 갈등과 신학적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민중적 기

독교세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남미의 해방신학과 WCC조직은 한국 기독교계에 신학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이러한 신학체계를 기반으로 한국의 사회 구성체를 독특한 시각으로 분석하는 민중적 기독교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신학적 변화와 함께 기독교지도자들은 정치권력, 사회의 불평등, 노동문제에 대해 윤리적인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변화는 정치권력의 집중화와 사회계층의 분화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기독교세력을 급격하게 정치화시켰다고 보았다.

1. 제목: 「197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발생배경과 특성을 중심으로」

2. 저자: 문유경

3. 발행연도: 1984년

4. 쪽수: 78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연세대학교

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종교의 사회운동과 자원동원론

제1절 종교와 사회운동

제2절 사회운동과 자원동원론

제3장 한국기독교의 성격과 민주화운동의 배경

제1절 한국기독교의 전래와 성격

제2절 민주화운동의 배경

제4장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전개

제1절 역사적 전개

제2절 주요사건에 대한 분석

제5장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특성

제1절 이데올로기적 특성

제2절 조직적 특성

제3절 자원동원 과정의 특성

제6장 결론

8. 연구목적

기독교계의 민주화운동이 뚜렷이 부각되는 시기로 1972년 이후의 유신체제기를 주목하고 1979년 10월 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기독교의 사회변혁적 기능을 고찰한 논문이다. 기독교 민주화운동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자 하였다.

9. 연구내용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자원동원론을 원용하였는데, 이는 사회운동의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사회운동이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의 조직과정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사회운동의 과정이 '사태'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의도적 계획과 조정의 산물로 나타나는 것이라 파악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이 같은 자원동원론이 가지는 함의를 서술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3장에서 한국기독교의 전래와 그 성격을 약술하고 있다. 일부나마 기독교계가 민주화운동에 선도적인 위치를 자임하며 나섰던 동인에 대하여 내적 조직력의 정비와 사회참여적 성격을 띠며 전래된 한국기독교의 독특한 특성, 노동자계층의 확대에 따른 '도시산업선교'의 대두 등을 들고 있다.

4장에서는 정부와의 갈등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70년대 이후의 기독교 민주화운동이 주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었음을 지적하고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당시 기독교인들의 대량 검거사태가 기독교민주화운동을 더욱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남산부활절 예배사건, 민청학련 사건, 3.1절 명동사건 등 개별사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우선 1973년 4월에 발생한 '남산부활절예배사건'에 대해서는 최초의 유신반대운동이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1974년 4월의 '민청학련 사건' 와중에서 KSCF 등의 기독교 민주화운동조직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나 구속자 석방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정의구현사제단' 등이 발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보았다. 즉 '민청학련 사건'이 상당수 기독교 민주화운동자들을 구속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운동의 구성원이 확대되고 조직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1978년도에 동일방직 노조대의원 선거문제, 주식회사 진로의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분규 등 노동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듬해부터 기독교계의 민주화운동이 노동운동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며 이 같은 관심이 농민운동으로도 확산되었음을 지

적하고 있다. 특히 1979년의 YH사건에 대해 기독교계가 범교단적으로 항의성명서를 발표한 점을 그 예로 들고 있다.

5장에서는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기독교 민주화운동세력의 운동 목표가 권력에 획득에 있지 않고 비판적인 행위 그 자체에 있다는 것,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 아래에 결사가 비교적 용이했던 기존의 교회조직을 이용한 경우가 많으며 연합기관의 결성을 통한 탄력적인 조직화가 많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주로 교회의 조직력을 기독교민주화운동이 대두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들고 있다. '자원동원론'을 이용하여 이를 논증하고 있는데, 기독교민주화운동의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1. 제목: 「70년대 이후 진보적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고찰」

2. 저자: 서영섭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10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감리교신학대학

7. 목차

I. 서론

Ⅱ.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적 배경

Ⅲ. 70~80년대의 사회적 배경과 그 인식의 변화

1절 유신체제 하의 사회적 배경과 그 인식의 변화

2절 광주민중항쟁 이후의 사회적 배경과 그 인식의 변화

Ⅳ.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의 신학적 배경

1절 하나님의 선교신학

2절 토착화신학

3절 민중신학

4절 여성신학

V. 1970년대 이후의 기독교 사회운동의 전개과정

1절 70년대의 기독교 사회운동의 전개과정

2절 8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전개과정

VI. 평가

8. 연구목적

기독교사회운동을 유신체제 하의 운동, 광주민중항쟁 이후의 기독교운동으로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서술한 논문이다. 기독교사회운동의 기원을 추적하고 특히 70년대 기독교사회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면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9. 연구내용

2장에서는 기독교 사회운동을 일제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단초를 찾고 있으며, 3장에서 70년대와 80년대의 사회적 배경을 정리하고 있다. 기독교사회운동이 본격화된 계기로 1972년도의 7.4공동성명을 들고 10월 유신 등 독재정권의 등장이 民衆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이 같은 사회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신학적 움직임을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1952년도 독일 국제선교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기독교 선교의 개념이 역사적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견해 즉, 靈的이고 宗教的인 구원을 뛰어넘어 사회적 현실의 '해방'을 추구하는 선교개념이 등장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라트로 대표되는 정통주의 神學을 흡수하면서 1960년대부터 국내에서 土着化神學이 등장했음을 지적하고 70년대에 들어와 토착화 신학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어 聖俗을 구분 짓는 宗教神學과 民衆神學으로 분립되었다고 보았다. 민중신학에 대해서는 그 논리가 「하나님의 선교」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기독교계가 관련되어 있었던 사회운동을 나열하였으며 종교적 구원만을 강조하던 產業宣敎에서 근로조건, 환경을 중시하는 都市產業宣敎運動으로 변화된 점을 지적하고 노동조합 조직에 이 같은 운동이 일정정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앞으로 노동자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복지와 문화활동을 도시산업선교활동의 향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5장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70년대 이후의 사회부정이 '민족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한 뒤 통일운동이 기독교 사회

운동의 중추라고 전제하였다. 맺음말에서 지금까지의 기독교운동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론적 무기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무장하고 전국적인 조직망까지 확충하여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1. 제목: 「社會變動에 대한 宗教의 反應形態研究 : 산업화이후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2. 저자: 윤승용

3. 발행연도: 1992년

4. 쪽수: 250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서울대학교

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변동과 종교의 반응

제1절 종교의 사회적 위상

제2절 종교의 반응형태

제3장 현대 한국종교의 전개

제1절 산업화 이전의 한국종교

제2절 3공화국의 종교

제3절 유신체제하의 종교

제4절 5공화국의 종교

제4장 산업화와 종교의 반응형태

제1절 한국사회의 전개

제2절 산업사회와 종교

제3절 사회모순의 심화와 종교

제5장 종교별 반응결과 분석

제1절 종교별 반응결과

제2절 반응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제6장 결론

8. 연구목적

이 연구는 산업화 이후 한국사회변동에 대한 각 종교의 반응형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한국 종교의 사회적 위상을 밝히고, 한국 종교계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종교의 성장과 사회참여 현상을 사회구조 변동과 종교의 내적 역동성이라는 양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9. 연구내용

2장에서는 사회변동과 종교반응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는데, 종교의 사회적 위상과 종교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구성체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의 반응과정과 그 반응의 결과인 종교현상에 대한 사회적 성격을 분석하는 틀과 관련 변수를 설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산업사회에 대한 종교의 적응태도를 능동적 태도와 피동적 태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각 종교의 내적 역동성에 의해 결정되며 그 역동성의 주요 함수로는 신앙의 사회불안 해소 능력, 교리의 재해석 능력, 조직의 근대적 합리성을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모순에 대한 수용태도는 영합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사회규정력에 의해 결정되고 그 규정력의 주요 함수는 세계체제와 종속정도, 사회적 토대, 정치적 층위, 문화 이데올로기적 층위와의 관계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적응태도와 사회모순의 수용태도를 고려하여 산업화에 따른 종교의 반응유형을 피동적 영합형, 능동적 영합형, 피동적 거부형, 능동적 거부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양적인 성장의 가능성은 능동적 영합형, 피동적 영합형, 능동적 거부형의 순으로 높다고 파악하였다. 지배블록에 저항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능동적 거부형이 가장 낮고, 사회참여의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보았다.

3장에서는 일반 언론매체의 종교 기사와 종교 언론매체의 특집 및 사설을 기초로 하여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 이후 등장한 사회변동문제에 대한 종교의 반응양상을 시기별로 특성화하여 한국종교의 전개과정을 서술하였다. 각 시기는 종교의 사회 대응양상인 종교운동사의 차원에서 세분하였는데 제3공화국에서는 분열수습기, 한국종교 개혁기, 사회문제 인식기로, 유신체제하에서는 사회문제 대응기와 사회참여 고양기로, 제5공화국에서는 참여세력 분열기와 한국종교 개편기로 구분하고 있다.

4장에서는 각 종교의 반응형태와 그 사회적 성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산업화에 의한 한국 사회의 전개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청에 대한 각 종교의 반응을 반응태

도별로 살펴보았다. 각 종교는 산업사회에 대한 적응 태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태도, 산업사회를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산업사회의 논리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태도로 구분하였다. 능동적 적응현상에는 종교의 물량화와 기복화, 종교의 현대화와 토착화, 종교의 개방화와 민주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피동적 수용현상에는 전통의 레종교 및 근본주의적 신앙현상들을 중심으로 그 전개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순에 대한 수용신앙으로서는 분단모순이 구조화된 반공적인 신앙의식 확산, 종속모순의 수용현상으로는 대외 의존적 신앙, 계급모순의 구조화된 신앙현상으로는 종교의 양극화 현상, 전근대성을 수용한 신앙현상으로는 권위주의적 신앙을 제시하고 있다. 모순에 대한 거부신앙으로는 신앙의 혁신양상에 해당하는 평지향의식 확산, 토착화와 현대화, 계급신학의 흥기, 종교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들고 있으며, 사회모순해결을 위한 사회적 도전현상으로는 종교의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평화통일운동을 들고 있다.

5장에서는 종교별 반응의 사회적 결과를 정리하고, 각 종교의 신앙양식, 재생산구조 그리고 사회 각 층위와 각 종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종교의 성장과 사회참여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불교는 사회변동에 대한 내적 역동성이 부족하고 서구기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규제, 특히 정치적 층위에서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구조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피동적 거부형의 종교 중 순응적 거부형의 종교로 파악하였다. 유교는 조직적인 내적 역량이 불교보다 취약하여 전통사상의 부분에서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동적 거부형 중 강요적 거부형에 속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기독교 중 진보적인 흐름을 보인 측과 가톨릭은 1960년대 후반 순응적 거부형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계기로 능동적 혁신형으로 되었다가 유신체제하에서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려는 능동적 사회참여형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했으며, 1980년대 들어서 체제변혁문제가 거론되자 종교로의 회귀와 현상타개를 주장하는 측간의 대립이 생겨 능동적 혁신형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보수측은 진보측과 대립하여 1960년대 이후 능동적 영합형으로 있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능동적 혁신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에서는 1960년대 이후 세계체제 속의 종속적 산업화 과정에 대해 한국의 종교가 반응해온 결과와 그로 인해 형성된 종교현상의 사회사적 의미를 서술하고, 한국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국종교의 양적 성장과 현실참여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교의 재생산구조의 차이에서 생기는 내적인 요인으로서 기독교가 근대교육체제를 장악함으로써 사회공신력이 있는 인적 자원을 배출한 점, 신도의 공

유자산으로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물적 자원을 재생산하는 기제를 갖고 있는 점, 구성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조직 전체의 통합력을 가지고 있는 점, 종교 내 헤게모니 장악에서 전통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회층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첫째, 기독교의 양적인 성장과 사회참여현상은 종속적 산업화가 가져온 한국사회의 파행적인 사회발전이 종교영역에 각인한 결과이나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화된 기독교가 자본주의 계층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모순에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둘째, 사회구성체의 각 층위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규정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사회대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기독교가 토착화를 이루지 못해 문화적으로는 그 영향력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넷째, 폐쇄적인 사회에서 대외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대외지원세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 제목: 「한국 현대사의 사회변동과정에서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제양태 연구」

2. 저자: 최길호

3. 발행연도: 1993년

4. 쪽수: 110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감리교신학대

7.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종교와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장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들-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2장 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사회학적인 이론

III. 한국 교회에서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구조

1장 이데올로기와 기독교

2장 한국 교회에서 종교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소비 과정

3장 한국 제도교회의 수준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

IV. 현대사 속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양태

1장 해방 정국과 이에 따른 기독교 지도자들의 시대인식

2장 60-70년대 산업화속에 나타난 교회 성장과 이에 따른 기독교 신앙의 양태

3장 80년대 민족통일과 민족자주성 수호과정에서 나타난 신앙양태

4장 90년대 한국사회의 사회변동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기독교 신앙의 과제

V. 맺는말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종교를 단순히 억압의 기제로 보는 시각,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차원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변동에서 종교의 능동적인 요소를 밝히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남미의 종교사회학자 오토 마두로의 이론을 통해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두로는 제3세계의 관점에서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제기하였는데, 그는 사회변동 가운데 종교가 능동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9. 연구내용

2부에서는 종교와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적 토대로서 기능이론, 갈등이론, 세속화이론을 검토하고, 사회변동 속에서 사회계층과 종교의 관계를 마두로의 이론을 통해 재검토하고 있다.

3부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종교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한국교회의 종교지배 이데올로기의 생산·소비 메커니즘을 검토하였는데, 종교성과 계층의식, 정치평가와 종교성 등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한국교회 내에 지배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종교지배 이데올로기가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변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한국현대사 속에 나타난 기독교신앙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각 시대별로 기독교운동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시대인식과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기독교가 사회변동 상황에서 한편으로 보수적인 모습으로, 다른 한편으로 진보적인 운동의 전위세력으로 사회적 변화에 참여하는

한국 기독교의 양면적 성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1950년대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모색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해 기독교운동의 맹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정권과 유착되어 권력과 이권에 참여하는 현실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1960~1970년대에는 교회 내부로부터 기독교의 역사적 사명과 책임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이를 통해 교회갱신과 현실 참여가 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초반에는 지식인들의 사회참여가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운동론으로 '중간집단론'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는 산업화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제고되고 있으며, 국가권력의 통제에 대한 교회의 정치통제라는 대응논리가 수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에 이르러 이런 이론적 바탕 위에 도시 산업선교론과 민중론이 등장하여 한국 기독교운동은 민중문제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등 민중지향성을 표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970년대 산업선교론과 민중론의 대두는 1980년대 한국교회가 기층민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보았다. 1980년대 한국 기독교 사회변혁운동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민중 생존권을 위한 교회의 참여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또한 기독교운동은 개인적인 참여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적인 토대를 형성하였으며 기독교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이 거듭되었음을 지적하였다.

1. 제목: 「사회변혁운동 이념과 기독교신학- 1980년대 한국 상황을 중심으로」

2. 저자: 최형묵

3. 발행연도: 1987년

4. 쪽수: 83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7.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전개방법

Ⅱ. 사회변혁과 기독교신학

1. 신학의 상황적 성격
2. 사회변혁에 조응한 기독교 신학의 전개
3. 사회변혁에 조응한 기독교 신학의 내적 동인과 그 원초적 유형들

Ⅲ. 1980년대 한국 사회변혁운동과 기독교 신학

1. 1980년대 한국 사회변혁운동
2. 1980년대 변혁적 상황에서의 한국 기독교 신학

Ⅳ. 1980년대 한국 상황에서의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의 대화 모색

1. 대화의 현실적 필연성
2. 대화의 장애요인
3. 대화의 방향과 차원

V. 결론

8. 연구목적

1970년대 이후 기독교계에서 실천적 참여의 논리적 근거로 등장한 民衆神學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변혁운동의 심화와 더불어 이념적 철저성을 요구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후 현대 변혁이론 중 마르크스주의와 민중신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의도에서 작성된 글이다.

9. 연구내용

Ⅱ장에서 기독교신학 자체가 사회변혁의 요구에 조응하여 변화되어온 상황들을 열거하였으며 Ⅲ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개관을 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와의 ‘대화’에 대하여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가 ‘기독교사회주의’ 등의 등장과 함께 양자 사이의 대화를 모색해온 전통이 있음을 확인하고 양자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와 한국 기독교 내부의 관념성을 양자간 대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설정하면서 神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서 양자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독교신학의 神觀이 변화될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1. 제목: 「민중신학과 토착화신학」, 『기독교사상』 91년 6월

2. 저자: 김용복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9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1. 한국 토착화신학의 역사적 전개-민중신학의 시각에서
2. 토착화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3. 한국종교문화의 다원적 현실과 에큐메니칼 원리로서의 민중적 연대 - 토착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8. 연구목적

이 글은 민중신학의 토착화문제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작성된 글이다. 필자에 의하면 기독교 복음이 한국민족의 역사와 현실에 접목되어 민중의 삶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민중신학은 지금까지 동의를 표하고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민중의 주체성을 논하였다. 그러나 민중신학은 이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토착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어놓지 못했고, 본격적으로 논의한 일조차 없다. 이에 시론적으로나마 민중신학의 토착화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는 것이 서술의 목적이다.

9. 연구내용

필자에 의하면 신학의 '토착화'란 민중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삶과 종교문화적인 태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서구신학이 채용하고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한국과 아시아에 적용할 수 없는데, 이는 서구철학의 틀과 역사적 전개가 유럽 및 영미의 사회경제적 사정에 기반하여 등장한 것으로서 한국적 상황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부터 한국적 상황에 맞게 일정한 토착화과정을 밟아왔다고 본다. 초기의 성경번역을 그 예로 들면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이전의 한문 중심적인 문화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토착화라고 평가하였다. 성경번역 이외에도 찬송가, 목사들의 설교 등에서 기독교는 토착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파악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토착화가 한국교회의 전통이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현재 한국교회는 서구문화화한 기독교를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토착적 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민중의 현실과 괴리된 신학만을 고집하게 되었다.

한국 민중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종교경험을 축적해오면서 다원적인 종교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기독교 역시 이러한 민중의 다원적인 종교경험 속에서 수용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다차원적인 종교요소들을 통합시키는 것은 토착화를 시도하는 기독교로서는 당연한 임무이지만 현대의 기독교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중신학은 이를 인식하고 한국종교를 배척하는 태도보다는 수용, 조화시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토착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연구의의

이 글에서 제기한 ‘토착화신학’이란 일종의 에큐메니칼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다원적 종교관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 내적인 분열의 극복뿐만 아니라 타종교와의 조화를 제기한 것은 80년대 말부터 민중신학이 전시기와는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대두한 과제로 파악된다. 민주화운동에서 이러한 ‘토착화신학’을 제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해서는 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착화신학’의 정립이 제기된 것은 민중신학이 민중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1. 제목: 「기독교의 사회참여 -70년대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84년 11월

2. 저자: 송건호

3. 발행연도: 1984년

4. 쪽수: 13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없음

8. 연구목적

이 글은 한국기독교의 민주화운동이 대두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크게 사회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을 들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다. 서문에서 먼저 한국 기독교의 사회참여활동이 1930년대의 농촌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적하였으나 1930년대 농촌사업에는 '신학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최소한도의 자구책'으로 그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1970년대의 기독교민주화운동은 신학자체의 발전, 산업화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인권문제가 그 출발점이었고, 이에 따라 보다 뚜렷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하에서 기독교민주화운동이 활기를 띌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을 각각 서술한다.

9. 연구내용

기독교민주화운동의 사회적 배경으로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소외계급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노동자, 농민의 소외가 정권에 의하여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한국 개신교 교회가 '한일회담 반대운동', 69년 '3선 개헌 반대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독교가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운동에 주로 힘을 쏟고 있었고, 이는 정치의 개혁이 노동자, 농민 등 대중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계층의 소외에 대한 관심이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3선 개헌 반대운동'으로 표출된 직접적인 원인과 내적 논리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신학사조의 변동을 민주화운동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1966년 '교회와 사회'를 주제로 제네바에서 열린 WCC대회와 1968년 남미 메델린에서 개최된 남미주교대회를 해방신학이 국내로 전파된 전환점이었다고 지적하였다. 60년대 말 이후부터 해방신학과 WCC의 영향으로 1970대 서남동, 안병무, 문동환 등 민중신학자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내적인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에 여타 세력보다 더 정력적으로 뛰어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한편 1979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민중신학 심포지엄이 국내 민중신학의 체계적인 정립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보았다.

10. 연구의의

기독교민주화운동이 60년대 말부터 내적인 사회참여논리의 성숙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면에서 70년대 독재에 대한 항쟁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여타의 글에 비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연원을 60년대 한일회담반대 움직임에서 찾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1. 제목: 「한국 진보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사회변동 추진에 대한 연구 -1957~1984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91년 3월~5월
2. 저자: 이영숙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59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I

1. 진보적 개신교 지도자 출현 : 1957년부터 1960년대 초기 사이
2. 역사적 사건의 영향
3. 사회제도의 인간화를 위하여 : 1960년대 중반 - 1970년대 중반
4. 마르크스주의 및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
5. 지도자들의 사회정의 촉구

II

1. 진보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정치권력의 분립에 대한 열망 : 1960년대 중반 - 1970년대 중반
2. 정치권력의 진정한 근원에 대한 입장
3. 기독교 중간집단 역할 촉구
4. “자유민주주의”가 “복지국가”의 구현으로 간주되다.
5. 1970년대 중반까지 취해진 입장에 대한 결어

III

1. 민중개념 및 그에 따른 제3의 입장 대두 : 1970년대 중반기 -1984년까지
2. 기존체제들의 약점 : 물질생산성에 관한 과도한 집착
3. 제3의 입장 : 기본체제에 대한 선택적 대안

4. 요약 및 대안에 대한 평가

8. 연구목적

주로 『기독교사상』지에 발표된 기사들을 분석하면서 기독교계 사회운동 ‘지도자’들의 사회사상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미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글이다. 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내적인 과정을 서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목에서 1957년을 기점으로 하여 1984년까지를 고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57년을 기점으로 삼은 것은 이 글의 분석대상이 되는 『기독교사상』지가 창간된 연도로서 시기구분으로서의 의미를 특별히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1984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 글이 분석하고 있는 기사가 1984년까지 발표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 연구내용

이 글은 『기독교사상』지 1991년 3월호부터 3개월간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논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진보적 지도자들은 1957년에 『기독교사상』을 창간하여 교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재준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할 것에 관심을 두었다. 아울러 실질적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경향도 시작되었는데 1958년 4월에 『기독교사상』지에 글을 발표한 홍현설의 경우 기존의 정치를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분류하고 이에 대비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주창하여 이후 기독교계의 민주화운동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경제개발을 바라면서도 경제성장에 수반될 문화 및 영적 문제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현영학과 같은 이는 산업화에 뒤따라올 노동자, 자본가 간의 갈등을 미리 예견하여 사회윤리와 정의의 확립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진보적 개신교 신학자들이 사회문제를 중시하는 서구의 신학, 그 중에서도 세속화신학이라고 지칭되는 일련의 자유주의신학을 수용하게 된다. 개신교 ‘지도자’들은 이의 영향 아래에 “기독교란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인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은 자연법철학에 근거하고 있었고 세속화신학에 의해 일종의 종교적인 의무로까지 격상되었다. 근대화의 결과 노동자, 빈민층이 형성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인간화’에 대한 글들이 『기독교사상』에 다수 실리게 되었는데, 이들 글은 대개 ‘산업화’라고만 인식되어 오던 ‘근대화’의 개념에 ‘인간성 회복’이라는 개념을 접목시켜 ‘인간성에 기반을 둔 경제개발’을 지향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정의를 위하여 노력하던 ‘지도자’들에게 당시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대부분 마르크스주의가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사회개조는 기독교윤리의 자기부정과 사랑에 의한 내적 자아의 변화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김용복의 경우에는 급진적인 사회변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 역시 ‘인간의 자유와 인간완성’의 확보 즉, 총체적인 인간성의 회복을 중시하였다. 이 점에서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사회는 ‘제3의 길’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1972년 이후 박정희에 의하여 권위적인 유신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진보적 기독교 지식인들 사이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의해 시작된 저항은 도시산업선교회의 민주화투쟁을 필두로 하고 있었다. 도시산업선교회에 소속된 ‘지도자’들에게는 노동문제가 사회 정치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정치권력이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억압이라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졌고 파악했다.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이 가져온 영향에 관한 ‘지도자’들의 우려는 유신체제라는 정치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정치권력에 있어서 ‘진정한 권위’를 모색하는 일련의 글들이 『기독교사상』에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들은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지지하는 유교적 정치철학과는 달리 ‘국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영되는 통로’라는 인식을 가졌고, 때문에 국가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와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무장하게 된다.

한편,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주의 및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진보적 ‘지도자’들은 지식인들이 사회적 영역 내에서 야기되는 상이한 이해관계와 관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자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독교 지식인들을 ‘중간집단’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는 1970년대 초부터 진보적 ‘지도자’들 사이에 콘하우저의 대중사회 개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 콘하우저는 “엘리트들이 비엘리트들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비엘리트들도 엘리트들의 동원에 쉽게 말려들 수 있는 사회체제”에서는 대중은 파괴적인 동원에 쉽게 착취당하게 된다고 보았다. 때문에 중간적 존재들이 바람직한 정치참여의 방향을 제시하여 대중을 정치적으로 무장시키고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진보

적 ‘지도자’ 들은 노동운동 등에 일종의 ‘중간자’ 로 개입하여 들어갔던 것이다.

한편 이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중앙집권화한 정치권력의 분립을 강조하고, 상이한 입장을 가진 정치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강원용 목사의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에만 근거하여 세워진 정치체제는 인간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자본주의 내에서 가능한 개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인정한 것으로서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자는 전제 위에 그 억압성을 해체하는 데에 목표를 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본주의체제를 ‘복지국가’ 로 개혁하기를 원하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교회와 ‘민중’ 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검토하려는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먼저 민중에 대한 개념부터 다소 문제시되었는데, 안병무의 경우 국가 대신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민중이 민족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김경재는 “일용품을 생산하여 실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실체”로 민중을 묘사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통해 민중문제의 해결을 지향하였다. 한완상은 “정치적 통치수단과 경제적 생산수단과 사회문화적 군림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부당한 억압을 받는 사람”이라고 민중을 정의 내렸다. 그런데 민중의 소외를 강조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민중개념에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은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모두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로 비판하고 ‘인간적 가치’ 를 중시하는 ‘제3의 입장’ 을 가졌던 것이다.

70년대 중반이후 기독교 지식인들이 상정하고 있었던 ‘제3의 길’ 은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전의 기독교 지식인들이 막연히 지지했던 ‘자유민주주의’ 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제3의 방안’ 은 공정한 분배를 이루고 불의를 일소하는 데에는 자유주의체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등장한 개념이다. 오히려 70년대 중반 이후의 사회민주주의를 공동체와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일부 수용하여 나온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내세운 ‘제3의 길’ 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프롤레타리아라는 제한적인 계급에만 기반을 두지 않고 전 민족적인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2) 소수에 의해 물질이 점유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관료적 지배를 부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소를 지닌 ‘제3의 길’ 은 국민대중의 광범한 정치참여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체제를 지향하였다고 평가된다.

10. 연구의의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 논문은 50년대 후반 이후 기독교 정치운동가들의 동향을 통시적으로 요약하여 그 특징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문제와 빈부격차 등 제반 사회문제에 대해 선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히고, 이들이 가진 사회개혁론이 일종의 ‘제3의 길’임을 지적한 것은 기독교민주화운동의 초기에 등장한 개혁방안이 이후 민주화운동 세세력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른바 ‘지도자’들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아 기독교 ‘지도자’들이 동일한 성향을 지닌 하나의 그룹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그다지 많은 설명을 가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사상』이라는 특정잡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기독교 ‘지도자’들의 범주화를 시도하고 있는 듯하지만 특정잡지에 기고한 인물들을 같은 범주로 묶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기독교민주화세력이 여타 운동세력과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도 이후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제3의 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모자란 점에서도 일정 정도의 한계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제3의 길’이 지향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다소간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기독교 지식인들의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또 다른 분석을 요하는 것이라 하겠다.

1. 제목: 「한국개신교회의 정치참여(1970년대 기독교진보주의 종교이념의 발전과 그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사회』

2. 저자: 이원규

3. 발행연도: 1989년

4. 쪽수: 41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신학연구소

7. 목차

1. 머리말

2.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3. 한국교회 - 정부의 갈등관계의 근거
4. 진보신학의 입장
5. 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실제
6. 평가와 전망

8. 연구목적

이 글은 1960년대 말부터 한국의 교회와 정부가 대립, 긴장관계에 놓였다고 평가하고 그 관계의 실상을 밝혀 그 이념적, 현실적 근거를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글이다. 주로 1970년대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논리와 의의를 살피는 작업을 중심으로 교회-국가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이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9. 연구내용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국가와 기독교 교회가 동일시되거나 기독교가 국교로서 통치자의 필요에 응하는 관계 2) 분리와 공존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이다. 양자는 대립과 공존을 반복하지만 대체로 중립을 지키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 3) 소외와 탄압의 관계로서 국가가 기독교를 소외, 탄압하는 관계이다. 초기 한국기독교는 2)유형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실제 교회는 정치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교회는 1)의 관계로 돌아가 친정부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교회가 현실비판자로서 사회개혁에 앞장서게 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이다. 60년대 무렵부터 한국기독교의 사회참여활동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신식민지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70년 말부터는 신학적으로는 해방신학,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아 국가와 대립이 더욱 첨예해졌으며 사회참여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여겨진다.

해방신학 등의 급진진보신학은 대개 제3세계에서 생겨났다. 대체로 제3세계는 정치적으로 대다수의 민중들이 억압받고 있으며, 군부독재가 정권을 쥐고 민중들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 민중신학은 60년대 이후 진행된 근대화작업으로 야기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안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한국의 상황신학이다. 민중신학은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었지만 구체적인 현장과 운동에 참여하는 경험 속에서 사회과학적인 인식을 통해 폭넓은 신학적 이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민중신학의 특징을 사상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 기독교가 지배이데올로기로써 기능을 하던 시대가 끝난 이후의 신학으로서 개인적 차원의 신앙과 사회적 구원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파악하고 있는 점 2)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구조적 개혁과 혁신을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주장하는 점 3) 사회경제사적 방법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민중신학은 보수신학이 묵과해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의를 파헤쳤다는 것과 기독교신앙을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해했다는 점, 역사의식을 분명히 인식한 역사와 신학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죄의 문제를 사회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죄를 간과했다는 점과 민중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 결국 성서적 원리에 위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보적 종교이념의 출현은 항상 그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급진신학은 사회경제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어느 정도 마르크스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중신학이 마르크스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중신학은 한국민족주의와 문화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기반을 더욱 넓힐 수 있으며 종교적인 신앙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으로 인해 그 활동은 더욱 사회적 희망으로 비춰질 수 있다.

10. 연구의의

민중신학을 기독교사회운동의 이론적 근거로 상정하고 있다. 민중신학이 한국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은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중신학이 한국적 전통에 기반한 측면과 아울러 서구신학과의 연계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제목: 「사회적 성화사상에서 본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2. 저자: 이준걸

3. 발행연도: 1999년

4. 쪽수: 8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감리교신학대학교

7. 목차

- I. 서론
- II. 사회적 성화사상에 관한 역사신학적 고찰
 - A. 뮌처
 - B. 칼빈
 - C. 웨슬리
 - D. 종합과 분석
- III. 해방이후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
 - A. 한국민주화의 역사적 상황
 - B. 사회적 성화운동으로서의 민주화운동
 - C. 한국교회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 D. 한국교회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
- IV. 한국교회의 통일운동
 - A. 한국민족분단의 역사적 상황
 - B. 사회적 성화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
 - C.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 D. 한국교회 통일운동에 대한 반성
- V. 통찰과 분석
 - A. 사회적 성화의 조명에서 본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공통점
 - B. 사회적 성화의 조명에서 본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차이점
- VI. 결론

8. 연구목적

민중운동으로서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개별적으로 나타난 운동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뮌처, 칼빈, 웨슬리 등 기독교 사상가들이 제시하였던 사회참여 이론 즉 '사회성화사상' 과도 상통한다는 입장 하에 그 신학적 연계성 및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차이점, 그리고 양자 간의 공통점을 살펴보겠다는 의도 하에 작성된 글이다.

9. 연구내용

필자는 먼저 2장에서 뮌처, 칼빈, 웨슬리 등 기독교 사상가들의 사상적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애를 교훈삼아 한국교회사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에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3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교회로서는 가장 합당한 정치체제라고 언급하고 이의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개념 정의하였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인권 등 사회 내적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이 점에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상통함을 지적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 현실에 안주하는 기독교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한 뒤 유신체제에 항거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상을 나열하였다. 교회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인권, 환경 등 여러 부문으로 활동영역을 넓힌 점, 정치에 대한 교회의 책임감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치우쳐져 종교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평가하였다.

4장에서는 기독교의 통일운동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7.4공동성명이 교회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였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교회의 통일논의가 교단전체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인사들에 한정되었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런 한계가 극복된 것은 80년대에 들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내에 통일문제 연구위원회가 설치되고 세계교회협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라고 보았다. 80년대부터는 보수적 교단에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교회간의 교류와 접촉이 상호이해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5장에서는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양자간의 공통점으로는 양자가 신학적 근거보다는 정부의 논리에 의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았다는 점, 교회분열을 야기했다는 점, 개인적 종교성에 대해 소홀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양자의 차이점으로는 활동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 민주화운동이 정치운동으로 경화되었다면 통일운동은 선교차원에서 제기된 면이 있다는 점, 보수진영의 관심이 통일운동에 쏠려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0. 연구의의

기독교사회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기독교사상사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기독교계의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민주화운동의 추이 및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글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독교사상사적 측면에서 기독교의 사회참여활동을 평가하는 작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반독재 민주화운동

1. 제목: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2. 저자: 김영철

3. 발행연도: 2001년

4. 쪽수: 190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7. 목차

1부 한국 기독교학생운동의 시작과 세계적인 흐름

1. 기독교학생운동의 세계적인 흐름 (영국, 미국, 아시아 복음주의 기독교학생운동)
2. 개신교의 전래와 한국 기독교 청년 학생 운동
3. 기독교청년학생운동의 과거와 현재
 - 1) 일제하 운동과 해방 후의 운동
 - 2) 한국 기독교청년학생운동의 역사의식
 - 3) 한국기독교청년학생운동의 신학적인 양면성

2부 기독교 청년학생운동의 중요성

3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기독교청년학생운동

1. 대한 기독교청년연합회(YMCA)
 - 1) 학생 YMCA 운동 2) 일반 YMCA 운동
2.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운동(YWCA)
3.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4부 교단 배경하의 기독교 청년 학생운동

1. 장로회
 - 1) 면려청년회
 - 2) 학생면려회
 - 3) 한국보수교단청장년협의회
 - 4)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2. 고신측

- 1) 면려청년회
- 2) 전국학생신앙운동
3. 감리교 : 감리교 청년회
4. 성결교 : 성청(聖聽)운동
5. 구세군 : 혈화청년회

5부 교단 밖의 기독교 청년 학생 운동

1. 한국기독교학생회
- 2 한국대학생선교회
3. 조이선교회
4. 한국삼대선교회
5.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6. 기독교대학인회
7. 네비게이토선교회
8. 한사랑 선교회
9. 예수전도단
10. 학생선교운동

6부 교회와 기독교 청년학생운동과의 관계

1. 기독교 청년학생운동과 그 사명
2. 기독교 청년학생운동체에 대한 교회의 시각
3. 기독교 청년학생운동과 교회와의 관계
4. 회고와 전망

8. 연구 목적

기독교 청년학생 단체들의 계보와 그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단체들의 계보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쉽게 파악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9. 연구 내용

이 책은 한국기독교 학생운동의 원년인 1897년부터 1987년 사이에 활동을 했거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개신교에 속하는 청년 학생 운동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 학생운동은 도입기 이래로 민족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38년 군국주의 전쟁의 와중에 기독교 학생운동 단체는 해산 당하였다. 해방 이후 기독교 청년학생 연합운동이 일어났으나 보수와 진보의 신학적 논쟁에 의하여 기독교청년 운동은 2갈래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과 YMCA, YWCA 그리고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 등이며, 다른 측은 순수한 교단 산하 청년 단체인 면려청년회(CE)와 합동측의 학생면려회(SCE), 고려측의 전국학생신앙운동(SFC)과 감리교의 감리회청년회(MYF), 성결교의 성청(聖聽), 구세군의 혈화청년회, 보수교단청장년협의회(YCEC)가 있다. 다른 한 흐름으로는 비NCC계가 있는데 이들 단체들은 전혀 교단의 배경 없이 초교파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학원을 복음화하는 데 있으며 그 방법으로 는 개인이나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하여 복음 밖에 있는 학생들을 전도하는 데 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립배경과 목표가 다른 각 단체들을 기독교학생운동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각 단체의 조직과 배경, 창립 목적, 주요 사업과 활동, 신조와 기구 유관단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서론을 통하여서는 본서의 기술 동기와 범위 기술 방법의 언급되어 있으며 전체는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부록편에는 한국학생운동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계보표와 함께 한국 학생운동운동과 관계있는 90년간의 연표(1897-1987)가 실려 있다.

10. 연구 의의

1897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독교학생운동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소략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제목: 『 1970年代 民主化運動 : 기독교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I-III 』

2. 저자: 김진배

3. 발행연도: 1987년

4. 쪽수: 2230쪽

5. 형식: 단행본(3권)

6. 발행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7. 목차

서론 : 1970년대 한국 교회와 인권 운동

- 1) 인권에 대한 신학적 조명
- 2) 1970년대 기독교 인권 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 3) 1970년대 기독교 인권 운동의 반성
- 4) 한국 교회 인권 운동과 세계 교회의 연대성

제 1부 1970년대 교회 인권 운동의 배경

- 1) 1960년대 한국 신학의 특징
- 2) 1960년대 한국 사회와 기독교
- 3) 토착화론과 세속화 신학의 대두
- 4) 한일 국교 정상화와 기독교
- 5) 부정 선거 규탄과 정치 신학의 대두
- 6) '하나님의 선교'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개

제2부 제 3공화국 말기의 인권 운동(1969.3~1972.10)

제 1장 제 3공화국 말기의 전반적 인권 상황

제 2장 제 3공화국 말기 기독교 인권 운동 개관

제 3장 제 3공화국 말기 기독교 인권 운동

1. 3.1운동 50주년 기념 대회
2. 삼선 개헌 저지 운동과 기독교 교회
3. 기독교 학생 운동의 통합과 학생 사회 개발단
 - 1) 기독교학생운동 통합과 학생 사회 개발단
 - 2) KSCF의 출범
 - 3) 학생 사회 개발단 운동의 전개 과정
 4. 전태일 사건과 사회 운동 세력들의 각성
5. 십자가 행진 사건
6. 4.27 대통령 선거와 선거 참관 운동
7. 수도권 도시 선교 위원회와 도시 빈민 선교
8. 기독교의 부정부패 추방 운동
9. 7.4 남북 공동 성명
10. 도시 산업 선교 실무 성직자 연행 사건
11. 기타 인권 사항

제 3부 유신 초기의 인권 운동 (1972.11-1974.3)

제 1장 유신 초기의 전반적 인권 상황

제 2장 유신 초기의 기독교 운동 객관

제 3장 유신 초기의 기독교 인권 운동

- 1) 은명기 목사 구속 사건
- 2) 에큐메니칼 현대 선교 협의체와 선교 단체들의 유대
- 3) 1973년도 NCC 주요 연구 협의회
- 4)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 선언
- 5) 남산 부활절 연합 예배 사건
- 6) 10.2 학생 시위와 학생운동의 재개
- 7) '신앙과 인권' 협의회와 인권 선언 8. 개헌 청원 운동과 대통령 긴급 조치 1.2호
- 8) 기타 인권 사항

제 4부 긴급 조치 이후의 인권 운동(1974.4-1975.4)

제 1장 긴급 조치 4호 이후의 전반적 인권 상황

제 2장 긴급 조치 4호 이후의 기독교 인권 운동 개관

- 1) 대통령 긴급 조치 4호와 민청학련 사건
- 2) 구속자 석방 문제와 민주화 운동의 확산 반응
- 3) 인민 혁명당 사건
- 4) 인권 위원회

제 5부 긴급 조치 9호 이후의 인권 운동 (1975.5-1977.4)

제 1장 긴급 조치 9호 이후의 전반적 인권 상황

제 2장 긴급 조치 9호 이후의 기독교 인권 운동 개관

제 3장 긴급 조치 9호 이후의 기독교 인권 운동

- 1) 기독교자 교수 해직과 갈릴리 교회
- 2)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
- 3) 기독교 인권 운동에 대한 용공 왜곡 박해
- 4) 1976년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연구 협의회들
- 5) 도시 빈민 선교 협의회

제 4장 기타 인권 사항

제 6부 유신 말기의 인권 운동 (1977.5-1979.12)

제 1장 유신 말기의 전반적 인권 상황

제 2장 유신 말기 기독교 인권 운동 개관

제 3장 유신 말기 기독교 인권 운동

- 1) 기독교 운동의 재연과 시국 대책 협의회
- 2) 1977년 성직자 구속 사태
- 3) 주한 미군 문제와 한미 교회 협의회
- 4) 노동자 생존권 투쟁과 교회의 연대
- 5) 한국 인권 운동 협의회와 민주화 연합 운동
- 6) 도시 선교 산업에 대한 탄압과 왜곡 비방
- 7) 산업 선교 수호 활동과 산업 선교 신학 선언
- 8) 동일 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인간 선언
- 9) 기장청년회 전주 대회 사건과 기독교청년운동
- 10) 기독교 청년민주화 인권 운동
- 11) 옥중 권리 투쟁과 민주화 투쟁
- 12) 양심범 가족 협의회와 고난과 투쟁
- 13) 노골화된 선교 탄압
- 14) 노동 운동의 고조와 기독교 인권 운동의 심화
- 15) 통대 선출 저지 민주화 촉구 대회 - YWCA 위장 결혼식 사건

〈권말 논문〉

인간 존엄과 한국의 고문 실태

1. 서론

- 1) 고문의 역사
- 2) 고문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입장
- 3) 고문에 대한 법적 고찰
- 4) 고문의 도덕적인 문제
- 5) 고문 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 6) 고문의 종류

2. 고문 사례

- 1) 개관적 서술

- 2) 일반 형사 사건의 고문 사례
 - 3) 정치적 사건에서의 고문 사례
 - 4) '정의 사회 구현' 표어 아래서도 끊이지 않는 고문과 폭력
 - 5) 수감자에 대한 가혹 행위
3. 결론: 고문에 대한 대책

8. 연구목적

‘인권’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를 통하여 그 개념의 대중성을 획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독교 인권 운동은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 책자는 1970년대 한국 교회가 인권문제에 집착하게 된 것이 한국 교회의 건강한 전통을 확보하기 위한 내적 투쟁의 과정에 직면하면서부터였다고 보고 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도입기부터 민족운동과 결합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신앙을 사회의식 역사의식과 연결짓는 성숙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함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일제 식민 통치가 진행되는 동안 변질되었다고 한다. 신앙의 주체성은 서구의 근본주의 신학에의 맹종으로 전락하였으며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는 신앙 풍토는 식민통치의 강압에 현실 도피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신앙 풍토로 변질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4.19혁명은 양식 있는 기독교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1970년대 한국 교회의 인권, 민주화 운동은 바로 그와 같은 진지한 반성의 결과였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서두에서 1970년대 한국 교회의 인권,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반성적인 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9. 연구내용

1960년대 경제 개발의 결과로서 1970년대 초반 ‘전태일 분신 사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생존권 투쟁은 한국 교회 인권 운동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교회의 대 사회 의식을 제고하여 인권 운동, 민주화운동을 발전시켰다. 1974년 부활절 연합 예배 당시 박형규 박사가 민주화에 관한 성명서를 배부하여 ‘내란 예비 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은 교회의 민주화 운동을 구체화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유신체제하에서 기독교 운동은 인권 운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의 목차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10. 연구의의 : 70년대 민주화 및 인권 운동에 관한 자세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어 자료 활용도가 높다. 민주화운동을 독재정권에 의한 각종 탄압에 대한 인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본 것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기독교계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종교 본원적인 관념이 작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한데 인권운동은 그 같은 종교적 차원의 민주화운동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난 분야로 이해된다.

1. 제목: 「5월 광주항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응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5

2. 저자: 김홍수

3. 발행연도: 1995년

4. 쪽수: 17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1. 서론

2. 광주항쟁 당시의 종교적 고백

3. 광주항쟁 이후의 반응

4. 신학적 사유 속의 광주

5. 결론

8. 연구목적

이 글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생긴 비극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의 이름으로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를 신앙고백과 신학적 해석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건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신학의 상황화' 라는 형식으로 되새겨 왔다. 여기서 '신학의 상황화'란 "주어진 역사적 현재에서 성서적 신앙을 새롭게 듣고, 이 현재적 상황에 실천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분석하고 성서적 신앙의 의의를 새롭게 해명하는 이론적 작업"을 뜻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화'의 길로 가도록 유도하였고 그 결과 기독교인의 현실참여

가 보다 절실한 문제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점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기도·증언·성명서·설교 등에서 광주 비극에서의 종교적 경험과 고백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광주에서의 비극적 사건과 그것에 대한 증언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고 해석되는지를 검토하였다.

9. 연구내용

시민들의 인명이 살상되는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여 광주의 기독교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기도회와 모금, 그리고 수습위원회를 통한 활동이었다. 수습위원회는 시민들과 신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5월 25일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민들은 기독교목사와 가톨릭 신부들에 대하여 쫓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이렇게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구성된 ‘5·18 수습대책위원회’는 ‘광주사태’의 성격을 “동학혁명, 3·1 운동, 4.19 민주구국 선언의 범통을 잇는 시민혁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참상을 목격하지 못한 몇몇 지도자들은 “상호간에 이성을 되찾아 더 이상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광주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일고 있던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와는 전혀 그 성향이 다른 것으로서 이후 교회가 광주 참상에 대해 진보와 보수로 반응이 둘로 갈리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이후 광주의 비극에 대한 교회들의 반응은 대체로 진상을 알리는 문서, 구속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재판과정에서의 진술, 조찬기도회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비극에 대해서 교회가 보인 가장 전형적인 반응은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회와 추모예배를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을 불순분자로 규정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것은 마침내 교회와 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물론 정부에 협조적인 지도자들도 나타났다. 이들은 조찬기도회를 통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을 미화하고 축복했으며 광주를 국민들의 기억에서 배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반해 광주를 기억하려는 기독교인들은 광주와 하나님을 연결시킴으로서 광주 사건을 ‘거룩한 사건’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해 나갔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공포정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광주에 대한 고백을 신학적 언어로 해석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다시 말해, 1985년 이전에는 다소 감정적이고 신앙고백적인 자세로 광주의 비극을 바라보았다면, 1985년 이후에는 그 비극을 ‘신학의 언어’로 체계화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의 이름

으로 나온 “광주항쟁의 성서신학적 의미”(1985)가 그러한 작업의 시초였다. 이에서는 광주항쟁과정에서 학살된 시민들을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것을 ‘신앙적 행위’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神과 관련시켜 광주의 참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을 방치한 듯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신학적으로 사유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해방운동사의 연속선상에서 광주사건을 이해하려고 한 종교계 밖의 재평가를 수용하면서도 출애굽과 같은 신앙운동의 연속선상에서 광주사건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따라서 세속적 재평가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이 중시되고 있다면, 종교적 재평가에서는 한국사회의 해방운동과 기독교의 해방전통이 함께 중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신학적 반응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의 정체에 집중되고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존재라는 추상적인 이해보다는 역사의 현장과 관련시켜 ‘심판하고 해방시키고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킨다. 여기서 한국교회에서 신학의 ‘상황화’가 진행되고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광주사건을 통해서 성서가 새롭게 해석되고 해방자·심판자·위로자 같은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형상화된 하나님 상이 부각되는 것이 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십자가”로서만 이해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시아와 세계의 ‘십자가’가 되려면 광주 민중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전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과 정의, 자유가 부활하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 작업은 한국적 신학을 창출하려는 이들 앞에 놓여진 가장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신학의 ‘상황화’가 광주사건에 대한 교회 밖의 평가 작업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는 교회 밖에서는 동학이 광주항쟁의 뿌리로서 중요시되고 있으나, 신학적 해석 작업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서적 해석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즉 억압된 민중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로서 예수가 상징되고 그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시각이 대두한 것이다. 교회 밖의 평가 작업에서 항쟁의 성격이 강조됨으로써 그 사건에서의 민중들의 해방운동의 차원이 주로 부각되고 있다면, 신학적 해석에서는 민중들의 고난이 중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두 평가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기독교운동세력이 보다 민중과 연대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단초로 작용한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통해 기독교사회운동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필자에 의하면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기독교인들의 성향과 그 이후 '신학의 상황화'는 투쟁일변도의 성격보다는 화해와 위로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80년대 민중교회의 등장과 이를 통한 기층민중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기독교운동의 흐름과도 어느 정도 맥이 닿아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학의 상황화'라는 개념은 필자가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신학의 상황화'가 구체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보다 분석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제목: 『한국민주화와 인권운동 : 鹽光會를 중심으로』

2. 저자: 문장식

3. 발행연도: 2001년

4. 쪽수: 233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쿰란출판사

7. 목차

머리말

제1부 : 염광회의 신학적 배경

- 1) 염광회의 사상적 기초
- 2) 국내와 신학사상의 동향
- 3) 한국 교회의 신학적 대립과 분열

제2부 : 염광회의 정치, 사회적 배경

- 1) 독립협회와 기독교
- 2) 신민회 운동과 기독교
- 3) 2.8독립선언과 기독교
- 4) 3.1운동과 기독교
- 5) 일제 강제 징용과 조선 노동자의 저항
- 6) 8.15해방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기독교인의 활동

- 7) 4.19 혁명과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몰락
- 8) 민주당 정권과 5.16 쿠데타
- 9) 박정희와 윤보선의 1차 대통령 선거전
- 10) 한일 비준 반대 투쟁 운동과 6.3 사태
- 11) 억울한 여덟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혁당 사건
- 12) 윤보선의 신한당 창당 및 민중당과 합당

제 3부 엽광희의 창립 발기 및 총회

- 1) 창립 발기
- 2) 창립 총회

제 4부 엽광희의 투쟁 일지

- 1) 백조회 창립에서부터 삼선 개헌 반대 투쟁까지
- 2)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대결
- 3) 10월 유신과 기독교 저항 운동
- 4) 박정희 암살과(10.26 사태)과 김재규 구명 운동
- 5)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 항쟁
- 6) 금연 정일형 박사와 엽광희
- 7) 김옥선 장로 엽광희 제 7대 회장 취임
- 8) 야권 투사 박철용과 필자의 관계
- 9) 엽광희 역대 조직 명단 및 호응 정치인과 후원 민주 인사

부록

8. 연구목적

일제말부터 군사정권 말기까지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박정희 정권과 싸웠던 엽광희 회원들과 엽광희 운동을 호응하고 지지해 준 야당 정치인 및 재야 인사들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자 한 것이라 한다. 또한 필자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두고 논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여 항쟁했던 반독재 민주화운동 진영의 기록을 남겨 후대에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9. 연구내용

염광회는 1967년 2월 16일 창립된 기독교 사회 운동 단체이다. 이 단체를 거쳐간 사람들로써 윤보선, 정일형, 전성천 송원영, 김준섭, 장준하, 백낙준, 함석헌, 김재준, 김상돈, 강신명, 강원용, 김희율, 조영제, 한기도, 윤반웅, 김옥선, 민승, 문장식 등이 있었다고 한다. 기독교의 저항운동은 1960년대 중반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격동기를 체험하면서 확산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기구에서의 사회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정의운동이 1970년대 이후 가속화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염광회를 중심으로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염광회 사상의 근본을 구한말의 독립협회운동과 신민회운동, 나아가 2.8독립 선언에서 3.1운동에 이르는 시기에 활발하였던 기독교 사회운동에서 찾고 있다.

사적인 배경이 기독교 민족운동이라면 사상적 영향으로는 산상보훈의 말씀과 1960, 70년대 변화와 동반하여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신학적 변화 즉, 복음주의 정통신학 일변도에서 토착화 신학이라든지 세속화 신학, 정치 신학, 하나님의 선교 평신도 신학이 있으며 이것이 1970년대 민중 신학의 터전이 되었다고 한다. 민중신학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주요 사회단체로서 염광회의 설립과 활동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염광회에 관한 1차 자료는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하여 자료가 소실되어 필자 개인이 보관해 온 자료나 신문 기사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10. 연구의의

염광회 구성원들은 60,7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주요 인물들로서 염광회 활동에 관한 이해는 기독교 운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1960년대 기독교 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은 주로 빈민선교운동, 노동운동 등에서 태동한 것을 이해하는데 염광회와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그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그 의의를 더욱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제목: 『한국사회 발전과 민주화운동』

2. 저자: 변형운 외

3. 발행연도: 1986년

4. 쪽수: 235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7. 목차

제 1부 한국 사회 발전의 성격

제 2부 민주화와 사회 운동

1. 언론 자유는 민주화의 첩경
2. 불가침의 인권, 침범되는 인권
3. 시민의 자유는 법의 침묵에서
4. 언론 자유는 긴급한 실용적 가치
5. 말길이 닫히면 나라가 망한다.
6. 질식 상태의 한국 언론
7. 언론 기본법은 명백한 위헌
8. 교회는 모두들 부추겨 일어나야 한다.

제 3부 민주화와 기독교운동

1. 기독교 입장에서 본 사회 선교 운동 : 이문영
2. 민주화와 한국 교회의 역할 : 조승혁

8. 연구목적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 구조의 변화로서의 공업화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 민주 정치 사회 복지 전통 문화 민중 운동 등의 제 요인들을 충족시키는 민주화의 과제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5.16 이후 한국의 경제 개발은 경제적 기능의 확대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 발전을 후퇴시켜 놓았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규정하고 있다. 1970년대 들어 정권 안보라는 차원에서 국민적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따라 사회 운동을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탄압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1970년대 10월 유신은 민권, 민생 문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이 책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전제적 발전이 아닌 모두가 발전의 주체라는 관점 하에 자주적, 자율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사회 발전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당위성을 밝히려 하였다. 기독교계의 민주화운동이 그 같은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행동한 것이라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9. 연구내용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 전략에 따른 경제적 현실과 민중의 삶을 분석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운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경제 개발 정책을 서술하고 있으며 농촌 정책(농민사회 개발의 성격과 방향), 민중의 변화된 삶의 조건(경제 발전과 민중의 삶의 현실), 산업 구조 고도화와 서비스산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 사회 발전의 주체로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기독교 운동의 조건과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민중의 사회참여를 일깨워 이들에 의한 자주적, 적극적 사회발전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간층이론'을 소개하면서 사회적인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계층이 사회적인 의식에 아직 눈뜨지 못한 민중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적 발전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 인권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기독교가 주도한 각종운동을 그 예로 들고 있다.

10. 연구의의

연구자들의 전문적인 작업으로서 당시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시선을 살펴볼 수 있다. 기독교계가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것은 사실로서 인정되며 당시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도 의미 있다. 그러나 '자주적 발전'을 기독교계가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운동의 주체가 다소 지식인층에 국한된 점은 한국 기독교민주화운동이 가지는 시대적인 특징으로서 돌아보아야 할 점이라고 파악된다. 민주화운동이 '사회적 진보'를 고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면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운동주체의 편협성, 근대화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1. 제목: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50년사』

2. 저자: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50주년 기념사업회

3. 발행연도: 1998년

4. 쪽수: 640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다락원

7. 목차

1부 해방 후 대한기독교학생회 전국연합회(KSCF) 형성

1장. 서론

2장. 8.15해방 후 한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며(1945-50)

2부. 1950년대 KSCF의 분열과 통합의 역사(1950-59)

1장. 한국전쟁 시기의 기독교학생운동

2장. KSCF의 분열과 재통합 그리고 한국학생회 기독교운동협의회(KSCC)의 결성

3부. 960년대 한국기독교학생운동의 통합 모색과 실천

1장. 4.19 학생혁명의 충격과 기독교학생운동의 정착(1960-65)

2장. 한국을 새롭게 뭉친 에큐메니칼 기독교학생운동 (1966-69)

4부. 1970년대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KSCF) 중심의 학생운동

1장. '가서 보고 행동하는' 한국학생사회개발단 운동 (1970-72)

2장. 유신 이후 기독교 학생들의 정치 참여 운동 강화와 조직 개편(1973-75)

3장. 학생총회 중단 이후 유신 정권의 탄압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1976-79)

5부. 1980년대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의 민주화 투쟁, 그리고 갈등과 분열

1장.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더불어 시작된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KSCF)의 민주화 투쟁 과 내적 갈등(1980-83)

2장. 학원 자유화 조치 이후 가속화되는 민주화 투쟁 한 가운데 있는 KSCF

3장. 1987년 이후 KSCF의 대중운동 시도와 분열(1987-89)

6부. 1990년 기독교학생운동의 위기와 새로운 모색

1장. 불신과 반목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기독교학생운동 (1990-95)

2장. 미래를 향한 도전(1996년-98년)

3장. 21세기 기독교학생운동의 꿈과 비전을 찾아서

8. 연구 목적

일제 시대 기독교학생운동은 정리되어 있는 편이지만 해방 이후의 기독교 학생운동에 관한 연구나 자료 정리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방 후 50년 기독교 학생운동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9. 연구 내용

위의 목차에서 본 바와 같이 해방 후 기독교학생운동의 역사를 연도별로 꼼꼼히 정리하였다. 기독교학생운동은 70년대 전체 운동 진영과 함께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글은 정세 개괄 기독교학생운동 활동 평가의 순서로 전개되며 70년대는 운동의 수동성과 간헐성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명확한 역사의식과 지향성에 근거하여 주체적으로 상황을 타개할 역량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책에는 비교적 최근의 일인 199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위기 상황과 노선 투쟁의 내용도 빠짐없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집필자들이 간행사에 밝힌 것과 같이 전체기독교학생운동에 관한 역사서라기보다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에 국한되어 서술되었다.

10. 연구 의의

기독교 학생운동의 전체 흐름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으며 1990년대의 논쟁까지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단체사가 개략적이기 쉽지만 이 책은 객관적인 서술 자세와 자세함이라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1. 제목: 「한국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 1945~1960」

2. 저자: 강인철

3. 발행연도: 1994년

4. 쪽수: 320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서울대학교

7.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의식과 연구주제
2. 기존연구의 검토
3. 이론적 배경
4. 분석틀의 구성과 연구방법

제2장 세계종교질서의 재편과 미국교회의 영향

1. 국제종교질서와 미국 개신교교회
2. 미국교회의 한국선교와 선교사들의 특성
3. 전후 국제종교질서의 변화와 미국교회의 선교정책
4. 해방 후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의 관계

제3장 해방 당시 한국 개신교교회를 특징짓는 역사적 조건들

1. 이데올로기 · 권력구조 · 신자집단의 사회적 구성
2. 종교적 시장상황의 구조
3. 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

제4장 개신교교회와 국가

1. 국가의 성격 및 국가-교회관계의 구조
2. 고위관료 및 정치인과의 교류 및 통합
3. 개신교신자의 국가기구 내 분포
4. 국가의 종교정책과 특혜 제공

제5장 개신교교회와 사회

1. 세속화의 문제
2. 개신교교회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
3. 사회갈등과 개신교교회 : 참여의 방법과 성격
4. 개신교교회의 사회적 공신력 : 점진적 실추

제6장 종교적 시장상황의 특징

1. 해방 후 종교적 시장상황의 재편
2. 개신교 교파간 경쟁 및 연합
3. 개신교와 타종교간의 경쟁 및 연합

제7장 교회 내부구조의 특징

1. 개신교부문의 이데올로기지형 : 정치화와 친미보수반공적 지형의 고착화
2. 종교권력 및 조직구조의 갈등적 재편 : 교회재건과 분열, 개혁세력의 성장
3. 종교지도자 및 평신도의 사회적 성격 : 신자구성의 상향적 재편과 잠재적 분화

제8장 요약과 결론

8. 연구목적

이 연구는 미군정과 제1공화국시기에 한국 개신교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추출하고 변수들의 상대적 비중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세계종교질서 내에서 주변부의 위치를 갖는 피선교지로서, 취약하고 저발전된 시민사회 그리고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 아래 존재하는 교회로서, 한국 기독교 교회들의 정치사회적 태도와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교국가의 교회와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한국개신교의 정치적 태도 변화를 정치적 시각과 세계체제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에서는 1945~1960년 한국 개신교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서 다음의 여섯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는 방식을 각각 고찰했다.

필자는 첫 번째로 선교국가의 교회 및 그 파견자들의 지원과 통제에 주목하였다. 이에 의하면 20세기 초부터 국제 기독교질서의 헤게모니세력으로 부상한 미국의 개신교회는 선교활동의 세계적 조직화와 조정·통제구조의 중심에 확고하게 위치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미국 개신교회들은 한국에 선교부를 다시 개설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근본주의적인 성격의 교파들이었다. 이들 교파의 선교사들은 한국전쟁 이후 교회와 기관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즉 한국 개신교의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서 피선교지라는 국제적 기독교질서에서 차지하는 주변부적 위치로 인한 종속성을 들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해방 당시 한국 기독교를 특징짓는 역사적 조건으로서, 1930년대 말부터 1945년까지 교회의 역사적 전통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한국 개신교들이 드러냈던 정치사회적 존재양식과 내적구조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해방 직후 한국 개신교의 행동방향과 범위를 제약하는 구조적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해방 이전에 한국 개신교의 특징은 '국가 종속화' 또는 '총체적 어용화'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민족운동진영에서 이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방 후 한국 개신교가 친일잔재의 청산에서 불철저하고 정치사회적 지향에서 민족주의세력과 상이한 양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높였다.

셋째로는 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국가의 권위주의와 개입주의, 그에 따른 사회의 위축, 국가의 낮은 정당성 수준, 국가의 대외적 종속성들이 중요한 현상으로 부

각되었다. 이어 넷째로 개신교의 사회적 위치 및 사회갈등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해방 후 개신교의 사회적 위치는 다른 사회부문과의 제도적 연결망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교육 의료분야 등 개신교가 밀접한 제도적 연계를 구축한 분야는 한국사회에서 근대화를 주도한 부문들이었다. 따라서 개신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개신교의 사회적 공신력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하락하였고 419 이후에는 사회적 영향력과 공신력이 동시에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다섯째로는 타종교·교파들과의 경쟁 및 연합관계 등 종교적 시장상황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종교적 시장상황은 국가의 빈번하고도 강도 높은 개입에 의해 자주 교란·재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전략과 자금 등 선교국 교회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에 의해서도 정상적 운영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 경쟁은 정치적 갈등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각 종교는 정치적지지 세력에 차이를 보였고 종교간 경쟁은 한층 격렬한 양상을 띠었다. 그리고 이 시기 민족주의 종파의 再興과 내부분화,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의 유입, 개신교 교파의 분열, 한국전쟁 후 신종교운동의 대두 등을 거치면서 종교적 시장상황은 유동성과 복합성이 한층 현저해졌다. 여섯째로 교회의 내부구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기 변화를 “총체적인 정치화 속에서 진행된 친미보수반공적 종교지형의 형성과 고착화”로 요약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연구에서는 교회의 정치적 태도가 미국교회에서 파견한 선교사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그 성격이 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수적·근본주의적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선교사들의 영향과 이승만정권의 노골적인 친기독교정책으로 한국에서 개신교세력은 소수였지만, 친미보수반공체제의 핵심세력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이러한 미국의 힘과 국가권력의 노골적인 종교시장 개입과 간섭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이 강조하는 교회 내적 요인과 함께 세계종교로부터의 종속성, 선교사들의 영향력 등을 강조하는 외적 요인을 더하는 종합적인 분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강조점이 외적 변수로 치우쳐 교회 내부 구조의 특징과 변화에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1. 제목: 「70년대 이후 진보적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고찰」

2. 저자: 서영섭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10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감리교신학대학

7. 목차

I. 서론

II.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적 배경

III. 70~80년대의 사회적 배경과 그 인식의 변화

1절 유신체제 하의 사회적 배경과 그 인식의 변화

2절 광주민중항쟁 이후의 사회적 배경과 그 인식의 변화

IV.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의 신학적 배경

1절 하나님의 선교신학

2절 토착화신학

3절 민중신학

4절 여성신학

V. 1970년대 이후의 기독교 사회운동의 전개과정

1절 70년대의 기독교 사회운동의 전개과정

2절 8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전개과정

VI. 평가

8. 연구목적

기독교사회운동을 유신체제 하의 운동, 광주민중항쟁 이후의 기독교운동으로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서술한 논문이다. 기독교사회운동의 기원을 추적하고 특히 70년대 기독교사회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면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9. 연구내용

2장에서는 기독교 사회운동을 일제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단초를 찾고 있으며, 3장에서 70년대와 80년대의 사회적 배경을 정리하고 있다. 기독교사회운동이 본격화된 계기

로 1972년도의 7.4공동성명을 들고 10월유신 등 독재정권의 등장이 民衆의 삶의 질을 떨어트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이 같은 사회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신학적 움직임을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1952년도 독일 국제선교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기독교 선교의 개념이 역사적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견해 즉, 靈的이고 宗教的인 구원을 뛰어넘어 사회적 현실의 '해방'을 추구하는 선교개념이 등장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르트로 대표되는 정통주의 神學을 흡수하면서 1960년대부터 국내에서 土着化神學이 등장했음을 지적하고 70년대에 들어와 토착화 신학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어 聖俗을 구분짓는 宗教神學과 民衆神學으로 분립되었다고 보았다. 민중신학에 대해서는 그 논리가 「하나님의 선교」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기독교계가 관련되어 있었던 사회운동을 나열하였으며 종교적 구원만을 강조하던 產業宣敎에서 근로조건, 환경을 중시하는 都市產業宣敎運動으로 변화된 점을 지적하고 노동조합 조직에 이 같은 운동이 일정정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앞으로 노동자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복지와 문화활동을 도시산업선교활동의 향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5장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70년대 이후의 사회부정이 '민족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한 뒤 통일운동이 기독교 사회운동의 중추라고 전제하였다. 맺음말에서 지금까지의 기독교운동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론적 무기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무장하고 전국적인 조직망까지 확충하여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1. 제목: 「韓國基督教 進歩勢力의 現實參與運動에 관한 研究 -維新體制期間 反體制運動을 중심으로-」

2. 저자: 원성훈

3. 발행연도: 1994년

4. 쪽수: 83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경희대학교

7.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維新體制와 基督教의 葛藤關係

제1절 유신체제 이전 정치권력과 기독교

제2절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

제3절 유신체제에 대한 기독교진보세력의 인식

제4절 정치적 민주화투쟁과 민중운동

제5절 유신체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내부의 분열

제3장 現實參與運動의 基督教 內部 要因

제1절 기독교 현실참여운동의 신학적 근거

제2절 현실참여와 교파분열

제3절 교세확장과 선교방식

제4절 소결론

제4장 韓國基督教 現實參與運動의 性格

제1절 기독교 진보세력의 현실참여명분

제2절 정치적 민주화운동의 성격

제3절 민중투쟁적 성격

제4절 정치사회적 성격

제5절 소결론

제5장 맺음말

8. 연구목적

유신체제기간 기독교 진보세력이 정치·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 기독교 현실참여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유신체제기간에 한국 기독교와 정치권력의 갈등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우선 기독교와 정치권력의 갈등에 대해서는 첫째, 유신체제 이전에 정치권력과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의 현실참여가 존재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기독교는 유신체제 이전부터 정치현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

며, 이러한 정치현실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지속적인 관심은 제3공화국 말기 정치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나아가 유신체제기간 한국 기독교가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이 되었다. 둘째, 한국 기독교가 사회변혁에 대한 종교적 관심을 일으키게 된 정치사회적 현실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치권력의 집중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통제 등은 기독교세력이 정치현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기독교 현실참여론자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기독교 진보세력은 유신체제를 기독교가 지향하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결여한 체제이고 독재권력을 추구하는 강압적 체제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들은 비민주적인 유신체제가 민중을 억압하고 사회체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반민주적 체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진보세력의 인식은 유신체제가 아닌 새로운 체제의 수립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였다. 기독교 진보세력이 유신체제기간에 추구하였던 정치체제는 국민의 참정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와 유사한 것이었다. 즉 기독교 진보세력은 유신체제를 반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로 인식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과 민중의 권리확보라는 측면에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넷째, 양자간의 갈등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어떤 측면에서 양세력이 대립하였는가를 검토하였는데, 유신체제기간 기독교 진보세력의 반체제운동은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에 집중되었다. 다섯째, 유신체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분열이 어떠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고찰하였는데 이들의 분열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기독교 내부의 요인이 현실참여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독교 현실참여운동의 신학적 근거, 현실참여와 교파분열, 교세확장에서 나타난 특징과 선교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기독교 내부의 주요 요인으로 위의 세 가지를 설정한 이유는 이들 요소가 신학적 입장, 현실에 대한 인식, 정권과의 관계, 선교방식, 지역적 성격 등에서 기독교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변수들은 한국 기독교의 내재적인 문제가 유신체제기간 기독교 진보세력이 반체제운동으로 전환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신학적 입장에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주장한 이들은 교파분열에서 진보적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교세확장 방식도 사회구원과 민중운동부문의 단체를 통한 사회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들은 기독교 진보세력으로서 유신체제에 대해 비판·저항하

였다. 반면에 신학적 입장에서 보수주의를 주장한 이들은 보수연합기관을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교세확장 방식도 개인구원과 개교회 중심, 대규모 군중집회 등을 사용하였으며 유신체제의 국가안보와 반공, 근대화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유신체제기간 기독교의 현실참여운동은 반체제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의 양부문에서 전개되었다. 반체제 민주화운동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실질적 참여와 다원적 의사가 존재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수립을 지향한 것이었다. 이들이 주장한 체제는 1980년대 재야에서 논의되었던 급진적이고 사회변혁적인 체제는 아니었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또한 기독교 진보세력은 민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구조의 총체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중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기독교정신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에 나타난 정치경제학적 이론의 도입과 변혁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수용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진보세력의 민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1980년대의 활발한 민중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0. 연구의의

이 연구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협조와 갈등이라는 양면적 현상을 나타내며, 국가영역과 종교영역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유동적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양자의 상호갈등적 측면을 유신체제기간 기독교 진보세력의 반체제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갈등론적 관점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양자간의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종교의 혁명적 요소를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1. 제목: 「韓國宗教에 있어서 體制抵抗的 政治運動과 그에 參與한 宗教指導者들의 特性에 대한 研究」

2. 저자: 이희길

3. 발행연도: 1996년

4. 쪽수: 90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7. 목차

I. 서론

II. 설명을 위한 이론적 자원

1. 선행연구 검토
2. 종교지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요인
3. 분석틀 구성과 가설 설정

III. 연구 방법

IV.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종교영역의 체제저항적 정치운동(1972-1987)

1.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 : 종교의 체제저항 운동 발생의 구조적 조건
2. 종교영역의 체제저항적 정치운동의 등장 및 진행 과정

V. 체제저항적 정치운동에 참여한 종교지도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

1. 종교지도자들이 처한 종교집단별 종교적 요인에서의 차이
2. 종교적 요인의 차이에 따른 종교집단별 종교지도자들의 정치적 태도
3. 저항적 정치운동에 참여한 종교지도자들의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요인에 대한 분석

VI. 분석결과의 요약 및 결론

8. 연구목적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에 걸친 종교계의 체제저항적 정치운동의 등장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저항적 정치운동에 참가한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저항적인 정치태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기인한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사회학적 환경과 종교조직체, 교리적 요인과 종교지도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요인을 중심으로 이들 요인이 종교지도자들의 체제저항적 정치운동의 대두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9. 연구내용

먼저 정치사회적 환경으로는 억압적 정치상황으로 저항세력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제약됨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식인이나 종교인에 대한 정치화의 요구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저항운동에서 기독교와 불교계 참여

정도의 차이는 종교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기독교가 제3공화국 이후 종교적 특혜를 상실하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종교의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교 분리가 분명하게 진행되었고, 1960년대 이후 사회선교를 중시하는 진보적 교리가 강화됨으로써 정치권력과 갈등적 관계로 접어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불교는 정치권력에 예속적인 경향을 띠면서 박정희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고, 교리적으로 별다른 변화 없이 체제옹호적인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기독교 내에서 개신교는 교파별 종교지도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비교적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교파별 차이와 해외종교조직으로부터의 지원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연구의의

이 연구는 종교지도자들의 저항운동을 종교 집단별로 분석하였는데, 종교지도자들의 저항적 정치운동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항적 정치운동에 참여한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요인에 주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 시론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종교지도자 개인의 사회적 배경이나 경험적 요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1. 제목: 「韓國民主化運動에서 教會의 政治的 役割에 對한 研究- 1970년대를 중심으로-」

2. 저자: 이호대

3. 발행연도: 1999년

4. 쪽수: 78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서강대학교

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와 종교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종교와 사회변화

제2절 종교와 정치, 기독교와 국가

제3절 기독교와 민주주의

제3장 한국에서 국가와 교회 : 역사적 고찰(1910-1970)

제1절 기독교의 전래에서 1910년까지

제2절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제3절 1945년부터 1960년까지(융합의 시기)

제4절 1960년대(각성의 시기)

제4장 기독교의 조직적 자율성

제1절 세속화교리

제2절 민중신학

제5장 기독교 유기적 지식인의 측면

제1절 유기적 지식인

제2절 산업선교회

제6장 개연성 구조의 측면

제1절 70년대의 정치사회적 특성

제2절 사회의 개연성구조

제7장 70년대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

제1절 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

제2절 민청학련사건

제3절 3.1민주구국선언사건

제4절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제5절 민중교회

제8장 결론

8. 연구목적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나타난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논문이다. 개신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후 80년대까지의 국가와 기독교 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70년대 이후의 국가, 교회 관계를 일종의 ‘창조적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9. 연구내용

60년대의 이전의 교회는 보수일변의 체제 유지 기능만을 담당하였으나 70년대 이후

국가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변화를 겪었는데, 대다수의 교회가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소위 ‘예외적 일탈사례’ 즉 소수의 교회가 체제저항을 선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소수이나마 교회가 사회변혁운동에 돌입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유기적 지식인’의 존재와 세속화이론에 근거한 신학적 발전을 본문에서는 들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유기적 지식인’이란 ‘현상을 문제제하는 세계관의 계발을 돕거나 사회운동 참여자들을 교육하는 지식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기독교교수협의회, 산업선교회 등이 그 같은 역할을 맡았다. ‘유기적 지식인’들은 ‘인권’을 쟁취목적으로 정하고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의식화작업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인권’의식이 국가와 교회가 대립하게 된 계기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유기적 지식인’들의 존재는 비록 수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소수세력에 불과하였지만 그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여 교회의 대표성을 떠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기적 지식인’에 의한 ‘의식화’가 가능하였던 시대적 배경으로 6장에서 국가의 폭력과 억압이라는 질곡 하에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갈망하는 ‘개연성구조’를 들고 있다. ‘개연성구조’란 빌링스가 제창한 이론으로서 새로운 세계관을 지지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운동참여자들의 이해가 만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정리하고 있다. ‘개연성구조’가 정착되면서 새로운 세계관으로서 ‘인권’을 내세우는 교회가 지배이념과는 분리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창조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창조적 긴장’ 관계는 국가와 교회의 대립 와중에서 기독교 신앙이 ‘지향해야 할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서 국가와의 대립과정에서 기존의 세계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면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 대립적으로만 본 기존의 시각과 필자의 시각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필자는 그 개념과 의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가하지 않았다.

7장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교회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측면을 조명하고 있는데, 1973년에 시국관련 전단을 배포하다가 권호경, 박형규 등 현역 목사가 구속된 ‘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이 유신정권에 대해 항거한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초교파적으로 기독교계가 대응하였음을 긍정적으로 서술하였다.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기독교 민주화운동세력과 일반학생들이 최초로 함께 시위운동을 함으로써 이후 기독교 민주화운동 세력이 전체 민주화운동 흐름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976년에 발생한 ‘3.1민주구국선

언 사건'에 대해 평가를 내리면서 필자는 선언서의 내용 중 “한일협정으로 시작된 이른바 경제입국론이 유신독재체제 성립의 원인이었다”라고 지적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결국 민주화운동이 경제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회민주화운동이 기여한 역할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인다.

10. 연구의의

필자가 제시한 살펴본 기독교민주화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유기적 지식인'들이 예언자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필자는 기독교계의 각성과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조직체로서 민중교회를 언급하고 있으나 최근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90년 이후 민중교회의 수효가 줄어들고 있으며 더불어 민중교회의 설교도 개인의 '영적 문제'로 중심이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는 민중교회가 보다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사회적 기층성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사회운동의 최근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제목: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기독교」, 『한국사회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2. 저자: 김병서

3. 발행연도: 2000년

4. 쪽수: 23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7. 목차

1. 한국민주화운동의사회사적 배경
2. 1970년대 초 기독교의 인권운동
3. 유신체제 하에서의 기독교 민주화운동
4.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5. 결론

8. 연구목적

필자는 한국에 전래된 이래 기독교가 민족정신을 개척한다든지 조선후기이래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던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해방적 전통을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1970년대 이래의 민주화운동도 이 같은 전통을 잇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을 사회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이후 해방적인 전통을 이어가면서 정보기술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기독교회의 새로운 사회운동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한다고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9. 연구내용

필자는 한국교회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기독교정신의 공통신념인 양심과 개인의 존엄, 자유에 대한 믿음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적인 배경으로는 급격한 경제성장, 공업화 과정에서 대두한 관주도형의 명령경제, 빈부격차 등을 들고 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은 당시 심각하였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필자는 정리하고 있다. 특히 1970년 11월 13일에 있었던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해방적 전통’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도록 유도한 사건이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노동운동은 김재준 목사가 1969년 3선개헌반대운동을 벌이면서 사회참여를 본격적으로 기획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필자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3선개헌반대운동이 노동운동과 같이 사회참여운동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고 기독교노동운동은 사실상 3선개헌반대운동의 확대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기독교의 노동운동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도시산업선교활동이다. 이 글에서는 1971년 9월 가톨릭노동운동단체들과 기독교산업선교회, 크리스찬아카데미, YWCA연합회, YMCA연맹, KSCF 등이 한국산업문제협의회를 조직하고 “보수성에 근거를 둔 사회복지사업이나 봉사와는 다른 사회개혁을 위한” 도시선교를 표방하면서 도시산업선교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하여 1971년 기독교장로회 56회 총회에서 ‘사회선언지침’이 채택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74년 부활절연합예배 장소에서 박형규 등이 민주화에 대한 성명서를 배부하여 문제가 된 사건은 이 도시산업선교활동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으며 이 활동이 민주화운동에 기폭제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1972년 유신체제 수립 후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하여 인권운동 지도자

들을 구속,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지학순 등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 당했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필자는 유신체제기의 민주화운동이 거센 탄압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1973년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인권선언’에서 억눌린 자에 대한 해방과 인권확립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갔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신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1974년 김재준, 함석헌, 강신명, 강원룡, 김관석, 조향록, 계훈제 등에 의하여 조직된 ‘민주회복국민회의’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1980년대에 이르면 KNCC인권위원회, KSCF, EYC, YMCA, YWCA, 기독교수협의회 등이 중심을 이룬 민주화운동은 성숙단계에 접어들게 된다고 이 글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KSCF와 EYC의 활동은 교회청년들을 민주화운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평가하였다. EYC는 1986년 1월 KNCC가입 6개교단 청년회의 연합체로서 결성된 것이다. EYC는 1987년 8월에 “군부통치 끝장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를 통한 민주화를 지향하게 된다. 필자는 ‘선거를 통한 민주혁명’을 80년대 민주화운동이 진일보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에 적응하여 나타난 운동방향이었다고 평가하고 70년대에 비하여 성숙한 면모를 지녔다고 보았다.

80년대에는 정치운동과 함께 도시산업선교활동도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평가이다. 도시산업선교활동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운동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와 같이 70년대, 80년대의 운동을 정리한 후 필자는 사회변화와 함께 새로운 운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운동을 위해서는 교회 내의 보수와 진보가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위주의와 차별을 배격하고 생명문화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회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사회적 소수세력을 용인하는 관대함을 지녀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운동에 대한 인식은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정치, 산업, 경제 제영역의 갈등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것이 이 글의 필자가 내세우는 주장이다.

10. 연구의의

민주화운동의 계승방안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근의 환경운동과 기타 각종사회운동이 민주화운동과 어떠한 연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민주화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사회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다.

1. 제목: 「1970년대의 한국 기독교운동」. 『기독교사상』 84년 11월

2. 저자: 김상근

3. 발행연도: 1984년

4. 쪽수: 16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1. 서론
2. 70년의 정치적 상황과 기독교운동
3. 70년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기독교운동
4. 기독교학생 · 청년운동
5. 맺는말

8. 연구목적

70년대의 기독교민주화운동을 정리하겠다는 의도 하에 70년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주요사항들을 열거하며 소개한 글이다. 주로 기독교계의 일부 인사들이 민주화운동에 나서게 된 원인과 조직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작성되었는데 70년대 개발독재로 인한 빈민의 생활상 궁핍을 기독교민주화운동의 원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9. 연구내용

먼저 '70년의 정치적 상황과 기독교운동'이라는 제목의 장에서는 주로 유신개헌 반대투쟁에 기독교계가 참여한 활동을 다루고 있다. 1972년도의 유신개헌 직후부터 기독교계의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 보고 1973년 4월 22일 부활절연합예배 당시 박형규 등 수도권도시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민주회복을 위한 시위가 시작되었던 점을 주목하였다. 빈민선교에 집중한 수도권도시선교회가 기독교계 유신반대운동의 전면에 서

게 되었던 원인으로 개발독재로 인해 빈민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져 ‘진정한 민주주의’ 만이 사회경제적 제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사실을 들고 있다. 이어서 197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유신헌법철폐를 위한 기도회’, 민청학련사건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기독교민주화운동세력의 활동에 반대한 보수적 기독교세력의 활동도 소개하였다.

‘70년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기독교운동’에서는 이른바 ‘개발독재’ 하에서 궁핍화되어간 노동자의 생활상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도시문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빈민지역에 대한 선교가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초기의 단순한 전도사업이 점차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의 변혁까지 염두에 두는 ‘도시산업선교’라는 이름의 활동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하였는데 ‘도시산업선교’의 내적 논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을 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독학생, 청년학생’ 부분에서는 기독학생단체 및 개교회의 청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처음으로 보수적 신앙과 기존 교단의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한 단체로는 한국기독교운동협의회(KSCC)를 들고 있다. ‘이원론적 속세관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초기 기독학생들의 움직임이 1968년 기독학생회총연맹(KSCF)로 통합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상적, 이론적 무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실제로 70년대의 학생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이었다고 보았다. 이는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공장, 광산, 부두노동조합에 들어가 산업화의 문제점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기독학생들이 현실문제에 눈을 뜨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KSCF로의 통합과 학생사회개발단운동으로 역량을 강화한 후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원민주화운동, 유신반대운동으로 운동이 확산되었다고 보고, 1976년 당시까지의 운동의 결실로 기독청년협의회(EYC)가 창립되어 기독교사회운동의 여러 세력을 통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맺음말에서는 70년대 기독교의 민주화운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오랫동안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채 존재하였던 기독교를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린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80년대의 기독교운동이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10. 연구의의

70년대 민주화운동을 기독교계가 주도한 원인으로 빈민생활상의 궁핍화와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을 통한 기독교 청년들의 체험을 들고 있는데 이는 주로 독재정권의 부패와

정치민주화를 갈망하는 기독교지도자들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여타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조직의 확대와 현장체험이 이후 80년대의 운동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기독교학생조직이 80년대 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천착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전체 민주화운동세력과 기독교세력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접목되어 가는가 하는 부분을 밝히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 제목: 「해방 후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4

2. 저자: 이상규

3. 발행연도: 1994년

4. 쪽수: 20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1. 해방 후 민족적 과제와 교회
2. 전제(前提) - 한국기독교와 친일청산의 좌절
3. 한국교회와 민주화운동
 - 1) 분단, 이승만정권하에서의 한국교회
 - 2) 박정희정권하에서의 성장지상주의(成長至上主義)와 민주화운동
 - 3) 전두환정권하에서의 민주화운동
 - 4) 반성과 평가
4. 미완의 과제- 한국교회와 통일운동

8. 연구목적

해방 이후 민주화, 통일, 친일세력 청산이 민족적 과제로 주어졌는데 1950년대를 거쳐 가면서 반민주 세력, 반통일 세력이 득세하여 분단상황을 고착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반민주세력은 친일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점은 기독교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해방 이후 민주화라는 숙제를

가지게 된 한국교회가 반민주세력의 결집과 친일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피고 이를 통해 기독교회의 존재양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하 글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9. 연구내용

35년간 일제 강점 하에 있었던 우리민족은 친일세력 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했고, 기독교회는 신사참배 등 배교적 행위와 일제의 기독교 통치 혹은 말살정책에 협력했던 친일적 종교지도자를 제거 혹은 자숙케 하는 방법으로 신앙정기를 바로잡음으로써 교회쇄신을 이룩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친일세력을 제거하는 데에 실패했고 이는 이후의 한국사회와 교회현실에 영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분단이라는 상황 하에서 정권은 반공을 정권안보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교회도 민족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희박했다.

정부수립 후 195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는 정치 현실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친일적 기독교 인사들이 지도적 위치에 있었고 이들은 항상 체제 순응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승만이 기독교인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윤리적 단순성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해방 이후 기독교지도자들이 교회 분열과 이로 인한 수습, 교회재산의 확보 등 교회내적인 문제에 정력을 소모하여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가 사회현실, 구체적으로 정치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는 1960년 4. 19 혁명이었다. 또 박정희 정권의 출현과 함께 한국교회는 하나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사회구조의 개혁 및 변혁을 앞세우는 새로운 신학운동이 나타나 정치 및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참여 문제와 토착화 논쟁은 이 시기의 한국교회의 사회의식과 신학의식의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신학적 경계선이 보다 구체화되어 감에 따라 정치권력에 대한 대응방식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 두 가지 신학적 성향은 그 이후의 한국교회를 이원화하는 구분선이 되었다.

1970년대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성장지상주의(成長至上主義) 이데올로기가 팽배하

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들어와 교회와 박정희 정권의 대립은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문제에서 발단하기 시작했다. 한일 외교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통일된 입장을 견지하였고 한일외교협상 반대운동은 한국교회의 대 사회 참여의 중요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회담비준 반대로부터 시작된 한국기독교의 사회참여는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시도가 있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1967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공개서한이 한국기독교학생회(KSCM)에 의해 발표되었고, 1969년 7월 3선개헌문제가 불거지자 김재준, 박형규, 함석헌 등이 '3선개헌 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이 보다 급진적인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소위 '10월유신'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기독교 운동권의 전체 성향은 반기독교적이었고, 어떤 경우 종교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기도 하였다. 이들 사이의 공통점이란 그 지향하는 바가 동일했다는 것뿐이었다. 이 동일한 목표 때문에 한국교회의 진보적 세력은 운동권 집단과 함께 했으나, 비기독교 운동권과의 연대 과정에서 종교인다운 삶을 천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은 소위 운동권의 이념 속에 매몰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때와 이후의 시기에서 민주화를 추구했던 한국교회와 그 인사들이 운동권 세력과 경계선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몇 가지 점을 반성한다면 1) 교회와 정치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대응방식이 기독교적이었는가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 2)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이 주로 정치체제나 사회구조와의 싸움에 집중한 결과 인간 내부의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과 동시에 1) 한국교회의 진보적 인사와 그 교회가 중심이 된 민주화운동이 인간과 인간의 삶의 현실(특히 정치적 현실)에 대한 교회적 관심과 책임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 2) 사회구조나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확립시켜 주었다는 점 즉, 사회구조나 제도는 위계체제적인 존재의 사슬로서 불변의 구조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0. 연구의의

기독교의 현실참여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기독교사회운동이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이에 대해 무관심하였던 교회를 일깨웠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기독교의 종교적 차원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글의 서두에서 밝힌 친일인사와 반민주세력 간의 연계관계를 해명하겠다는 문제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평면적인 서술에 그치고 결국 기독교 사회운동세력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데로 결론을 이끌었다는 한계가 있다.

1. 제목: 「민주화와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사회 발전과 민주화운동』

2. 저자: 조승혁

3. 발행연도: 1986년

4. 쪽수: 24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7. 목차

1장. 서언

1. 문제의 소재
2. 민주화와 교회선교적 의미
3. 사회변동과 책임사회이념

2장. 민주화와 한국교회운동 현황

1. 민주화와 한국교회운동현황
2. 유신체제의 대두와 민주화운동

3장. 1980년대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

1.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인권문제
2.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
3.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개헌운동
4.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민권, 민생문제
5.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외세배격운동
6.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언론자유운동
7.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통일문제
8.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평화운동

8. 연구목적

1986년에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에서 간행한 『한국사회발전과 민주화운동』에 수록된

글이다. 1960년 4·19의거의 발생과 더불어 교회가 권력과 밀착관계에 있었음을 반성하는 기운이 일어났고 이후 민주화라는 대명제에 교회가 적극 동참하였음을 밝힌 다음, 교회가 역사적 현실상황을 어떠한 근거에서 분석하고 대응했는가를 나름대로 정리하겠다는 목적 아래에서 작성한 것이다.

9. 본문내용

필자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60년대 공화당 정권에 의하여 공업화가 추진되면서부터이다. 도시로 산업인구가 유입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교세확장의 차원에서 전도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일선 교계지도자들에 의해 단순한 복음의 전도가 아닌 사회적 의미를 갖는 ‘산업선교’가 새로이 추진되었던 것이 그 시초이다.

60년대가 ‘산업선교’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한 때라고 한다면 70년대는 ‘산업선교’가 경제적, 정치적 현실과 맞부딪쳐 구체화된 시기였다. 1970년에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가 처음으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일이 발생했고, 1972년에는 ‘사회정의 구현과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기도회’가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에 의해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당시 교회가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도 국가의 일원으로 민족과 민중문제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글에서는 평가하였다. 그런데 필자에 의하면 이 같은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며 이미 1908년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사회신조’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세기 초는 미국에서 사회복음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던 시기인데 필자는 이를 개신교 사회참여의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이어서 기독교가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는 관념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압제 당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교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일깨워줘야 한다”라는 것이다. 한국교회도 이 같은 관념 하에서 해방 이전부터 사회적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고 전제하고 6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을 사건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그 의미와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이하 필자가 설명한 중요부분을 요약하도록 하겠다.

「민주화와 한국교회운동 현황」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친일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교권 장악에 역량을 소모하고 있었다. 때문에 자유당 정권이 등장했어도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4·19 의거는 교회로 하여금 반성과 참회 속에서 민중의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는 움직임을 이끌어냈고, 현실참여운동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였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공화당 정권이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개발에 나섰지만 재원이 없는 상태여서 한일외교정상화를 서두른 바 있었다. 이 때 한국교회는 처음으로 민족적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6월에 한일협정이 조인된 후에 교회는 구국기도회를 갖는 한편, 한국교회협의회가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한일협정 비준반대’를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이 개별교회의 성직자들에 의하여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고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일외교반대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교회의 비준반대운동에 불만을 가진 정부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각종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조사를 합법화하고 등록제를 시행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를 가하려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교계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으로 돌아갔지만 이후 교회와 정부가 대립하게 되는 시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일외교반대운동에서 정치적 참여를 경험한 교회는 1967년 6월 8일 시행된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확인하고 이에 저항한 6·8부정선거반대운동으로 사회적 참여활동을 이어갔다. 1969년에는 삼선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교회 내의 개혁파와 보수파가 직접적인 대립을 연출하였다. 당시 김준곤, 김장환, 조용기, 박형용 등 보수적 교회지도자들은 김재준 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고 있던 삼선개헌반대운동을 비판하고 ‘대통령과 영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보수적 입장은 대한기독교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에 나타나 있는데 이 단체는 이후 한국교회지도자협의회로 개칭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립하고 있다.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산업화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한국 사회에는 노동, 농민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조짐이 대두하고 있었다.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6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 농민, 빈민문제에 교회가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사회구조의 개혁’을 포함한 복음의 사회적 확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하에서 ‘도시산업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영적인 구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원’까지도 포괄하는 새로운 신학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1969년 10월에는 ‘도시산업선교’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사회발전과 노동문제’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서 “노동자들의 팔과 다리에 힘을 주어 경제발전의 주체가 되고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기수가 되자”라는 제안이 나왔다. 이 강연회에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교회가 보장할 것을 요지로 하는 ‘노동자선언문’이 발표되었다.

70년대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은 민주회복이란 정치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민주화운동이라는 면에서 더 큰 의의를 가진다. 즉 민주주의란 정치적 지도이념이 아니라 민중이 바라고 희망하는 존엄성과 정의와 자유를 얻고자 하는 활기차고 생동하는 희망의 과정임을 교회가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70년대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독교학생들의 역할이다. 71년 4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KSCF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학생들은 4월 10일 기독교운동사상 최초로 40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정치적 시위를 벌였다. 서울지역교회청년협의회(EYC)도 71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외에도 민주수호기독교청년협의회도 결성되어 기독교학생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71년 대통령 선거 직후의 기독교사회운동은 주로 부정부패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학순 등 천주교사제들에 의해 펼쳐진 부정부패추방운동은 한국교회가 비기독교 운동세력과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기도회와 강연회의 수준에 머물던 이전의 운동방식이 적극적인 시위와 캠페인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 출발점으로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부정부패추방운동이 시작된 즈음인 1971년은 전태일분신사건, 한영섬유노동자 김진수씨 살해사건, 신진자동차어용노조사건 등 노동관련 사회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때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기독교 운동세력 내에서는 박형규, 조승혁 등에 의하여 수도권선교위원회, 크리스천사회행동협의회 등 각종 산업선교단체와 그 협의체가 조직되어 본격적인 노동자, 빈민대책수립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72년 10월부터는 기독교운동이 유신반대운동으로 그 역량을 결집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도시산업선교단체들과 기독교학생들은 1973년 남산부활절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유신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인권운동과 민중운동 등 사회 각분야와 관계된 민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산부활절사건은 1973년 4월 22일 남산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부활절연합예배를 이용하여 박형규, 김동완, 권호경 등의 수도권선교위원회와 KSCF 등이 유신반대 유인물을 살포한 것으로 유신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첫발걸음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

유신반대운동에 대하여 독재정부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탄압으로 일관하였는데,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교회여론에 큰 충격을 주어 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4년 11월에 '신앙과 인권협의회'를 개최하고 '인권선언문'을 발표하여 독재정부의 여론탄압을 인권운동으로 맞서고자 하였다. 이 인권운동은 법률구조활동을 비롯하여 구속자 영치활동, 가족 돕기 활동을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그 결과 교회가 민주화운동의 본산으로 인정받는 수확을 거둬들였다.

1976년에 들어와 교회는 비기독교세력들과의 연대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발표된 '민주구국선언'이 이러한 연대를 모색하게 한 최초의 시도였다. 구속인사석방, 긴급조치해제, 언론자유보장, 사법부와 국회기능 회복을 요구한 이 선언에는 김대중, 윤보선 등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들이 동참하였으며 서남동, 안병무 등 민중신학을 제기한 신학자들도 참여하여 교회의 유신반대운동이 더욱 조직화하고 그 연대관계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76년은 기독교산업문제연구원이 발족되어 사회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사회문제인식을 시도하였던 해로도 기억된다. 종래의 비판 중심의 운동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보다 방향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 단체는 이후 기독교운동의 조직화와 사회정책 마련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80년대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

1980년대 한국교회 인권운동은 이전과 달리 교단별, 지역별로 인권운동의 확산을 위해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 이전에 비하여 고문에 대하여 관심을 보다 기울이기 시작하였다는 점, 재야학생운동권과 연계하여 광범위한 인권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민주화의 열기와 그 운동 전개에서 파생되는 각계의 인권문제를 교회가 수렴하여 그 대책을 수립한 것은 교회와 여타 운동세력과의 연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80년대에 들어와 교회가 보다 관심을 집중한 또 하나의 분야는 민권과 민생의 문제이다. 이미 70년대부터 산업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민생문제에 대한 조사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서서는 산업선교단체들이 민중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등 보다 현실과 밀착된 활동에 주력하였다. 즉 일선선교단체들의 활동가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확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선교단체 외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도 민생

문제해결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의 실현이 민생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점에서 일선 선교단체와는 다른 특색이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80년대 교회의 민주화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외세배격운동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민주화운동 탄압사건으로 교회는 미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여 전세계적인 패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미국의 세계패권에 대한 반감으로 국내에서도 반미감정이 나날이 확산되어가고 있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미입장을 표명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반미감정과 궤를 같이하여 조국의 미래를 외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등장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인식 하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도 새롭게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통일문제를 언급한 것은 1981년 6월에 있었던 한독교회협의회에서부터였다. 한국과 독일 교회의 협의회 형식으로 개최된 이 행사에서 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회협의회 내에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기독교교회협의회 하에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비록 정부의 방해로 처음의 시도는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지만, 85년에 이르러 同협의회에 통일문제협의회 설치로 통일문제연구기관의 설립이 현실화되었다. 이외에 각 선교단체들에서도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83년 1월에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통일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데, 동년 12월에 강만길, 이영희 교수가 이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0. 연구 의의

당시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시선을 살펴볼 수 있다. 기독교계가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것은 사실로서 인정되며 당시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도 의미 있다. 그러나 '자주적 발전'을 기독교계가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운동의 주체가 다소 지식인층에 국한된 점은 한국 기독교민주화운동이 가지는 시대적인 특징으로서 돌아보아야 할 점이라고 파악된다. 민주화운동이 '사회적 진보'를 고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면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운동주체의 편협성, 근대화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1. 제목: 「기독청년운동의 전개과정-70년대 이후 교청, 교단청년, EYC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역사 속의 기독교』

2. 저자: 한국기독청년협의회

3. 발행연도: 1985년

4. 쪽수: 34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 목차

제1기/기독청년운동의 태동과 민주화운동에의 참여(1971.3~1975.5)

1. 사회경제적 위기의 폭발과 기독청년의 각성

2. 유신체제의 등장과 기독청년운동의 전개

제2기/기독청년운동의 성숙: 민주화운동에의 진전과 민중지향(민중운동모색)

1. 긴급조치 9호와 기독청년운동의 교단정착

2. 격화되는 민주화운동과 기독청년운동의 성숙

제3기/격동하는 상황과 기독청년운동의 좌절과 모색(1979. 10. 26~1982년 말)

1. 격변하는 정치상황과 기독청년운동의 위기

2. 민족적 위기상황과 기독청년운동의 변화

8. 연구목적

기독교청년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 한계를 밝힘으로써 향후 기독교청년운동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된 글이다.

9. 연구내용

60년대 말 세계적인 격변과 국내적인 사회모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각 교회의 청년회, 대학생회가 중심이 된 서울지구교회청년협의회(CYC)가 1971년에 탄생하였다. 당시 기독교청년들은 교회가 사회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교회갱신, 사회정의 실현, 한국적 신학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기독교청년을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활동이 시작된 시기는 독재정권의 억압이 강화되는 한편 동아일보 언론자유선언,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이 가열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필자는 기독교청년운동의 추이를 1971년 CYC의 결성부터 1980년대까지 3시기로 나누어 설명하

었는데 이하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태동기 - 1971년 CYC의 결성 이후 73년 말까지의 시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중요한 사건 및 활동은 1971년 4월 10일 KSCF(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가톨릭학생연합회·YWCA 3개 단체 주최의 기독교학생연합대회에서 발생한 십자가대모사건, 1971년 4월 29일 CYC·KSCF·전국신학생연합회 연합으로 민주수호 기독교청년협의회가 결성된 사건, 1973년 남산부활절사건 등이다. 1972년 유신헌법의 등장으로 CYC는 일시 그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청년들의 활동도 개별교회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시기 동안 KSCF는 문화운동의 형식으로 각 교회청년회를 단위로 한 운동을 조직하였고, 한일관계를 이슈로 삼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 남산부활절사건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본격적인 유신반대운동으로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 2) 성숙기 - 1974년부터 1979년 10.26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긴급조치로 대표되는 정치적 억압이 강화된 때이다. 기독교청년들은 이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1975년 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를 결성하고 76년 2월에는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 77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의 창설로 대표되는 조직강화활동에 나섰다. 특히 기독교청년협의회(EYC)는 창립선언문에서 에큐메니칼운동에 주력할 것을 표명함으로써 연합과 사회정의실현에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에큐메니칼운동의 대두는 교회의 사회참여운동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라고 판단되며 이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3) 좌절과 모색기 - 10.26사태로 초래된 정치적 공백기 속에서 기독교청년들은 1979년 11월 5일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직선 등을 골자로 하는 '기독교청년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조직적 동원이 결여된 채 선배층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에만 머무른 한계로 인하여 지도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지도층이 적절히 시국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청년들은 학원 등 운동이 가열되고 있는 곳으로 흩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청년운동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면의 투쟁을 포기한 채 개량주의적 성향으로 고착된 신보수주의 경향, 기독교운동의 합법화 경향을 비판하고 기독교운동에 회의를 품은 기독교운동 포기론이 그것이다.

80년 9월에 들어와 조직재건에 들어간 기독교청년운동은 81년경부터 민중신학을 받아

들이면서 급속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당시 기독교청년들은 “80년대의 기독교청년운동은 심각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더 이상 기성권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도로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중에 기반을 두지 않는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좌절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구체적인 역사상황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민중신학을 바탕으로 민중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 이에 기반을 둔 운동의 확산을 주창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한편 80년대는 반미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국자본의 횡포에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한 때이기도 하다. 70년대와 달리 민족자본에 대한 인식도 대두하였으며 통일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된 특성을 지니고 보이고 있다.

1. 제목: 『기독교학생운동의 역사와 과제』, 『한국역사 속의 기독교』

2. 저자: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3. 발행연도: 1985년

4. 쪽수: 16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 목차

1. 머리말
2. 기독교학생운동의 역사
3. 80년대 기독교학생운동의 방향
4. 맺는말

8. 연구목적

70년대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학생들의 노력과 헌신이 80년대에 들어와 시련을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성숙한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전제한 후 성숙한 운동을 위해 요구되는 몇 가지 조건들을 과거 운동을 정리하면서 제시하고자 하기 위해 쓴 글이다. 필자가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으로 되어 있어 실제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9. 연구내용

머리말에 기독교학생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이유로 기독교학생운동의 반성을 통해 새로운 논리의 발전과 조직을 모색하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필자에 의하면 기독교학생운동은 ①연합운동을 통한 운동성 확보기(4.19~1974년) ②교회를 기본단위로 한 운동역량 축적기(1974년~1976년) ③학생운동으로서의 보편성을 강화하는 시기(1977년~1979년) ④내적역량 및 논리 강화기(1980년 이후)로 구분된다.

①시기는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시기로서 한국기독교학생회(KSCM), YMCA 및 YWCA의 대학부 등이 통합을 모색하면서 활동을 시작한 때이다. 1955년에 통합단체로서 성립된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KSCC)는 '기독교학생사회개발단'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사업, 구호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시기 기독교학생운동은 미국의 Saul Alinsky가 개발한 지역사회조직을 원용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KSCF(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를 중심으로 정치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운동은 연합운동 형태에 치중하여 기층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과학적인 인식도 부족하였다는 데에 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기독교학생사회개발단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진행에 치우쳐 민중의 현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연합활동을 통하여 내부의 동질성이 점차 확보되었고 이후 활동에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②시기는 1974년의 민청학련사건으로 KSCF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학생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검거되는 사태를 맞이하여 일시적으로 기독교학생운동의 지도력이 붕괴된 때이다. 기독교학생운동은 이 같은 시련을 맞이하여 개별 교회 단위로 청년, 학생회를 개발하면서 자기재생산을 진행하였다. 각 교회 청년대학부의 성장은 교회의 보수적 체제와 많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교회 내의 혁신적 분위기를 확대시켰고, EYC의 창립 등 교회청년운동을 정립하는 활동의 기반으로 역할 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앞 시기보다 현저히 소그룹 형태로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을 체계화해나갔다. 따라서 외면적으로 운동의 침체기라고 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운동역량이 축적되어 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③시기는 운동의 역량을 점차 학교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된 시기이다. 기독교학생운동은 이 시기에 들어와 한국의 사회적 제반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사회과학적 틀을 수용하였다. 농촌봉사활동, 도시활동 등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면서 민중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고 보다 체계화된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운동성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수적인 기독교학생대중과는 물론 중간적 입장 과도 분리되어 소수화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사회과학적 틀의 수용으로 종교성을 잃어 가는 면모를 보였다. 이는 80년대에 들어가 개별 교회 대학부에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④시기는 10.26이라는 급격한 정치변동과 함께 시작하였다. 10.26이라는 정치적 급변기를 맞이하여 기독교학생운동 내에서는 지도층을 중심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세라고 파악하는 낙관적 입장과 첨예한 정치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자는 입장으로 분리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학생운동은 분열적 양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학생운동의 연혁을 정리한 후 필자는 기독교학생운동의 과제로서 1) 학원선교의 기반을 확충할 것 2) 교회혁신을 도모할 것 3) 민중적 운동을 창출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10. 연구의의

80년대 전반기 기독교학생운동이 분열을 겪고, 운동논리의 부재에서 오는 혼란을 경험하면서 점차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는 과정을 잘 보이고 있는 글이라고 여겨진다. 필자가 기독교학생운동의 과제로 제시한 ‘민중적 운동의 창출’은 이후 민중신학의 본격적인 수용과 이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중심의 운동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70년대에 비하여 한 단계 성숙된 면모를 보였다. 70년대의 성과를 수용, 발전시켜 통일운동부문에 역량을 집결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초 초창기운동이 연합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층성이 약하였다고 지적한 부분은 70년대 운동의 한계를 직시하고 80년대 민중성의 강화를 과제로 삼았던 당시 운동세력의 현실인식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3)농민 · 노동 · 빈민운동

1. 제목: 『都市産業宣敎의 인식』

2. 저자: 조승혁

3. 발행연도: 1981년

4. 쪽수: 37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민중사

7. 목차

서론

1장. 도시산업선교의 발전과정과 그 인식

1절 각 교단별 선교활동의 간단한 역사

2절 연합적인 도시산업선교단체들의 선교활동

3절 도시산업선교의 현황

4절 도시산업선교 발전과정의 인식

5절 도시산업선교 유형의 인식

2장. 도시산업사회에서 교회선교행동에 관한 노동자, 목회자, 실무자의 이해

1절 실제조사의 과제

2절 도시화, 산업화과정에서 교회선교행동에 관한 노동자들의 이해

3절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교회선교활동에 관한 일반목회자들의 이해

4절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교회선교행동에 관한 실무자들의 이해

3장. 도시산업선교 신학의 인식

1절 성서적 이해와 선교개념의 변화

2절 도시산업선교 신학의 기본입장

3절 도시산업선교 신학의 인식

4절 선교실무자 또는 정관에 나타난 선교신학

4장. 도시산업선교 방법론의 인식

1절 선교방법론의 여러 가지 형태

2절 도시산업선교 방법론의 인식

5장. 도시산업선교의 전망

1절 도시산업선교의 공헌

2절 교회선교사적 의미

3절 도시산업선교의 전망

8. 연구목적

70년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사회참여활동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도시산업선교이다. 이 글은 도시산업선교를 통시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그 연원을 밝히고 도시산업선교가 지향한 활동을 개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쓰인 것이다. 도시산업선교에 대하여 70년대 당시부터 오해와 독재권력에 의한 탄압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역할과 의의가 정당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이며 도시산업선교의 역할을 올바르게 밝히는 것이 기독교사회운동의 연원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9. 연구내용

이하 본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도시산업선교는 도시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적 이해를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선교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일어난 것이다. 1957년에 시작된 도시산업선교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먼저 전통적인 보수 교회로부터 전도를 둘러싼 문제제기에 부딪쳤고, 다음으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서 생기는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도 발생하였다. 1970년대 독재정권의 강화는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독재정권은 도시산업선교를 마치 불순세력인양 호도하고 부당한 억압을 가하였다. 특히 1979년의 YH 사건은 도시산업선교를 반체제운동의 핵심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독재정권의 탄압은 더욱 강화되어갔다.

한국교회가 도시산업선교를 시작한 배경과 경위를 보면 급격한 산업화에 대한 선교적 응답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시산업선교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7년 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부 안에 산업전도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도시산업선교 활동을 공식화하면서부터였다. 감리교회도 1961년 9월에 동일방직,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노동자를 위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감리교회 산업전도의 시초

였다. 이처럼 각 교단이 산업선교에 나선 것은 각 교단 전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하여 교단의 의사에 따라 시작한 것이다. 이에 참여한 개개인이 열성적으로 산업선교에 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단이 인정하지 않으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성직자 중심으로 모든 구체적 사업이 기획되고 운영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본격적으로 도시산업선교에 나선 것은 1962년부터였다. 한 동안 언론에서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심지어 마르크스주의가 도시산업선교의 이념적 기반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소개된 것이 1970년대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순수한 목회적 열정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시산업선교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신학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고, 목회 자체에 뜻을 둔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도시산업선교를 시작한 대부분의 성직자는 신학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였다. 이들은 산업사회의 상황과 노동자들의 힘든 생활에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이는 예수교장로회가 1975년 발표한 「도시산업선교에 대하여」라는 문건에 잘 나타나있다. 이에서 장로회는 “경제발전과 빈부격차, 기계문명과 인간소외, 수많은 부조리 현상이 각계 각층에 만연하여 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도시산업선교가 복음선교는 물론이려니와 반공과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이 아니라 복음선교운동으로써...”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는 1950년대 후반부터 공업입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급격한 산업화를 지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화는 당시 교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었다. 교회는 산업화에 의한 사회적 요구에 무관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산업사회의 본질에 대하여 사회학 등 여러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종합하면 산업사회란 과학과 기술이 神을 무시하는 사회이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통용되는 사회이다. 사회가 더 이상 미덕이나 관습에 의하여 움직여지지 않고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인간소외와 권력구조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동이 나타났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도시산업선교의 목표이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교회의 사회인식은 세계교회와의 교류 속에서도 형성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교회는 갑자기 선교신학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2차 대전이 끝난 후 서구교회들이 전쟁에 대해 침묵했다는 인식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죄책

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교회는 종래의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참회하고, 사회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선교란 '재래적인 형태의 전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의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론으로서 도시산업선교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하나님의 선교'란 교회 울타리에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역사전체에 개입하는 복음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교, 교회라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1973년 12월 세계교회협의회는 방콕에서 '오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에서 선교의 내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재정의 하고 1) 인간의 삶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항거하는 것으로 선교가 시작된다는 점 2)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을 결속시키는 운동 안에서 구원사업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 인류와 다른 피조물을 나누어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신앙과 사회를 상치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의 원류가 된다는 이유로 배격하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문화의 혁신을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의무로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복음이 개인의 해방뿐만 아니라 '사회의 해방'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서 구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교회의 도시산업선교는 이 같은 세계교회의 선교적 흐름 위에 서있는 것이다.

도시산업선교는 초기에는 단순한 교회선교의 연장으로 교세확장을 위한 전도사업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5·16 이후 고도성장, 수출제일주의를 내세운 공업화가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교회선교단체들은 이를 국가적 위기라고 인식하였다. 선교단체들은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가 수량적인 성과보다는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서민층의 생활개선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일한 만큼의 보수를 정당하게 받는 사회가 조성될 때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도시산업선교의 주장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노동자현실문제 :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은 도시산업선교가 본격화될 즈음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교회는 이러한 노동조건 현실이 노동자 자신들의 권리의식이 결여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그들에게 직업의식, 소명의식을 부여하는 自主意識교육을 시행하였다. 여가선용, 교육, 취미활동, 클럽활동을 장려하였고 고된 작업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복음으로 위로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가난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신용조합과 소비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 2) 한국노동운동 : 196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은 산별조직이라는 조직의 이점과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무시한 지도자 중심의 운동을 펼침으로써 결속된 힘에 의한 민주적 기반과 운영을 도외시켰고, 자기안주를 위하여 스스로 어용으로 전락하였다. 70년대에 들어와서도 국가보위법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이 박탈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자기방어에만 급급한 실정이었다. 교회는 노동조합 지도자 교육활동을 통해 지방단위의 조직 건설에 영향을 끼쳤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조직을 기층에서부터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70년대에 들어와 노동조합이 탄압 받자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기업주 등을 만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 3) 한국기업현실에 대한 대응 : 도시산업선교단체들은 열악한 조건과 인간의 진실된 욕구를 무시하는 기업경영은 결과적으로 산업평화와 사회불안을 가져온다는 국가적인 견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한 경영을 펼칠 것을 지속적으로 기업측에 요구하였고, 노사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평화적으로 대화할 것을 촉구하고 이의 실현에 진력하였다.
- 4) 정부노동정책에 대한 대응 : 도시산업선교는 1979년 이전까지 노동행정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목도하였으며 그들의 편파적인 행동을 여러 경로를 통해 비판하였다. 이에 정부는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현실과 이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무시하였다. 결국 교회, 특히 도시산업선교단체와 국가는 대립적인 위치에 놓여 충돌을 빚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교회와 국가의 대립은 YH사건 과정에서 도시산업선교를 '불순한 배후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시작되었고 80년대에 들어서도 그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10. 연구의의

도시산업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논의에 기반한 점을 밝힌 것과 그 연원을 50년대부터 추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도시산업선교가 대체로 그 활동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시산업선교단체들의 노동자교육에 대해서는 각 공장별로 노동조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는 있지만 지역별 조직의 강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는 새로운 평가로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1. 제목: 「한국기독교 도시산업선교의 계보」

2. 저자: 김명술

3. 발행연도: 1995년

4. 쪽수: 9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7.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장 산업선교 계보

1절 교단 산업선교

2절 산업선교 연합단체

3절 산업선교의 특징

3장 도시선교 계보

1절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의 도시선교위원회

2절 한국특수지역선교위원회

3절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의 학생사회개발운동

4절 교단의 도시선교

5절 도시선교 특징

4장 연합 단체의 도시산업선교 계보

1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

2절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5장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도시산업선교가 한국 기독교 사회참여 역사의 계승이면서 전환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기독교의 도시산업선교를 교단 중심의 산업선교 계보, 진보적 기독교인과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단 외부 단체의 도시선교 계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에큐메니칼 단체들의 도시산업선교 계보의 활동 특징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9. 연구내용

한국 기독교의 도시산업선교 활동은 1957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산업전도위원회가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의 교단에 의해 전개되었다. 초기의 산업선교는 기존의 교회전도 방법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현장의 열악함과 정치적 독재의 강화로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도입으로 노동자의 조직화와 의식화에 관심을 갖고 활동함으로써 고용주와 독재정권과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되고, 한편으로는 기존 보수적 교회와 갈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산업선교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고 노동교회를 중심으로 산업선교를 지속시켰다. 따라서 산업선교는 기존의 산업선교센터와 노동교회, 기독교인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분화되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선교는 1968년 산업전도에서 도시산업선교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산업화 도시화로 발생한 도시빈민 문제에 대해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가 주가 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신구교가 연합하여 도시산업선교를 지원하고 신학적 정립을 모색하였으며, 정치권력과 기존 교회의 억압과 왜곡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교단간 신구교 간의 연합적인 기독교 사회운동의 계보를 형성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한국 기독교의 도시산업선교가 일부 급진적인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사회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도시산업사회의 새로운 교회선교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선교활동이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개인이나 교회 외부 단체의 활동만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고 선교적 지침 아래 활동했으며 한국 기독교의 교회연합활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이 연구는 도시산업선교의 선교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으나, 교단 조직이나 선교기구들의 도시산업선교 활동을 시기별로 개괄적으로 서술하는데에 치중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도시산업선교의 의미나 영향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

1. 제목: 「한국농민현실과 농민선교에 관한 연구」

2. 저자: 백영민

3. 발행연도: 1987년

4. 쪽수: 72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7.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농민의 현실

A. 한국자본주의와 농업

B. 농민현실과 농민운동

Ⅲ. 농민선교 신학

A. 농민선교의 성서적 근거

B. 농민선교론

Ⅳ. 농민선교의 현황

A. 신·구교 농민회의 선교활동

B. 지역교회의 선교활동

Ⅴ. 결론

8. 연구목적

농촌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전제하고 ‘농민선교’의 이론적 정립을 모색하여 농촌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방식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서술된 것이다.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그 활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기독교 농촌운동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려 하였다.

9. 연구내용

먼저 2장에서는 한국 농촌의 현실을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 고도성장기 농업정책을 예로 들며 자작농의 몰락과정이었다고 진단하였다. 최근 국제무역구조 하에서의 농업 개방론을 고찰하면서 농업개방논의를 독점자본이 구조개선이라는 이름 하에 농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된 것이라 보았다. 이 같은 시각 하에서 3장에서는 농촌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이해와 분석을 동반하면서, 그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형태로 농촌선교가 진행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농촌 부채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이를 둘러싼 해방 이후 농민운동의 경향을 정리하였으며, 聖書에

등장하는 耕者有田의 원칙을 제시하고 기독교의 농민운동이 그 원칙에 입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가톨릭 농민회와 기독교 농민회를 고찰하였는데, 주로 그 조직과 연혁을 소개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주로 기독교농촌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독교농촌운동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편이다.

1. 제목: 「1970년대 노동교육 사례연구: 크리스찬 아카데미 산업 사회 중간집단교육」

2. 저자: 정연순

3. 발행연도: 1998년

4. 쪽수: 106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서울대학교

7. 목차

I. 서론

II.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간집단 교육의 성립

1. 1970년대 초반의 노동교육 현황

2. 크리스찬 아카데미 재단의 설립과 중간집단 교육

III. 산업사회 중간집단 교육의 운영

1. 교육위원회 구성

2. 교육단계의 선정

3. 단계별 교육과정

4. 교육과정과 교육원칙

IV. 노동교육 경험

1. 참가동기

2. 노동문제의 인식

3. 공동체 체험

4. 일체감 경험

V. 몇 가지 성과

1. 노동교육의 활성화
2. 노동교육가 양성

VI. 요약 및 논의

8. 연구목적

1970년대 노동교육의 사례로서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아카데미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시행한 ‘중간집단교육’을 분석하여 노동자계급이 계급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계기를 밝힌다는 목적의식에서 작성된 논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합리성을 가진 크리스찬아카데미의 노동교육에서 노동자들이 경험한 것과 그 결과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글의 논지전개과정에서 기독교지식인들이 ‘중간집단’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운동에 임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독교사회운동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9. 연구내용

필자는 1970년대에 들어 노동자들의 저항이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식인들이 노동문제의 해결에 뛰어드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노동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전제하였다. 다음으로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찬아카데미가 노동조합을 한국사회개혁의 중요한 집단으로 설정하고 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 같은 전기를 마련하는 데에 일조하였음을 평가하고 그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필자에 의하면 크리스찬아카데미는 산업선교 등 타 기독교 선교단체와는 노동교육과정 설립의 배경이 달랐다. 크리스찬아카데미는 1965년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고민하던 인사들이 강원용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기독교학술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이후 명칭을 한국 크리스찬아카데미로 개칭하였는데 그 취지는 한국교회의 토착화, 교단일치, 사회참여를 모색한 기독교계 지식인들의 기독교운동이자 학술운동단체로 출발한 것이라고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크리스찬아카데미의 활동주체들이 사회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보다는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개혁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고 지적하고 이후 사회운동 및 노동운동과는 구별되는 점이라고 보았다.

70년대에 들어와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인간화 이념’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담지할 계층을 ‘중간집단’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점에 대하여 필자는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그 의의와 성격을 정리하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인간화 이념’이란 다원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화해와 사회통합, 이를 통한 사회적 제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이 ‘인간화 이념’을 수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중간집단 교육’을 1974년부터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중간집단’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분석하고 있지 않지만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경우 사실상 ‘중간집단 교육’은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 프로그램이었고, ‘중간집단’도 이들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크리스찬 아카데미 재단은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어용적 노동조합 활동을 반성하게 하는 계몽적 시민교육을 ‘중간집단교육’이라고 인식하였고, 또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인간화 이념’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위원으로 참가하였던 지식인들은 이 교육이 ‘인간화이념’의 내면화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사회구조적인 안목을 심어주고 계급정체감을 형성하는 역할까지 하기 원했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정치경제학 강의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혼재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면에서 볼 때 교육원칙으로는 주입식 교육이 지양되고 공동체 놀이와 분반 활동 등 교과외 수업과 사회과학에 관한 소양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교육과정은 참가자들의 경험을 표출하고, 객관화하며 재구성하는 토론과 과제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참가자들은 이 교육을 통해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안목을 형성하였으며 노동자의 연대의식을 획득하고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인식도 심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교육기간 중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노동자로서의 위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체감을 형성하고 대안적 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문제의 발생이 자본주의적 관계의 구조적 모순임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안적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는 연결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필자는 평가하였다. 이 교육을 이수한 조합 간부들은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의 교육활동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교육이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노동자 스스로의 경험을 표출하고 공유함으로써 노

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교육 이수자들도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에서의 토론과 결단의식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소속 노동조합에서 직접 교육을 기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교육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노동자 정체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정당성과 사회개혁에 대한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자각시키고 노동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자신의 삶으로 내면화하게끔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이 교육 과정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의식의 향상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노동자들의 계급의식도 진전되었다고 보았다.

10. 연구의의

1970년대 기독교측 사회운동가들의 활동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주로 ‘인간화이념’이 적용되어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기정체성을 점차 가질 수 있었다고 파악한다. 1970년대 노동자의식이 급속히 성장해 가는 측면을 교육이라는 점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교육학적 관심에서 글을 쓴 것으로서 기독교사회운동의 성격에 대해 논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사회통합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간화이념’이 노동자의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기독교계 지식인들의 현실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기독교사회운동가들의 사회참여논리와 사회관은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변화를 겪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전이 주로 사회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이후는 그와 달리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하겠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사회운동가들이 지향한 ‘인간화이념’이 어떠한 변용을 거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해석을 가하는 논문이 없는데, 이 글 역시 이 점에서 향후 밝혀야 할 지점을 남겨두고 있다고 파악된다.

1. 제목: 「한국농촌현실진단과 농민선교의 방향」

2. 저자: 허원배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10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7. 목차

I. 서론

II. 宣敎의 이해

1. 농민 농촌선교에 대한 성서적 이해

2. 선교론의 변화

III. 宣敎의 場- 농촌, 농민의 현실

1. 우리 농업의 역사

2. 한국농업문제

3. 농촌, 농민현실

4. 농촌교회의 현실

IV. 농촌, 농민선교운동

1. 한국농민운동 소사

2. 한국농촌 선교운동의 현실

V. 농민선교의 과제와 방안

1. 농촌, 농민선교의 과제

2. 농촌, 농민선교의 활성화 방안

VI. 결론

8. 연구목적

해방 이후 한국 농촌이 사회발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기형적 근대화에 희생되었다고 진단한 뒤 이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시론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9. 연구내용

2장에서는 聖書에 나타난 농민관을 나열하고 196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기독교 宣敎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宣敎의 내용이 敎理에서 ‘社會救援’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그 이론적 근거로 작용한 신학으로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들고 있는데 이들 신학의 논리구조상 특질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3장에서는 한국농업의 역사를 개관하고 소작농의 증가추이, 농가소득현황, 경지규모별 농업소득과 가계비 충족도 등을 통계자료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농촌이 '파산'을 맞고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덧붙여 이농현상의 격화로 農村敎會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한 농촌운동을 개관적으로 약술하였는데, 조선시대 말기의 농촌운동, 일제하 농민운동, 미군정 하의 농민운동, 60년대 및 70년대의 농민운동으로 나누어 본 것이 특징이다. 80년대의 농촌운동에 대하여는 반외세반독점운동의 일환으로 농민운동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고 YMCA, 가톨릭농민회 등이 '사회구원'을 목적으로 활동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가 실행한 것으로 현장활동을 통한 협동의식의 심화보급, 농민문화의 육성, 연구활동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기독교계 농민운동의 구체적 양상이 전체 농민운동의 흐름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5장에서는 기독교계의 농민운동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로 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하여 농지자금구입을 앞선하기 위한 '토지금고' 설치와 같은 현실적 대안의 모색,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시정요구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 등을 들고 있다.

10. 연구의의

기독교계의 농촌운동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향후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1970년대 민주화운동 내에서 농촌운동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주로 농촌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1. 제목: 「1970년대 개신교의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2. 저자: 홍현영

3. 발행연도: 2002년

4. 쪽수: 47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한양대학교

7. 목차

1. 머리말

2. '산업전도' 전개배경과 활동

- 1) 경제개발론의 확산과 '산업전도' 필요성의 대두
- 2) '산업전도' 활동과 고용주들의 협력
3.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 1) '도시산업선교'로의 전환과 한국노총과의 연계
 - 2) 여성노동자들의 소모임 활동과 민주노조운동
4. 맺음말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산업화시기에 개신교세력과 노동자계급 간 사회적 관계의 변화양상, 190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와 민주노조운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작성된 것이다.

9. 연구내용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비롯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가입된 5개 교단은 '산업전도'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이 '산업전도'가 산업화, 도시화라는 사회적 변동에 대한 개신교의 사회대응적 성격을 지닌 선교로서 고용주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된 것이라고 보았다. 산업전도활동은 노동자들에게 열심히 작업할 것을 동기부여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필자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처음 비기독교인 고용주들도 산업전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산업전도 활동은 노동자들에게 종교적, 사회적 의미에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노동윤리를 내면화함으로써 꾸준히 작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즉 초기의 산업전도는 다분히 '친자본적'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지적이다.

1960년대 후반 이후 개신교의 산업전도는 '도시산업선교'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의 개신교 지식인들은 산업화의 결과로 첨예하게 나타난 노동 및 산업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운동론으로서 '중간집단론'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국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중간집단'이라는 보완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즉 '중간집단'은 압력단체로서 존재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필자는 밝혔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견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체제 내로 제한하였으며 '산업평화'를 조성하려는 국가

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 도시산업선교회는 한국노총과 일정한 연계를 맺기도 하였다.

도시산업선교활동이 국가와 갈등관계에 놓인 것은 국가의 탄압이 강화되고 한국노총과의 연계가 단절된 후부터였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소모임 활동이 활발해지고 '과학적 지식'이 확산되어가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계급의식이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민주적인 노조들이 건설되었다. 이 시기는 유신독재가 성립한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며, 민주화운동과도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보았다.

10. 연구의의

도시산업선교가 초기에는 친자본적이었으며 '도시산업선교'라는 방향을 명확히 한 때에도 한국노총과의 연계를 통해 상당히 체제내적인 개혁을 지향하였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도시산업선교활동의 변천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초기 기독교계가 노동운동에 나서게 된 논리적인 원인을 엄밀히 살펴 그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주화운동과 관련을 맺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논리적인 흐름도 향후 더욱 자세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글은 그와 같은 과제를 던져주는 작업으로 의미가 있다.

1. 제목: 「도시산업사회와 교회」, 『한국교회와 사회』

2. 저자: 이원규

3. 발행연도: 1989년

4. 쪽수: 16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신학연구소

7. 목차

1. 머리말
2. 도시산업사회의 특징과 문제
3. 도시산업사회와 교회
4. 맺는말

8. 연구목적

이 글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짚어낸 뒤 교회가 그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쓰진 것이다. 저자는 도시화현상이 도시주민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 주민간에 이질화현상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보고 이로 인하여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공동체의식의 약화로 이어지고, 이 '공동체의식의 약화' 현상이 도시산업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저자 나름대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9. 연구내용

한국교회는 60년대 이후 양적으로 팽창을 거듭하였다. 교회의 양적 성장은 산업화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도시산업화 현상이 교회의 양적 팽창과 맞물리는 것은 도시화로 인한 인간소외현상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산업사회는 매우 활발한 거주지 이동과 이에 따른 이질성으로 인하여 공동체의식이 매우 박약해진다. 교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공동체의식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였다.

교회의 팽창은 공동체의식의 고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교회조직의 거대화와 관료화, 물량화 등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답습하였고 결과적으로 신도들의 불신과 소외의 문제를 야기했다. 교회는 산업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물량화, 대형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사회의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산업화의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사회추세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10. 연구의의

도시산업화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대응을 살피겠다는 취지 하에 작성되었으나 심도 깊은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대형화, 물량화 현상을 산업화의 영향으로 파악한 점은 기존의 연구시각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이 분야의 연구의 흐름을 짐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제목: 「도시빈민선교의 이해」, 『한국역사 속의 기독교』

2. 저자: 정명기

3. 발행연도: 1985년

4. 쪽수: 10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 목차

1. 도시빈민선교
2. 도시빈민의 형성과정과 현황
3. 도시빈민선교 활동의 역사와 현 상태
4. 도시빈민선교의 방법론
5. 도시빈민선교활동 내용
6. 개체교회가 도시빈민선교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한 지침

8. 연구목적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의 시작으로 나타난 도시문제, 노동문제, 빈민문제에 대하여 기독교 교회가 선교적 관심으로 접근한 것이 도시산업선교라고 정의하고 그 활동의 연혁, 방법론 등을 간단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글이다.

9. 연구내용

필자는 도시산업선교회의 방법론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면서 이에 앞서 도시산업선교활동의 연혁을 소개하였다. 이에 의하면 도시산업선교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선교는 주로 교회 중심적이었고 지역사회와 유리된 단순한 전도사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도시산업선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1968년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내에서 박형규 등이 도시선교위원회를 결성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 위원회는 1971년 9월에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로 개편되어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 즈음 도시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단체가 결성되어 산발적이거나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한국특수지역선교위원회가 그 중 하나이다. 한국특수지역선교위원회는 1973년에 서울 신답십리4동에 훈련센터를 개설하면서 실무자를 양성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에 직결된 문제를 파악, 복지 및 권익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한국특수지역선교위원회 이외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을 중심으로 서울지역사회선교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필자는 도시산업선교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교회자체

의 유지를 위한 선교보다는 고통당하는 이웃과 그 고통을 나누는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실천을 중요한 일부분으로 보는 점에서 도시산업선교활동은 '하나님의 선교' 론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처럼 필자는 한국의 도시산업 선교를 새로운 선교개념의 정착과 관련지어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알린스키가 주창한 '지역사회조직이론' 과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이론' 을 따른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조직이론' 은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민중교육이론' 은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사업을 문화운동으로 승화시켜 인권해방운동으로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제시한 이론이다.

이들 이론은 물론 한국사회에 직접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 점에서 도시산업선교가 지역주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각 사례에 알맞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지역민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활동지역에서의 지역사회조사를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10. 연구의의

도시산업선교의 이론적 기반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 점은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이 견지되는 가운데 그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타분야의 운동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엄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4)통일운동

1. 제목: 『남북대화시대의 종교계 통일운동방향』

2. 저자: 국토통일원

3. 발행연도: 1995년

4. 쪽수: 329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국토통일원

7. 목차

1. 서론
2. 기독교와 사회주의
3. 한국기독교와 북한 공산주의
 - 가. 북한공산주의의 기독교 이해
 - 나. 공산주의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대응
4. 북한과 남한기독교와의 만남
 - 가. 남한 교회의 북에 대한 관심
 - 나. 북한 교회의 남한 교회와의 접촉 의지
 - 다. 가톨릭교회와 북한 당국의 만남
 - 라. 개신교와 북한 당국의 만남
5. 기독교의 통일 논의들
6. 개신교 통일 논의의 신학적 배경
7. 결론 : 기독교 통일 운동의 방향

8. 연구목적

북한 당국의 기독교에 대한 입장 변화, WCC를 통한 KNCC의 북한과의 접촉, KNCC의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 선언’과 Glion선언 등의 변화한 상황은 남북교회 관계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 앞으로의 이러한 전망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 접촉된 기독교회 남북 접촉 및 기독교내의 통일에 관한 기본 입장에 관한 이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9. 연구내용

기독교의 민족통일에 관한 기본입장의 역사적 전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학적 논의들에 관하여 관찰하였다. 그리고 교회 통일운동의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결론 부분에 제시하였다. 더불어 남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통일논의의 내용과 그것의 변화 가능성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통일 운동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좌경적 민족주의와의 연결 가능성, 북한측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KNCC의 북한 접촉은 KNCC의 통일안

을 반대하는 여러 교단들로 하여금 통일 문제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KNCC를 중심으로 한 통일 노력은 균형 있게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교포들에 의한 남북접촉의 내용도 소개되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과 북한 접촉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방송을 통한 남북접촉은 지하 교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가톨릭교회의 통일운동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기독교에 비하여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들이 진리의 초월성을 내세워 남북의 중간인 '제 3의 길'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통일노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1. 제목: 『통일신학을 향하여』

2. 저자: 노정선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23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 목차

제1장 한반도역사와 해방: '잃었던 주권을 찾으라'

제2장 통일신학을 향하여

제3장 제3세계 기독교윤리

제4장 여성해방윤리

제5장 디아스포라의 윤리 : 지구상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의 윤리

8. 연구목적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기독교통일운동의 이론적, 신학적 기초를 닦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 점에서 '통일신학'의 수립을 제기한다고 전제하고 통일신학의 구체적인 논리적 틀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쓴 글이다. 전체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일신학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모색은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9. 연구내용

전체 5부분으로 나누어진 본문 중 이 글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통일신학의 이론적 틀 수립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2장이다. 1장에서는 한반도가 분단에 이르는 전체적인 흐름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였고, 3장과 4장은 여성신학, 제3세계에서 기독교가 행해야 하는 사회참여의 방향모색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2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남과 북이 운명공동체로서 하나의 단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서구의 이데올로기와 기독교신앙이 남과 북의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필자에 의하면 서구의 신앙은 남과 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서 ‘분단신학’이라고 칭해질 수 있다고 한다. ‘분단신학’과 대비되는 ‘통일신학’은 서구열강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한반도문제를 자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일문제가 교회의 본격적 관심으로 부상한 것은 1984년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협의회’가 일본 도잔소에서 열리면서부터였다.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남북교회 접촉이 활발하여졌는데 19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필자는 보았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에서는 분단상황이 군사독재정권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였고, 인권유린과 노동자 농민에 대한 탄압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통일운동은 이 점에서 진정한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 된다고 주창하였다. ‘억눌린 자’에 대한 관심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며 초기 그리스도교가 지향하고 있던 목표이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신학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으로 선포하고 남북교회 공동기도문을 작성하거나 이산가족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실천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필자의 주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서구의 신학을 ‘분단신학’이라고 명명한 점이다. 필자에 의하면 서구의 기독교신앙은 로마제국의 국교로 공인 받을 때부터 체제지향적인 경향을 띠었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라인홀드 니버, 베네트 등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신학자들은 세계제국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앵글로색슨족에 의한 세계질서를 기독교윤리적 측면에서 수용해버렸다고 한다. 즉 서양의 신학은 제3세계 국가에 있어서

의 자율성과 민족적 통합을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서양신학의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데에까지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통일을 성경적 입장에서 한민족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설정한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서양신학을 ‘분단신학’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칭 되는 개념으로서 ‘통일신학’을 정의할 때 ‘분단신학’의 구체적인 논리구조를 상세히 밝힐 필요가 대두한다. 본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고 통일을 당위적 과제로만 제시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하는 데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1980년대 한국기독교교계가 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대두하였던 신학적인 근거의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저술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제목: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2. 저자: 이삼열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475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햇빛출판사

7. 목차

1부 평화 문제의 철학적 탐구

1. 평화 문제의 사회 철학적 이해
2. 비판적 평화 연구란 무엇인가?
3. 평화 교육의 철학과 실천 방법

2부 평화 운동의 이론과 실천

1. 평화 운동의 이념과 방법
2. 기독교와 평화운동
3. 평화 운동과 여성운동
4. 한국 사회와 평화 운동

3부 민족 통일의 실천적 과제

1. 통일 문제를 우선의 과제로 삼으라
2. 대학의 민주화와 통일 논의
3. 남북 교류 협력 법안의 비판적 소견
4.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한 비판
5. 통일 방안과 통일의 원칙
6.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군축의 방향
7. 남북 대화와 민족 분단의 극복
8. 남북 교류와 여성 운동
9. 남북의 신뢰 구축과 군비 축소
10. 90년대를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

4부 평화 선교와 통일의 실천

1. 분단은 원죄다.
2. 분단의 극복과 기독교
3.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교회의 실천 과제
4. 민족 통일을 위한 교회의 입장과 원칙
5. 교회협의회 통일 선언의 입장과 배경
6. 평화의 복음과 통일의 사명
7. 남북 통일과 해외 한인 교회의 사명
8. 통일의 신학과 희년(禧年)의 계획
9. 평화 통일 운동과 교회협의회와 과제
10. 평화 선교와 통일의 실천

5부 동서독의 통일과 그 교훈

1. 동서독 교류와 이질성의 극복
2. 동서독 통일이 풀어야 할 문제들
3. 동독의 총선과 통독(統獨) 전망

6부 평화와 통일의 길목에서

1. 독일의 분단 극복에서 우리도 배워야 한다.
2. 대학가의 좌경 세력 문제
3. 남북 학생 회담과 판문점 행진

4.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켜라
5. 평화롭고 자유로운 올림픽을
6. 남북 교회 교류의 문제와 과제
7. 문익환 목사 수사 발표문의 문제점
8. 남북의 냉전 유물을 청산하자
9. 6.25 전쟁을 언제 끝내려나?
10. 유엔 동시 가입의 조건

8. 연구목적

이 글들은 1980년대 초부터 집필되었다. 평화가 가장 결핍되고 통일이 아쉬운 한국에서 평화연구는 부재했으며 반핵 평화운동마저 이적 행위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필자는 서구에서의 평화운동과 평화 연구의 동향을 소개하는 작업을 통하여 평화, 통일 운동을 진전시키려 하였고 10년간의 결과물이 이 책에 묶여 있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철학, 사회과학, 교육학, 심리학 등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연구와 평화 교육 그리고 평화운동의 이론을 소개하는 부분과 통일의 실천과제와 방안들을 논의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서술되어있다. 참고로, 필자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철학적 논문과 사회운동의 이론들 기독교 윤리적 성찰들 정치적 평론들을 함께 실은 이유에 대하여 이것들이 총합된 이론과 실천의 장에서 나왔으며 평화와 통일의 문제야말로 철학적 이론과 사회적 실천, 윤리적 반성이 함께 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0. 연구의의

필자는 통일 문제에 있어 평화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평화는 통일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통일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야 하며 통일의 과정은 반평화적인 분단체제와 의식의 극복과정이며 평화의 실현이기 때문에 통일과 평화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함으로써 통일문제 탐구에 평화의 정책과 철학을 함께 연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을 과업으로 앞둔 현재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이 책에서는 그 고민의 방법을 개괄적으로나마 제시하고 있다.

1. 제목: 『한국기독교사회운동 그 형성 · 전개 · 과제』

2. 저자: 전대련 · 노종호(편)

3. 발행연도: 1986년

4. 쪽수: 274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 목차

1부. 근대사회변동과 한국기독교

1. 전통 · 변혁 · 기독교(김용복)
2. 한국근대사회변동과 기독교(박영신)
3.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신용하)
4. 한국기독교와 사회운동(이만열)
5. 근대민족국가 형성과 기독교(진덕규)
6. 한국인상과 기독교(정대위)

2부 시민사회형성과 한국기독교

7. 민주사회의 형성과 기독교(이신행)
8. 신앙과 민주주의(이문영)
9. 정치문화의 이상과 현실(장을병)
10. 기독교와 노사문제(한홍순)
11. 기독교와 사회윤리(정하은)
12. 한국문화와 기독교(김경재)

3부 분단시대상황과 한국기독교

13. 한국역사의 주체성과 기독교(김재준)
14. 민족분단과 기독교의 대응(김용복)
15. 분단의 극복과 기독교(이삼열)
16. 민족분단을 넘어서는 길(박순경)
17. 분단시대와 한국교회의 사명(강문규)

8. 연구목적

1984년 4월부터 85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서울YMCA가 주최한 '선교백주년 기념

한국기독교사상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묶어 간행한 책자이다. ‘근대사회와 한국기독교’, ‘시민사회형성과 한국기독교’, ‘분단시대상황과 한국기독교’의 세 범주로 논문들을 구분하여 실고 있는데 ‘근대사회와 한국기독교’ 부분에서는 주로 선교초기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기여한 측면과 기독교 전래로 인한 사회변화를 주제로 작성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시민사회형성과 한국기독교’ 부분에서는 민족국가, 사회윤리, 노동의식 등 주로 사회학적인 관심분야가 기독교에 의하여 진전된 측면을 다소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단과 통일운동에 관한 기독교계의 대응을 주제로 한 논문이 실려 있는데 주로 이하에서는 세 번째 부분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주요내용을 가려 소개하고자 한다.

9. 연구내용

「민족분단과 기독교의 대응(김용복) 177쪽~216쪽」

필자는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기독교계 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7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7·4공동성명을 긍정적으로 확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평화적 통일의 방향으로 전진해 갈 것”을 바라면서 “한국교회는 내일의 민족역사에 있어 더욱 전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실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또 교회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반공의 자세를 견지하고 앞으로 다가올 대결에 대비하여 민주국가건설에 기여하며, 공산주의이념에 대한 깊은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주장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나 교계의 일반적인 태도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환영하지만 공산주의자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북한 치하에서의 경험과 전쟁을 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7·4공동성명은 한국교회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그 윤곽이나마 확인시켜주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필자에 의하면 7·4공동성명 직후 다시금 남북대화가 실질적으로 와해되자 한국교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통일염원’은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한편으로는 통일기도회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민주화, 인권운동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즉 통일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남한에 구축하는 선교운동으로 표출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70년대 말에 다시 재기되는 통일문제가 실은 70년대의 인권선교와 민중운동의 전개과정에서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통일에의 기반이 점차 형성될 것으로 본 시각 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1979년 말 유신체제가 비극적으로 와해되고 새로운 분위기가 비등하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는데, 1980년 3월에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통일은 교회의 선교 과제'임을 천명하고 '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 예라고 하였다.

「분단의 극복과 기독교(이삼열) 217쪽~238쪽」

한국전쟁을 치른 후 남북한은 각각 북진통일, 남진통일을 주장하다가 평화통일론으로 바꾸어서 여러 가지 통일제안을 던졌지만, 항상 대내적 통합이나 대외적 선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이었지 진지한 통일추구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통일안도 자기 체제의 안보보다 우선적으로 통일을 내세운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필자도 역시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남북한은 처음으로 통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시의 공동성명은 진정으로 통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오히려 분단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펼쳐졌다고 이해하였다. 이 같은 현실은 결국 국민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주적 원칙에 의해 통일방향과 과정이 결정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7·4공동성명에서는 권력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통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7·4공동성명 후 정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된 남북회담에 대하여 기독교는 이를 경계하며 침묵하는 보수진영과 이를 지지하면서 공산주의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는 '통일의 신학'을 전개하자는 등의 적극적 자세를 지닌 진보진영으로 나뉘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세력은 통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었지만 남북회담이 중단되면서 두 진영 모두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유신시대가 끝난 후 80년대에 오면서부터 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공식기구들이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통일문제를 교회의 선교적 사명으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보았다. 이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은 그 자체로서 이미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정권의 억압과 무관심으로 순수한 가치를 실현할 수 없었다는 이해가 가능하다. 이 점은 상당수의 연구가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통일운동의 의의를 파악하는 것과 다른 인식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필자는 81년 6월에 서울에서 모인 제4차 한·독교회가 한국과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협력하자는 결의와 다짐을 한 것이 교회로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해주었다고 평가했다. 80년대에 발표된 여러 성명서나 취지문에는 민족전체가 참여하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7·4공동성명의 원칙을 지키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에 의하면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슨 기독교적 통일안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논의를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하여 국민적 의사를 집약시키며 민이 주도하는 통일논의를 수렴해보겠다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10. 연구의의

통일운동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1980년대 기독교계 내부에 ‘통일 신학’이 대두하고 통일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두 편의 연구가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자의 경우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 반독재운동과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데 반하여 후자의 글은 통일운동이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을 예로 들며 이전에는 통일운동 자체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못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이 같은 차이는 후자의 논문이 주로 통일문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 듯하지만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맥락을 부각시키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1. 제목: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2. 저자: 채수일

3. 발행연도: 1995년

4. 쪽수: 584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한국신학연구소

7. 목차

1부 희년·통일의 성서적 지평

1. 성서의 희년사상, 그 가능성과 한계(안병무)

2. ‘기쁨’과 ‘은총’의 해, 희년의 성서적 의의(이경숙)

3.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사(김창락)

4. 이스라엘의 통일신학(임태수)

5. 평화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홍근수)

2부 회년 · 통일운동과 그 신학의 모색

1. 통일신학의 정초를 위하여(박순경)

2. 민족통일의 성취와 통일신학의 정립(박종화)

3. 통일회년운동과 하나님의 통치(김애영)

4. 통일회년운동의 전망과 대안(채수일)

5. 세계 에큐메니칼운동과 회년의 지구적 지평(김용복)

3부 분단과 통일운동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1. 해방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교회(강인철)

2. 한국전쟁과 기독교(서정민)

3.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역사에 대한 재검토(김홍수)

4. 1980년대 한국기독교운동에 대한 고찰(박성준)

4부 통일을 향하여

1.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청사진모색(노정선/이종석/정대화/홍근수/강원돈)

2. 제안 · 회년 선포와 통일헌법(안병무)

3. 통일 후 남북교회의 형성과 남북교회 관계에 대한 시안(손규태)

4. 평화통일교육의 실마리(윤응진)

8. 연구목적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의 선언’을 통하여 1995년을 ‘평화통일 회년’으로 선포한 것을 기념하여 발간된 책자이다. ‘회년’이란 성서에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불의한 사회구조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법적 권리와 생존권을 회복시켜주는 특별한 해’라는 의미를 지닌다. 본 책자는 별개로 분리된 논문들을 4개의 부문으로 나눈 뒤 이를 합쳐 구성한 것이다. 때문에 일관된 논리전개구조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개별 논문마다 연구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특히 1부와 2부는 주로 신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통일운동에 대한 신학 이외의 연구경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책자에 수록된 논문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요 논문들을 개별적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9. 연구내용

본문에 수록된 기독교사회운동에 관한 글은 「한국교회의 통일운동 역사에 대한 재검토」(420쪽~450쪽)와 「1980년대 한국기독교통일운동에 대한 고찰」(451쪽~478쪽)이 대표적이다.⁵⁾ 여기서는 두 번째 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두 번째 글에 해당하는 「1980년대 한국기독교통일운동에 대한 고찰」에서는 1980년대 기독교 통일운동을 고찰함에 있어 통일운동과 변혁운동의 관련성문제, 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기독교통일운동의 지위와 역할, 평화군축운동이 갖는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여기서는 당시 통일에 대한 관심의 확산과 더불어 ‘통일’에 대하여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의미가 분화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즉 지금까지는 ‘지배세력=반통일세력’, ‘민족민주세력=통일세력’이라는 등식이 통용되었고 이 경우 ‘통일’의 의미는 남한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결부된 것이었다는 것이다. 필자에 의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남한사회가 제국주의 예속상태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남한사회 내부의 계급적 모순을 극복해 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남북의 통일이었다.

한편 이제까지 반통일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지배세력은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입장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이 글은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변화의 핵심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한국’을 유지하면서 대북 우위의 통합이나 식민지적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한반도에 부르주아적 해계모니가 관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자는 것이라고 보았다. 통일의 의미가 이렇게 분화되자 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투쟁대상을 가려내어 당면의 목적을 인식하는 ‘올바른 시각과 관점’을 세우는 일이 긴요해졌다고 보고 이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통일운동과 민주변혁운동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통일운동이 발전하면 민주화운동의 발전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이 결합되어 있다는 인식은 통일운동이 지니는 상대적 독자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72년 이전까지 남한에서 수행해야 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남한자체의 변혁역량을 인정하는 통일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남한의 사회혁명과 통일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이 시각은 결국 남한사회의 사상과 이념, 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 그 같은 통일관 변화를 담아낸 것이었다.

5) 김홍수의 글 「한국교회의 통일운동 역사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해제는 이 책자 114쪽에 수록되어 있다.

남한에서도 반제반독점민주변혁을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노선은 민주변혁이 달성된 이후에야 통일운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의 최종목표인 남한의 민주변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남한 내부의 역학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남한이 민주변혁을 이룩하기 전이라도 통일이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통일운동에 우선적인 역량을 집결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취할 때에 통일운동의 독자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총체성과의 관련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운동에 나선 것은 비교적 최근인 80년대의 일이다. 필자는 80년대에 교회가 통일운동에 나선 실질적 계기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적대적인 분단구조 하에서는 국가안보를 내세운 군사독재가 근절될 수 없으며, 참다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독교세력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 마침 국제적인 해빙기류가 동북아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져오고 이로써 남한정권의 통일정책이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전환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통일환경이 급변하고 남의 북에 대한 우위가 확고해지면서 지도층 사이의 북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했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세력은 통일운동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운동을 이끌 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잘 조직된 대중을 바탕으로 통일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 국제적 연대와 정보교류가 가능하다는 점, 신앙과 양심에 바탕을 둔 생명존중사상으로 평화군축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각종 기독교매체로 통일의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교회의 정세분석과 협의 끝에 나온 '도잔소보고서'는 교회의 통일운동에 이정표를 마련해주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도잔소협의회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분단은 한반도 악의 근원이며 독재와 인권유린, 경제적 손실의 원인이다. 2)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교류와 만남이 있어야 한다. 3)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교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교회들이 여건을 조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필자는 이 '도잔소보고서'를 통일운동의 시초로 보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이에 기반하여 85년 이후 89년까지 여러 나라의 교회가 북한을 방문하여 많은 교류를

시도하였고 북한에 대하여 알려주는 정보를 우리교회에 전해오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1985년 이후 거의 매년 통일문제협의회를 개최하였고 1988년 2월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의 선언'이라는 문서가 채택되었다. 이 해 11월에는 스위스의 글리온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협의회'가 개최되어 평화통일의 선교적 과제를 확인하며 결의하였다. 이 회에서 남북교회 대표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화통일선언을 지지하고 1995년을 '통일의 해'로 선포했으며, 매년 8·15직전주일을 '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정하였다.

남북한교회와 세계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대를 맺는 일은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큰 진전을 보였다는 것이 이 글의 평가이다. 미국NCC의 주선으로 남북의 교회대표자들이 89년 4월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워싱턴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일본교회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교회의 사명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 해에 두 번이나 남북의 교회가 만날 수 있었는데 이것이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1990년 12월에 다시 스위스 글리온에서 '3차 글리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에서 남북 당국간 상호불가침선언 채택촉구, 95년의 통일회년사업을 위한 5년간의 공동작업계획추진 등이 합의된 바 있다. 당시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1)8·15를 전후한 남북공동예배, 기도문작성 2)교회 내에서의 평화통일교육 실시 3) 남북 당국 간의 상호불가침선언 촉구 4)구속인사 석방 5)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6)세계교회 공동체들과 통일사업 공동추진 7)실무기구 설치 등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기독교 외부적으로는 아직 통일운동을 둘러싼 논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고 진단하고, 또 기독교 내부라고 하더라도 그 계층적 구성이 다양하여 단일한 통일방안이 아직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앞으로 군축을 포함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합의된 통일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가 내리는 결론이다.

10. 연구의의

기독교통일운동의 연혁을 정확히 서술한 것으로서 기독교통일운동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통일관'의 정립이라는 계몽적인 목적 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기독교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 내에서 가지는 위상 및 그 성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1. 제목: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2. 저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3. 발행연도: 1990년

4. 쪽수: 448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 목차

1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교회의 실천-자료모음

한국기독교통일운동연표

도산소협의회 보고와 건의안

KNCC선언(1988년 2월)

글리온 선언

글리온 공동기도문

남북교회 상봉기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 메시지

세계교회협의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정책성명

2부. 평화통일신학-논문모음

1. 성서와 통일

민족통일문제의 성서적 조명(안병무)

고대이스라엘 남북왕조의 갈등(김경호)

통일의 복음(김득중)

신약성서에서의 평화(김창락)

2. 이론역사신학

민족통일의 성취와 통일신학의 성립(박종화)

통일신학을 향하여(노정선)

정의 · 평화 · 창조의 보전(서광선)

통일에 대한 신학적 조명(홍근수)

통일신학의 정초를 위하여(박순경)

평화와 통일(김용복)

주체사상과 민중신학(박재순)

3. 통일과 기독교윤리

-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신학적 전망(서광선)
- 평화의 주 고백과 통일(이삼열)
- 교회는 분단고착화, 현실안주에 대한 죄책고백부터 해야(종합토의보고)
- 분단극복과 교회의 역할(박종화)
- 분단상황의 극복을 위한 신학의 몇 가지 모티브(홍성현)
-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교회의 역할(김형태)
-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반도 군사문제(노정선)
- 통일 그 과정과 전망(정하은)
- 분단극복을 위한 과제들(서경석)
- 한반도 통일논의의 문제점과 전망(한배호)
- 민족분단과 민중인권(박상증)

4. 통일과 선교, 교육

- 평화와 민족통일을 이루는 기독교교육(김성재)
- 통일을 위한 민족교육의 방향(안병무)
- 남북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홍근수)
- 한민족과 신학(박순경)
- 분단의 극복과 기독교(이삼열)
-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희년의 선포(김용복)

5. 통일의 이념과 정책

-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민족의 사명(한완상)
- 한국기독교와 통일운동(이삼열)
- 7·4공동성명 이후의 민족문제(문익환)
- 민족통일과 여성신학의 과제(박순경)
- 민족통일과 토착화신학의 미래(박종천)
- 분단상황에서의 기독교의 역할-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을 중심으로(손규태)
- 우상들의 동요와 민족통일(김애영)

8. 연구목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편찬한 책자로서 전체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주

로 기독교통일운동과 관련된 중요자료들을 소개하였고 2부에서 통일과 관련된 기독교계의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1부에 소개된 주요자료로는 도잔소협의회 보고서, 글리온선언문, 1988년 2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등이다. 2부에 수록된 논문은 다시 5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1~3장에서는 기독교신학과 통일 관련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4장에서는 선교의 측면에서 이해한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을 논하고 있다. 5장에서는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의 미래에 대해 논한 글들이 모여져 있다. 이하에서 주요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본 책자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9. 연구내용

본 책자에 수록된 논문 중 기독교신학에 관련된 논문을 제외한 몇 편의 글은 통일교육의 실재를 제시한 글 또는 기타 시론적인 글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256쪽 이하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교회의 역할(김형태)」은 1980년대 통일운동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80년대의 통일운동에 대한 기독교계 내부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통일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가 1981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협의회 결의에 따라 통일문제연구회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평화통일문제를 거론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당시에 이미 정부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통일의 원칙으로 민족자결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평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으면서도 기독교의 통일문제 논의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정부가 실제로는 국민들에게는 반공을 강요하고 민족자결원칙을 주장하면서도 강대국들과 통일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한국교회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우리 문제에 대처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로 1) 평화교육을 실천할 것 2)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운동을 펼칠 것 3)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여 평화분위기를 조성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기독교계가 1980년대 통일운동에 주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기독교계의 관심이 주로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위 글의 특징이다.

1. 제목: 『기사연리포트 7-민중의 진출과 민족민주운동』

2. 저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213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7. 목차

1부. 도약하는 민족민주운동

1. 변화된 정세와 민족민주운동
2. 제도권 진출과 정치투쟁
3. 조국통일운동의 확산
4. 광주지역 5월 투쟁
5. 4-5월 학생운동평가와 향후전망
6. 4-5월 농민운동의 흐름과 평가
7. 도시빈민운동
8. 기독교운동
9. 여성운동

2부. 4-5월 임금투쟁

1. 총개관 및 평가
2. 수도권지역 임금인상투쟁
3. 경남부산지역 임금인상투쟁
4. 기타지역 임금인상투쟁
5. 광산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
6. 운수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

8. 연구목적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편찬한 것으로서 1988년 당시 노동, 농민운동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자료집 형식의 책이다. 「도약하는 민족민주운동」·「4-5월 임금인상 투쟁」의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1부에 해당하는「도약하는 민족민주운동」부분에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기독교운동'으로 세분된 장을 설정하여 1980년대 후반 즈음 각 운동부문이 겪어온 상황과 현세를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운동'에 대해 서술한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 기독교에 대해서 필자는, 이승만 정권 이래 권력과 밀착되어있던 교회가 70년대 이후 점차 변모하기 시작하였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통일운동의 적극적인 실천과 더불어 사회운동 내에서 분명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같은 평가 아래에서 80년대 들어와 활성화된 기독교통일운동의 실천을 중심으로 기독교운동의 현세를 살피고, 87년 10월에 '보도기능 정상화'로 언론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 기독교방송의 현 상황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하에서 본 책자 중 '기독교운동'만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9. 연구내용

1988년 기독교계의 통일운동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계기독교한반도평화협의회'를 통한 논의-선언의 확산작업과 각 교단 및 기독교청년학생 차원의 통일운동,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8년 2월 29일에 총회를 열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하고 4월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교회 대표 1백여 명을 초청해 '세계기독교한반도평화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에큐메니칼운동 밖에 있는 교회와의 대화를 확대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입장을 형성해가고 평화통일의 기반으로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 협의회는 국내외에서 각기 진행되어 오던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를 전체적으로 조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기독교교회협의회는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6월에 '인권선교정책 전국협의회'를 갖고 인권과 통일에 대한 의식을 결합시켜 나가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에서는 인권문제가 근본적으로 분단현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분단의식을 극복하고, 민주인사와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며, 남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과 군비축소를 단행하도록 촉구하자고 결의하였다.

기독교계의 통일운동은 위와 같은 한국교회협의회와 활동, 국제협의회와 개최를 통해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개별교단의 프로그램과도 맞물려 대중적으로 확산되

어 가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3월에 평화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교육교재 개발을 결정하였고, 평화통일지역대회를 각 노회별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독교감리회도 교회협의회 방침에 전적인 지지를 표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시급한 개발, 통일기도주간 설정 등을 의결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5월에 '교회지도자 전국대회'를 가지고 민족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 진력할 것, 평화구현에 앞장설 것 등을 결정하였다. 이후 이들 교단의 구체적인 실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청년학생운동권은 일반학생운동권의 조국통일촉진운동의 전개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EYC는 평화통일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4월 한반도평화협의회에 참가하였으며, 5월에는 서울EYC를 재건하여 조국통일촉진운동에 본격적으로 합류하였다. 각 교단 소속의 청년연합회는 각 교단의 결의에 따라 통일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에서는 EYC와 연계하여 각 지방별로 평화통일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통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체 학생운동의 일부분으로서 기독교학생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도 대중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는데, 4월에 연례행사인 '부활과 4월혁명'이라는 이름의 대회를 개최하고 이에서 평화통일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1988년 기독교계의 사회운동은 평화통일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주력하였고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계도 고려하면서 진행되었다. 5월에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에서는 기독교장로회선교교육원에서 평화통일운동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발표된 통일운동추진에 관한 제안이 1988년 기독교운동의 총괄적인 방향타 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통일운동을 현재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중적 움직임과 연대하여 추진할 것, 지역운동을 강화할 것, 생존권투쟁과 결합하는 통일운동의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구체적으로는 분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빈곤문제의 근본원인을 교인들 및 민중들에게 일깨워주고, 문화행사를 열어 통일인식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한편 1987년 10월에 기독교방송이 1080년의 방송통폐합조치로 잃었던 보도권을 되찾은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CBS뉴스가 부활되었고 각종 시사프로그램도 제작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방송인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경영진의 보수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에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일하며 노래하며'라는 프

로그래미 정부의 압력을 받은 이재은 사장의 조치로 폐지된 일이 발생하는 등 앞에 놓여진 난관이 많은 상황이다. 기독교방송의 기자들은 1월에 기독교방송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노조를 결성하기로 하고 노조결성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외부의 압력으로 노조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에 대해 앞으로 전국교회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할 것이다.

10. 연구의의

88년 4.26선거 이후 정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8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이 주로 통일운동에 힘을 쏟고 있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시빈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모두 통일운동과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은 이 시기 민주화운동이 도달한 결과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제목: 『노정권의 출범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2. 저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221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민중사

7. 목차

1부. 정치 정세 동향

1. 1-3월 정치 정세

1)개관

2)여권

3)야권

4)민족민주 운동권과 신당

5)전망과 관련한 약간의 검토

2. 노태우 정권의 성격과 현 정세의 특징

1) 형식에만 그친 민주주의적 실천

- 2) 노정권의 폭과 한계
 - 3) 노정권과 미국의 유착
 - 4) 민족민주진영의 과제
 - 3. 미소 데탕트와 한반도 정세
 - 1) INF 폐기협정의 의의
 - 2) INF협정의 배경
 - 3) 핵 군축의 과제
 - 4) 중소 데탕트
 - 5) 신데탕트와 한반도
 - 4. 대통령 선거 이후 통일 논의의 전개 과정
 - 1) 대통령 선거 시기의 통일 논의
 - 2) KAL기 폭파 사건의 진위와 그 여파
 - 3) 올림픽과 통일 논의
 - 4) 시험대에 선 6공화국의 통일 의지
 - 5) 통일 운동의 향후 전망
- 2부 민족민주 운동의 현황
- 1. 노동 운동
 - 1) 머리말
 - 2) 노동운동 탄압과 노조 수호 투쟁
 - 3) 노동 운동의 조직적 연대의 강화
 - 4) 임금 인상투쟁
 - 5) 평가와 전망
 - 2. 농민운동
 - 1) 개관
 - 2) 생존권 위기와 대중 투쟁의 확산
 - 3) 농민 운동 조직의 전열 정비
 - 4) 농민 운동 조직의 대중화와 통일을 위하여
 - 3. 학생운동
 - 1) 개관
 - 2)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자기 비판

- 3) 총선 전술
4. 재야 운동
 - 1) 머리말
 - 2) 민주 생취를 위한 국민 운동
 - 3) 민통련과 새로운 민중운동 연합의 건설
 - 4) 청년운동 단체
5. 기독교 운동
 - 1) 개관
 - 2) 한국 기독교 통일 논의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 3) 기독교 사회운동연합조직 건설을 위한 움직임
6. 여성운동
 - 1) 머리말
 - 2) 여성들의 정치적 각성
 - 3) 다양한 여성 단체의 출발
 - 4) 기타
 - 5) 전망
7. 공해 반대 운동
 - 1) 개관
 - 2) 주요 사건과 그 의미
 - 3) 평가와 전망

3부 경제 동향

8. 연구목적

1987년을 반성하고 기독교 운동의 조직적 틀을 재정비하여 전체 민족민주 운동 진영과 보조를 맞춰 나가려는 기독교 운동 내 각 부문들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새롭게 대두된 87년 대통령 선거 이후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기독교 운동 진영은 움직임 중 1-3월의 특징적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정세 전망 - 전술 - 각 부분 운동 투쟁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기독교청년 협의회(EYC)와 한국 교회 사회 선교 협의회의 총회를 계기로 한 기독교계의 움직임이 소개되어 있다. 총회를 계기로 한 두 단체의 모습은 88년 이후 운동 조직들의 재정비 모습의 일환이었다. 또한 KNCC 의 88년 2월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이 소개되어 있어 80년대 후반 기독교 통일 운동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운동 조직이었던 '민주 쟁취 기독교 공동위원회'의 해체와 새로운 기독교 사회 운동 연합 조직의 추진 그 논쟁점이 소개되어 있다.

10. 연구의의

88년 초반의 기독교 사회 연구소의 정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자료집 형태의 자료가 간단한 면이 있다면 이 책에서는 보다 논쟁적이며 전체 운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제목: 『분단의 실상과 교회의 통일운동』

2. 저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190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7. 목차

1. 분단의 원인과 민족공동체의 실상

- 1) 시작하는 말
- 2) 우리 민족은 이렇게 분단되었다.
- 3) 찢어진 민족 공동체는 이렇게 이지러졌다.

2. 북한의 사회, 북한의 교회

- 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방문 보고/ 캐나다 교회 협의회
-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김운봉

3.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통일

- 1) 한국 통일 문제의 성서적 조명 / 안병무
- 2) 분단 극복과 교회의 역할 / 박종화
- 3) 남북한 교회의 선교적 공동과제 / 홍근수
4. 우리의 통일을 기도하는 세계 교회
 - 1)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망 - 도잔소 협의
 - 2) 한국 통일에 대한 신학적 고찰
5.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교회의 선언
 - 1) 한반도 민족 통일을 위한 세계 기도 주일 기도문
 - 2) 분단 극복을 위한 회개와 화해 선언
 - 3)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 4)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 협의회

8. 연구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통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얻도록 북한의 실상과 교회의 통일 운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묶어 발간하였다.

9. 연구내용

대중용 자료집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기독교회가 통일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도잔소 협의회를 기독교 통일운동의 시초로 보는 것은 여타의 연구와 동일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채택한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일조하자는 등의 계몽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10. 연구의의

개방과 통일의 통일 등 1990년대 초반의 냉전 질서의 붕괴는 한반도에 분단과 통일에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환경 하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료집 형태로 발간되었다.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이지만 1990년대 초반 기독교 계열의 통일 운동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제목: 「한국개신교에 있어서의 반공이데올로기 형성과 변화」

2. 저자: 김상우

3. 발행연도: 1993년

4. 쪽수: 96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부산대학교

7. 목차

I. 서론

II. 한국 개신교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도대

1. 미 제국주의 침투와 개신교의 선교
2. 선교사들의 국내활동과 정교분리의 원칙

III. 한국개신교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1. 일제의 문화정치와 개신교의 굴복
2. 해방과 개신교의 반공이데올로기

IV. 한국개신교 반공이데올로기의 내면화과정: 분단이데올로기의 정착

1. 북한정권의 수립과 개신교인의 월남
2. 한국전쟁과 개신교
3. 한국전쟁 이후의 반공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확산

V. 한국 개신교 반공이데올로기의 변화와 균열

1. 한국 개신교 반공이데올로기의 균열원인
2. 한국 개신교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의 동력
3. 개신교의 민족통일운동

8. 연구목적

해방 이후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에 일정정도 역할을 한 기독교의 반공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박정희 정권 시기 반공이데올로기가 균열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독교계의 통일운동 추이 및 그 신학적 배경을 고찰한 글이다.

9. 연구내용

2장에서 한국 개신교 내부에서 반공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데,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특성, 부흥회 중심의 전도방식 등으로 인하여 한국개신교가 출발부터 물역사성을 띠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3장에 들어와서는 일제시기부터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를 수용하던 기독교계가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과의 밀착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를 수용하였다고 진단하고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제 말 친일인사들의 신사참배=적극적 반공사상 수용’이라는 도식으로 설명을 가하고 있으나 친일적 기독교인들이 가진 시대상과 당시의 교계 분위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해방 이후 미군정이 기독교인들과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구축하였다고 언급하고 자유당 소속의원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상당했다는 점, 군목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어 4장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반공이데올로기가 공고화 되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지배권력의 연장과 사회통제 기제로 반공이데올로기가 채택되었다고 전제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반북이데올로기’이며 전쟁 이후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및 지배세력의 권력욕과 맞물려 사회적인 힘을 획득하였다고 보았다.

5장에서는 진보적 신학의 등장을 반공이데올로기의 내적 계기로 보고 기독교 내부의 교단분열 과정에서 진보적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서술한 다음, 진보교단 중심의 통일운동을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상정하여 그 대두과정을 개략적으로 쓰고 있다. 7.4공동성명을 기독교 통일운동의 중요한 계기로 설정하고 1981년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 모임에서 발표된 ‘비엔나선언’을 본격적인 통일논의의 시초로 보고 있다. ‘비엔나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해외 기독교인들의 통일 논의가 1985년 KNCC에서 총회선언의 형태로 결실을 맺었고 1988년 2월에는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으로 가시화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에 대하여 서술한 글이지만 통일운동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이에서 찾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사회운동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공이데올로기의 확산을 통해 1970년대 당시 정권이 독재정권연장을 시도하였다는 지적은 기존의 연구성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1. 제목: 「분단시대 민족적 선교과제로서의 한국교회 통일운동」

2. 저자: 나이영

3. 발행연도: 1992년

4. 쪽수: 94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감리교신학대학

7.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범위 및 방향

Ⅲ. 분단시대 선교과제로서의 민족통일

Ⅳ. 한국교회 민족통일운동에 대한 시대적 고찰

1. 해방 직후 교회의 통일논의

2.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의 교회 통일논의

3. 7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 통일논의

4. 80년대 이후 교회의 민족통일운동

Ⅴ.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문제점 및 과제

Ⅵ. 결론

8. 연구목적

현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임무를 통일이라고 규정한 뒤 민족통일운동이 한국 교회 사회선교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고 해방 이후부터의 한국교회 통일운동을 정리하려 한 글이다.

9. 연구내용

한국교회가 주장해온 민족통일논의를 시대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 해방직후부터 6.25까지를 1기로 나누고, 이어 70년대까지를 2기, 82년까지를 3기, 그 이후를 4기로 구분하였다. 1기에는 신사참배에 대한 교회의 내적 진통으로 인해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한의 교회가 통일의지를 포기한 채 반공이념 속에서 분단고착화를 찬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기는 일종의 암흑기로서 남북의 대결구도를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결’로 인식하려는 승공적 반공통일론이 지속된 시기로 파악하

였다. 7.4공동성명 이후 교회의 통일논의에 변화가 왔다고 파악하고 이후를 3기로 분류하였는데, 통일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여전히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으로 인식되는 한계를 표출하였다고 보았다.

1982년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즉 KNCC 제31차 총회에서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가 신설된 것을 중시하고 이를 계기로 화해와 공존으로서의 ‘민족적 자주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후를 4기로 분류하였는데 특히 1984년 10월에 일본 도잔소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에서 ‘도잔소 선언’을 발표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확인하면서 통일운동의 주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198년의 KNCC선언을 통해 이전의 성공적 통일론에 대한 반성이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원칙이 기독교계의 통일론으로 정립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KNCC가 발표한 통일론은 7.4공동성명의 내용과 사실상 유사한 것으로 7.4공동성명이 교회의 통일론에 끼친 영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계의 통일론이 반공, 분단의식의 고착화를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는 점, 북한교회와의 직접적 교류를 시도하여 화해중재자로 교회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수진영의 통일논의에 대해서는 ‘북한선교’를 우선시하는 선교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0. 연구의의

1980년대에 특히 부각되었던 통일운동에 대하여 도잔소회의를 그 시작으로 보는 등 기존의 연구성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보수적 기독교계에서의 북한선교를 비판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1. 제목: 「한국교회 남북통일운동의 흐름」

2. 저자: 문은배

3. 발행연도: 2001년

4. 쪽수: 14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장로회 신학대학교

7.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한국교회 통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개관

- A. 해방이후 50년대- 북진통일론
- B. 60년대와 70년대- 통일운동의 태동
- C. 80년대- 세계교회와의 연대와 남북교회의 만남
 - 1. 해외거주 한국인들의 통일노력
 - 2. 세계교회와의 연대적 통일운동
 - 3. 한국교회의 자체적 통일운동
- D. 1990년대- 기독교통일운동의 다원화
 - 1. KNCC를 중심으로 한 진보측의 통일운동의 흐름
 - 2. 보수측 통일운동의 흐름

III. 통일운동의 제유형

- A. 남북교회의 만남과 교류
 - 1. 남북교회 만남의 배경
 - 2. 남북교회 만남의 유형
 - 3. 남북교회 교류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경향
- B. 성명서 내지 선언문
 - 1. 7.4공동성명에 대한 성명서
 - 2. 북과 해외 기독교자들의 공동성명
 - 3.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 4. 글리온선언
 - 5. 1995평화와 통일의 회년 선언

C. 그 외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

IV. 통일운동과 에큐메니칼운동

- A. 진보와 보수의 연대
 - 1. 역사적 개관
 - 2. 보수와 진보간의 연대 방향성
- B. 비정부 민간기구와의 연대
 - 1. NGO의 기능과 역할

2. 한국 비정부기구의 현황과 과제

3. 통일운동에 있어서 교회와 NGO간의 연대 가능성

C. 정부통일정책과의 관계

1. 정부통일정책에 대한 역사적 개관

2. 정부 통일정책과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방향

V. 나가는 말

8. 연구목적

한국교회의 통일노력이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자극하고 정부의 통일의지나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북과 해외 기독교자들의 공동성명」,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글리온선언」, 「1995평화와 통일의 회년 선언」등을 그 예로 나열한 논문이다.

9. 연구내용

먼저 II 장에서는 한국교회가 진행시켜온 통일운동에 대한 개관을 시도하였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통일운동과 세계교회와의 협조 하에서 이루어진 운동, 한국교회 자체의 통일운동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해외거주 동포들에 의해 이루어진 교회 통일운동으로 1982년 12월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간의 대화」를 예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교회와의 협조에 의한 통일 운동으로는 1981년에 개최된 「韓獨교회협의회」 등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한국교회 자체의 통일운동을 개관한 부분에서는 주로 KNC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움직임을 나열하고 있는데, 1983년의 「통일문제협의회」개최, 1984년에 이루어진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 1989년의 '평화통일공동기도주일' 등이 그 예이다.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 경과를 서술하였다.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에 대한 서술의 마지막 부분에서 KNCC의 운동에 대해 개괄하였다. KNCC의 운동에 대해서는 1995년까지 '평화통일회년'을 준비하는 행사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면 그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III 장은 남북교회의 교류, 각종 통일관련 선언문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교회의 교류로 1986년에 스위스 글리온에서 이루어진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국제협의회」를 중시하고 이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해 그 경과와 당시 발표된 선언문의 본문을 싣고 있다. 이외에도 1992년 동경에서 열린 남북교회 간의 모임을 소개하는 등 남북교회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류움직임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들 회의에 대한 역사적, 정치외교학적 분석이 본문에서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이들 교류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경향을 정리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 교류를 서방과의 관계개선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점, 각 회의마다 토론된 주제가 다르다는 점, 북한대표들이 제시하는 의제가 대부분 정치문제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마지막 IV장에서는 통일운동을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환으로 삼을 수 있을지의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통일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진보적 교단과 보수적 교단의 교류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교회와 NGO간의 교류도 서술하고 있다.

1. 제목: 「통일을 향한 교회의 이데올로기 전환」

2. 저자: 조영호

3. 발행연도: 1996년

4. 쪽수: 90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7. 목차

I. 머리말

II. 개신교 형성과정에서 파생된 교회의 이데올로기 성격

1. 선교사들의 내한 배경
2. 기독교 수용과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교회의 이데올로기 성격
3. 선교사들의 선교정책과 활동에서 형성된 교회의 이데올로기 성격

III. 북한 교회의 이데올로기 성격

1. 해방 직후 북한교회의 이데올로기
2. 북한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북한교회의 이데올로기 성격

IV. 통일을 향한 남북교회의 이데올로기 성격 변화

1.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이데올로기 변화
2. 남한교회의 통일운동과 통일논의

V. 민족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회일치운동과 통일희년운동

1. 민족교회와 교회일치운동

2. 통일희년운동

VI. 맺는말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북한 정치지형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독교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기독교의 신앙실천형태들이 유지되는 상황과 요인들을 규명하고 있다. 이는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북한 기독교를 설명하던 두 가지 주장, 즉 북한정권의 강압적인 탄압의 결과로 북한 내 교회와 기독교인이 소멸했다는 강제적 소멸론과 북한교회는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 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견해를 반박하는 논거이다. 이에 따라 북한 정치지형과 그에 따른 북한 기독교 지형의 유동 및 이데올로기 형성의 전환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민족교회 형성이라는 당위성 아래 북한교회와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남한교회의 교파주의적 분열주의적 모습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시도로서 교회일치 운동과 통일희년 운동을 정리하고 있다.

9. 연구내용

2장에서는 선교사들의 내한 배경과 종교성 선교정책과 활동을 살펴보고, 민족교회로의 모색을 시도하는 피선교지 기층 민중과 선교사들의 갈등 괴리 등으로 파생된 교회의 이데올로기를 고찰하였다. 이는 교파주의를 양산한 교회의 이데올로기 형성의 원인을 선교사들의 근본주의적 종교성과 신학, 그들의 종교적 지배욕에서 파생한 선교정책과 활동 등을 통해 서술한 것이다.

3장에서는 해방 전후 북한에서의 교회지형, 북한 정치지형의 유동화에 따른 교회의 자기 모색과 대응 등을 서술함으로써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신앙실천형태와 교회형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방 당시 북한교회는 실제로 '탈제국주의적인 신앙형태와 신학 창출'이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혁명 과정에서 소외되고 혁명대상으로 규정된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이러한 요구들은 실현될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 기독교는 상부의 통일전선 참여형식과 하부의 소규모 가정신앙형태로 존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남북교회의 통일을 향한 노력과 모색을 정리하고, 특히 북한 내에서의 기

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남한교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향한 실천적 노력과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어 5장에서는 민족통일과 평화수립이라는 과제 앞에 교회의 자기반성의 일환으로서 교회일치운동과 통일을 향한 구체적 지향으로서의 통일희년 운동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과제와 전망을 서술하고 있다.

1. 제목: 「분단에 대처하는 한국 교회: 1945년-1989년까지의 통일논의를 중심으로」

2. 저자: 최우성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9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감리교신학대

7. 목차

I. 서론

II. 민족분단과 기독교

1. 민족의 운명과 기독교
2. 민족 분단의 원인
3. 제국주의 국가들의 한반도 분할 계획

III. 분단에 대처하는 기독교

1. 해방과 분단을 맞이한 기독교
2. 6.25전쟁과 기독교
3. 60년대의 분단 상황과 기독교
4. 70년대의 분단 상황과 기독교
5. 80년대의 분단 상황과 기독교

IV. 결론 - 요약과 앞으로의 과제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분단상황에서 전개된 정치적 변동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대응을 살펴보고 있는데, 연대별 · 사건별로 교회가 분단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9. 연구내용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 기독교는 분단에 기여하면서 반민족적 입장을 고수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결탁했던 경험과 교조적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민족운동에서 이탈함으로써 해방에 동참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 등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즉 1920년대 이후 기독교 민족운동은 적극적인 민족해방운동 대열에서 탈락한 비참여세력이었으며, 일제의 말살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단세력들은 일제정책에 굴복하였고 교단도 친일화 하여 제국주의 추종의 종교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역사적 전통은 해방 이후 기독교가 반민족적·반민중적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미국이 제시한 분단에 찬성하고 반공이데올로기의 파수대 역할을 하게 된 원인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독교도들은 민족독립에 대한 신념을 철저히 갖지 못한 채 해방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어진 것으로만 여기면서 해방과 분단의 와중에서 자기반성을 하지 못했던 점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한지역의 기독교는 기독교국가로 표방하는 미국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고, 미군의 진주와 통치를 교회 부흥을 위한 단초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교단과 교회지도자들은 미군정의 협조자로 나섰고 남한지역의 교회는 친미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정치집단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과 1950년대에 한국 기독교는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는데, 전쟁 중에는 의용군 모집, 선무공장대원 파견 등 전쟁 지원활동을 펼쳤으며 북진통일지원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도 한국교회의 흐름은 강력한 반공노선으로 흘렀으나 4·19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분단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문제가 기독교에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950년대에 비추어 1960년대의 기독교운동은 공산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대결논리를 피하는 동시에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방법으로서 기독교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위성을 사회적으로 실현시키는 데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즉 분단극복을 위한 실제적인 접근보다는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공산세력과 투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권세력에 의해 독점 통제되었던 통일논의는 1970년대에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 대화의 성립을 전후로 하여 기독교인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한적이거나 가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 기독교는 반공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사회정의 실현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기독교는 남한에 인권과 사회정의가 이루

어지는 민주주의가 구축되는 것을 통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평화적 대결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인권선교와 민중선교의 전개 등은 남한 내부문제의 극복을 통하여 통일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기독교의 염원이 1970년대 맥락에서 표출된 방식이라고 파악하였다.

10. 연구의의

기독교가 통일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내에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해나갔는데 이들 기독교인들은 분단극복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제목: 「남북한 교회의 만남의 역사와 전망」. 『기독교사상』91년 8월

2. 저자: 강문규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8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1. 시작하는 말
2. 남북교회의 만남
3. 앞으로의 교류와 통일운동
4. 맺는 말

8. 연구목적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분단이라는 남북대결구도 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후 교회의 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이를 밝히기 위하여 작성된 글로서, 교회가 마련해간 통일운동의 근거와 전략을 간략히 소개한 글이다. 전체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한국교회가 통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를 필자 나름대로 소개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저자는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의 당위성을 인식한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 도잔소에서 1984년 10월에 개최된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정의협의회'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도잔소회의에서는 남북분단이 처음으로 '갈등구조 하에 있는 국가간의 문제'로 지적되고 양자 사이의 교류와 화해가 '선교사업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는 결국 노태우 정권 하에서 발표된 7·7성명 등 정부차원의 통일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도잔소회의와 함께 통일운동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1988년 11월에 개최된 글리온회의를 들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남북의 기독교 대표가 모여 처음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그 후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이어져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았다고 진단하였다.

후반부에서는 남북교회가 앞으로 진전시켜야 할 통일운동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운동의 과제는 동구권의 변화가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처하는 것, 남북한 교회의 교류방안 마련,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구조적 모양새를 마련해야 하는 것 등이다.

1. 제목: 「남북교회의 만남과 앞으로의 과제」. 『기사연 무크』3

2. 저자: 강문규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17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7. 목차

I. 시작하는 말

II. 남북교회의 만남의 역사

1. 도잔소협의회

2. 한국기독교협의회 평화통일선언

3. 글리온 선언

III. 90년대의 과제와 교회의 역할

1. 남북교류의 당면과제
2. 군축, 군비통제의 촉진운동
3. 통일국가에 대한 구조적 모색

Ⅳ. 맺는말

8. 연구목적

이 글은 1980년대 한국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과 남북기독교계의 만남을 간략하게 평가함으로써 1990년대 기독교통일운동의 과제를 도출한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전체 본문은 1980년대 통일운동을 간략히 정리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화통일선언'에 대해 서술한 부분과 군축운동 등 90년대에 새로이 전개해나갈 통일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계의 통일운동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한국교회협의회가 발표한 「남북기독교의 평화통일을 향한 공동선언문」과 '통일희년' 선포의 과정 등을 담고 있다. 기독교계가 주도한 통일운동의 성격은 '평화통일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글은 평화통일을 위한 90년대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쓰인 것이다. 이하 본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 연구내용

통일운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남북 양자간의 교류와 이해의 증진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계는 남북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펼쳐왔는데 특히 80년대에 이루어진 남북교회간의 중요한 교류 및 통일운동의 주요계기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도잔소협의회 - 이 회의는 세계교회협의회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협의회'라는 이름으로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개최한 회의이다.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의 민간인교류로서 의미를 지니며 대북고립정책의 지양을 주장한 점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화통일선언 - 1988년 한국교회협의회 제37차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으로서 7·4공동성명의 3대 원칙에 인도주의,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의 참여보장을 추가하여 통일5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5원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평화협정체결, 군축, 외국군대 철수 등을 제시하였다.
- 3) 글리온 선언 - 스위스 글리온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7원칙을 채택하였다. 7원칙은 1995년을 평화통일 '희년'으로 선포할 것,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채택, 불가침선언, 이산가족 재회, 남북교류의 교류통로 확보 등이다.

80년대의 기독교 통일운동은 통일논의의 저변을 확산시킨 점, 민간차원 남북교류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통일논의의 공개, 북한 관계 자료의 공개, 남북교류의 개방과 활성화를 주로 주장하여왔는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츰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고 남북간의 교류도 시작되는 분위기이다. 이에 기독교 통일운동은 새로운 모습으로 일층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시기를 맞았다. 기독교통일운동은 평화와 교류를 더욱 진전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 군비통제의 촉진운동전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과 남한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공통점이 중간단계의 설정과 상호교류에 있음을 깨닫고 민간차원에서 이를 더욱 승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제목: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평가와 제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자료집』

2. 저자: 김상근

3. 발행연도: 2000년

4. 쪽수: 9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기독교장로회

7. 목차

1. 기독교평화통일운동의 신앙적 의미

2. 기독교평화통일운동의 흐름과 현재적 의미

1)88선언을 중심으로

2)95년 통일희년을 중심으로

3)95년 희년 이후 북녘동포돕기 운동을 중심으로

3.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평가와 제언

8. 연구목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발간한 『한국교회평화통일운동자료집』의 서문에 해당되는 글로서 1980년대이래 활발하였던 기독교통일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9. 연구내용

통일에 대한 논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있던 1980년대 기독교가 통일과 화해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고 실천하였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원인으로 1)통일에 대한 관심이 신앙의 문제와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등장한 점 2)그리스도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필자는 80년대 이후 이 같은 인식에 기반 하여 활발하였던 통일운동을 크게 세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81년부터 1988년 2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이 발표된 시기까지이며 두 번째 시기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로 나누었다. 두 번째 시기는 ‘통일희년’이라는 통일운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한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북한동포의 어려움을 도우려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하였던 시기이다.

필자에 의하면 기독교회의 통일운동은 1981년 서울에서 열린 한독교교회협의회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분단된 나라의 통일이 교회의 과제라는 인식이 대두하였다고 한다. 이어 1984년 10월 일본 도잔소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주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에 관한 협의회’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은 복음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북한교회와의 접촉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 결정이 이후 통일운동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일본 도잔소에서 열린 회의는 1)정의와 평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2)남북교회 간의 만남과 대화가 통일운동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는데 이 점에서 이후 통일운동의 중요한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 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1986년 스위스 클리온에서 남북교회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필자는 평가하였다.

한편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이 선언은 민간에 의하여 이룩된 본격적인 통일선언으로 민간통일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지적이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88년의 '기독교회 선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필자는 지적하고 있다. 88년의 '기독교회 선언'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인도주의, 민중참여를 통일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하였다. 필자는 이 같은 '기독교회선언'이 금기시되었던 통일논의를 민중의 차원으로 끌어들이어 활성화하였으며 '평화와 통일'이라는 남북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와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한 기념비적 사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때인 1988년부터 1995년 사이는 1995년의 통일회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고 평가된다. 1990년 스위스 글리온에서는 1986년과 1988년에 이어 세 번째로 회의가 열렸는데 이 모임에서 '회년'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사업 5개년 계획에 합의하였다. 이 회의는 남북이 통일을 위하여 에큐메니컬 연대를 하기로 합의한 점에서 남북교회의 이해와 연대를 굳건히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필자는 보았다. 이 글에 의하면 회년을 이루기 위한 기독교회의 노력은 1993년에 이루어진 남북인간띠잇기대회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1995년 8월 15일에는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 원칙은 '함께 사는 통일, 서로 배우며 닮는 통일, 새롭게 만드는 통일'을 내세운 것으로서 두 체제의 공존과 번영을 보장하려 한 점에서 현실성을 띤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사실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대두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남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95년도 회년선언에서는 이를 '공생적 통일'이라는 표현으로 지향하고자 하였고 이 점에서 남북한간의 공생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텃다는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1995년 회년운동은 사실 뚜렷한 성과 없이 지나갔다고 지적하고 이후의 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색이 1996년부터 있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1996년 마카오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나눔과 연대회의'가 그 같은 모색의 일환이었으며 북한의 식량난이 주된 관심사였다고 필자는 말하였다. 마카오회의는 북한주민의 현실적인 필요를 한국교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북한동포돕기운동이 본격적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한편 필자는 1995년 이후 통일운동의 특징으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꼽음과 동시에 6·25전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6월 25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의 역사를 이루는 날로 선포하고 '평화대행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다

는 점이 특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교회 즉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고 국민대중에게 이를 알리려는 노력으로 표면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기독교계의 통일운동을 세시기로 나누어 설명한 것은 기독교통일운동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1995년 회년운동의 구체적인 양상과 이것이 큰 성과 없이 끝난 원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 기독교통일운동에 대해서는 그 기층적 기반이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있지만 대중적 지지와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향후 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1995년 이후 기독교계의 통일운동이 어떠한 논리와 배경을 지니고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제목: 「민족분단 속의 한국기독교」, 『한국사회와 기독교』

2. 저자: 김용복

3. 발행연도: 1984년

4. 쪽수: 43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 목차

1. 8·15이후 공산세력예의 항거와 수난
2. 6·25사변과 기독교
3. 60년대의 분단상황과 기독교의 대응
4. 7·4공동성명과 기독교의 대응

8. 연구목적

1945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기독교가 민족의 분단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분단상황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을 그 윤곽이나마 그

려보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필자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글의 말미에 통일신학의 성격을 간략하나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학 수립을 위한 모색으로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자는 7·4공동성명이 기독교의 현실인식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기독교통일운동의 기원을 서술하고 있다.

9. 연구내용

필자는 한국기독교가 지향하는 통일운동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확립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을 포함한 화해, 평화의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글의 구성은 분단 이후 기독교계가 공산주의의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행보를 보인 과정을 서술한 후 7·4공동성명 발표 이후 제기된 통일논의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북한지역의 기독교인들은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독립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점차 배제하였고, 뿐만 아니라 평양장대현교회사건, 일요일선거문제 등에서 보듯이 기독교에 탄압을 공공연히 행하였다. 이에 북한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들에 의하여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와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라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승만 정권기와 60년대에도 지속되어 ‘북진통일기원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공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될 당시 기독교계는 함석헌·한경직·전택부·강원룡 등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며 약간의 우려를 표명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천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이루고 이로써 한반도통일을 위한 역량을 기르자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박형규는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에 교회가 그 역량을 집중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입장이 기독교사회운동에 주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다.

7·4공동성명은 한국기독교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한국기독교는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이 최근에 발표된 주재용의 ‘통일의 신학’에 담겨져 있다. 그는 통일신학이 평화와 일치, 만남을 핵심요소로 삼아야 하며 남북간의 공존공생적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나아가 민족통일은 민중적 관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중

신학적 관점으로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통일논의는 평화와 만남을 주장하고 민주적인 합의과정을 중시하면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제목: 『한국교회의 통일운동 역사에 대한 재검토』. 『기사연 무크』 3

2. 저자: 김홍수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15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7. 목차

Ⅰ. 머리말

Ⅱ. 해방직후의 통일논의

Ⅲ. 복진통일론의 전개

Ⅳ. 통일을 위한 기반형성 · 자유와 사회정의의 실현

Ⅴ. 1980년대의 새로운 차원의 통일운동

Ⅵ. 맺는말

8. 연구목적

이 글은 서문에서 1945년이래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지만 자유롭고 심도 깊은 논의가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한 후, 교회 내에서는 통일보다 반공활동을 교회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봉사라고 인식하는 측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동의나 반대를 표하기 위해 먼저 분단 이후 40년간의 민족통일 논의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9. 연구내용

해방 직후 남한교회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미군정과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김창준, 김재준과 같이 통일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창준은 1947년 기독교민주동맹을 창설하면서 “기독교의 본래정신은 일부 특권계급의 이익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인민적

이요 평화적이요 정의감이 굳센 곳에 있다”고 말하여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가 기독교 정신에 부합된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이후 “경제적 공평이 없는 곳에 정치적 평등과 세계평화는 없다”고 하면서 좌편향적인 통일운동을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김재준은 공산주의의 철학적 근거가 유물론에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착취당하는 대중의 생활향상과 인간적 존귀를 위하여 경제와 정치기구의 개혁을 향하려는 노력은 비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즉 그는 공산주의에 대해 우려와 긍정을 동시에 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창준과 김재준의 예를 제외한다면 해방직후 기독교지도자들은 대개 공산주의를 ‘악마의 화신’으로 비유하며 반공을 사회적인 과제로 채택하였다. 후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된 조선기독교연합회는 1949년에 10여만 명을 동원해 반공기독교결기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전쟁 중에도 그대로 이어져 북진통일론, 휴전반대운동에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 이후에도 남한교회의 통일방안은 반공노선으로 흘렀다. 남한교회의 반공적인 성격은 1968년 스웨덴 옘살라에서 개최된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대회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 대회가 월남전 반대와 중국의 유엔가입 촉구 및 미국·한국·뉴질랜드 등 월남전쟁 가담국에 대한 비난성명을 채택했다는 소식에 남한교회 전체가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거치면서 남한사회의 자유와 사회정의의 구현을 반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무조건적인 반공주장은 점차 잠잠해져가게 된다.

60년대 이후 통일문제를 ‘감정적인 견지’에서 ‘현실적인 견지’로 달리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은 홍현설에 의하여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공산주의를 무신론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상증은 이러한 입장을 더욱 진전시켜 “전쟁주의적인 남북통일론이나 반공보다는 평화공존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평화공존을 역설하고 교회혁신을 통해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나아가 남한교회가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여 왔다고 말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교회가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도 언급하였다. 교회가 민중의 경제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을 통해 평화공존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70년대에도 이어졌다. 박형규와 같은 이는 교회의 자기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제기하고, 자본주의의 악에 대하여 관용적인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부조리를 청산하지 못한 교회는 이북 땅에 발을 디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개혁, 사회개혁이 곧 통일의 전제가 된다는 인식을 구체화 해갔다.

60년대 이후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대결논리에서 벗어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도 공산주의와의 '평화적 대결'을 전제한 점에서는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었다. 또 통일이 민주화가 선행된 후 차후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회기구 전체가 통일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미 1978년에 문익환은 '민주회복과 통일운동'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하나의 문제라는 시각을 보였다. 이러한 견해는 김관석에게도 이어졌는데, 그는 민주화와 통일문제의 주체를 민중으로 상정하면서 민중의 참여가 전제된 통일운동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민중을 통일운동의 주체로 본 것은 이 시기 통일운동의 진전된 측면이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주요 기독교운동가들의 주장을 고찰하면서 80년대 기독교민주화운동이 통일운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민주화운동이 통일운동과 동일한 기반을 가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운동을 민중적인 기초 위에서 전개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당시 기독교민주화운동세력이 민중적인 기초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다.

1. 제목: 「평화통일신학의 쟁점과 전망」, 『목회와 신학』

2. 저자: 박종화

3. 발행연도: 1993년 1월

4. 쪽수: 9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목회와 신학사

7.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분단극복과 통일의 동시성
3. 통일신학은 평화신학을 지향한다.
4. 평화통일신학의 당면과제

8. 연구목적

통일은 민족의 과제이지만 이를 지향할 때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작성된 글이다. 정신적인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만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목표이며 기독교의 통일신학도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대체적인 주장이자 논지 전개 목적이다.

9. 연구내용

본문에 의하면 통일에는 외면적 통일과 내면적인 통일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중간 단계를 설정함 없이 이루어지는 급박한 통일을 ‘외면적 통일’이라고 상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일은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공존과 교류, 협력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통일지향의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볼 때 평화는 통일을 성취하는 방법이며 당면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필자는 ‘외면적 통일’에 대한 대안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논지를 맺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한국교회에서 수립되어 가는 통일신학은 평화문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신학’은 냉전체제적 분단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현실비판에서 그 출발점을 찾고, ‘휴전상태’ 종식을 목표로 삼아 ‘평화협정’ 수립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7·4공동성명 직후 기독교계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관심사이다. ‘평화통일’은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 민중들간의 합의에 의한 교류와 협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향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1. 제목: 「평화를 위한 통일의 신학」. 『기독교사상』 90년 1월

2. 저자: 손규태

3. 발행연도: 1990년

4. 쪽수: 14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1. 해방 후 남북한 교회의 통일 염원
2. 4.19학생혁명과 통일논의
3. 7.4공동성명 이후의 통일논의
4. 한국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통일 노력들
5. 결론

8. 연구목적

필자에 의하면 기존의 통일논의에서는 평화통일을 논의하면서도 평화보다는 ‘통일’을 더욱 강조하고 ‘평화’를 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평화’를 중시하는 시점으로 다시 통일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는 과정을 약술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9. 연구내용

4.19 혁명 직후 학생들은 남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선거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원용, 조향록 등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같은 통일방안이 결국 북한에 의해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반대하였다. 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신년메시지에서 ‘평화통일의 역사적 필연성’을 언급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독교계에서는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이었지 본격적인 운동의 차원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즉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고 있었지만 교회는 70년대 초까지 이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70년 12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였던 김관석은 『기독교사상』에 기고한 글에서 통일은 단순한 실지회복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평화정착이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최초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7.4공동성명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문익환은 ‘남북통일의 신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일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시하였다. 80년대에 들어와 주재용이 ‘통일신학’을 제창하면서 평화의 개념이 성경적인 보편개념으로 상정되었고 이에 평화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 사회운동은 통일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70년대의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분단의 모순으로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기독교사회운동 세력은 과거 운동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民’이 주체가 되는 통일운동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民’에 의한 남북교류와 화해를 원칙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평화통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시대성을 부각시키려고 한 점에서 80년대에 들어와 제기된 ‘통일신학’의 관심 위에 기반 해 작성된 글임을 알 수 있다. ‘통일신학’이 통일을 평화, 자유 등의 보편적이자 성서적인 개념을 통해 이상화하여 ‘평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글은 80년대를 일관한 이러한 통일운동을 재평가하고 90년대에 남북의 민간 사이에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평화, 화해를 구체화하자는 주장을 하여 향후 통일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제목: 「기독교 평화통일운동의 평가와 과제」, 『기독교사상』 98년 6월

2. 저자: 안재웅

3. 발행연도: 1998년

4. 쪽수: 11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1. 도전 받고 있는 한반도

2. 남북교회의 통일운동 평가
3. 교회평화통일운동의 방향
4. 교회 통일운동의 지평확대를 위하여

8. 연구목적

21세기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 통일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교회의 통일운동을 평가한 글이다.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으로 역량을 모으게 되는 원인을 밝히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9. 연구내용

한국교회가 남북통일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으로 조직화된 교회대중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와 연대하고 있었다는 점, 선교라는 비정치적 주제를 활용하였다는 점, 기독교관련 언론과 기관을 통해 통일교육을 규모 있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기독교가 통일운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지적함과 아울러 더욱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평화교육'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강화할 것, 나눔 운동과 같은 민족 화해운동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남북한 교회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1. 제목: 「민족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2. 저자: 양성모
3. 발행연도: 1998년
4. 쪽수: 61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7. 목차

I. 서론

II. 남북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저해요인

A. 민족분단의 현실

- B. 민족통일의 저해요인
- III. 민족통일에 대한 선교신학적 논의
 - A. 현대선교신학의 흐름
 - B.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신학
 - C. 민족통일의 선교신학적 의의
- IV. 민족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 A. 동서독의 통일에 대한 독일교회의 역할
 - B. 한국교회의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
 - C. 남북교류의 현황과 전망
- V. 결론

8. 연구목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통일에 대비하며,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성서적인 통일방안을 연구하여 교회가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글을 쓴 저자의 관심사항이다. 북한에 대한 선교이론을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서 모두 논하고 양자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다. 2장에서는 주로 분단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3장에서 이론적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하 3장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해보도록 한다.

9. 연구내용

필자에 의하면 한국의 교회는 분단상황에 대하여 합일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는 해방 이후 교단분열이 지속되었고, 이와 동시에 교회 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첨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립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통일문제인데 대체로 진보측은 ‘통일 우선의 선교’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측에서는 ‘복음통일선교’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 같은 대립을 세계신학의 양대 주류인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신학의 대립이 연장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조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진보측에서는 민족통일을 절대적인 가치로 승격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통일은 하나님나라의 확장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생활양식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보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독일교회의 예를 들어 교회가

통일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화해자'로서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교회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하였다.

물론 한국교회는 1980년대에 들어와 이전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매진하였다는 것이 이 글의 진단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80년대 이래 KNCC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운동 뿐만 아니라 '기독교사회운동연합'에 의한 평화군축운동,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제기된 통일운동, 보수적 흐름인 복음주의권의 통일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실제로 현재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기독교내 단체는 16개에 이를 정도로 수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필자는 수적인 증가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즉 보수측에서는 대개 '복음전도'의 측면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선교의 개념은 민족통일을 위한 학문활동과 연구, 운동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복음전도보다는 당장의 교류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통일에 대한 기독교 내부의 시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설명한 것에서 일면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이 미래지향적인 것으로서 민주화운동 및 통일운동의 의의를 밝히는 데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내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70년대의 민주화운동이 80년대로 이어지면서 확대되어 가는 연속선상에 통일운동이 위치해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이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 양자의 통합과 화해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1. 제목: 「한국교회와 희년운동」. 『교회와 세계』 109

2. 저자: 이재정

3. 발행연도: 1992년

4. 쪽수: 15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교회와 세계사

7. 목차

1. 시작하는 말
2. 글리온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와 그 결과
3. 회년운동의 목표와 과제
4. 회년운동과 교회의 사명
5. 결론

8. 연구목적

이 글은 한국교회가 1995년 선포하기로 예정한 ‘통일회년운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84년 세계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일본 도잔소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협의회’ 부터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동구의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흡수통일방안’이 등장하였는데 그 부정적인 측면을 밝히고 폭넓은 화해운동으로서 통일운동이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은 기독교통일운동의 연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9. 연구내용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남북의 교회대표들은 1)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할 것 2)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갱신운동을 전개할 것 3)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시행할 것 4)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 5)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운동을 지속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1995년까지 남북교회가 감당할 공동사업을 계획하여 1)공동기도문작성 2)남북교회에 통일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할 것 3) ‘팀스피리트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지를 위해 노력할 것 4)통일운동가로서 투옥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 5)이산가족의 방문을 위해 노력할 것 6)실무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표명하였다.

1995년까지 실시될 회년운동사업은 통일의 5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의 자주권 회복, 평화지향, 민족의 연합지향, 인도주의의 확산, 민중의 민주적 정치 참여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회년운동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여 남과 북 사이의 관계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자는 운동이다. 한국교회는 사실상 ‘서구교회’의 복사판으로서 물량주의, 교회중심주의, 반공주의를 답습하고 있다. 회년운동은 서구지향적인 신앙관이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 하에 한국적인 신앙의 정립

과 자본의 논리를 폐기한 평등사회지향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로써 평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이루고자 한다. 희년운동은 단순한 통일의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의 확립과 이를 통한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는 근본적인 변혁운동이어야 한다.

10. 연구의의

희년운동을 통한 기독교세력의 통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바를 필자의 관점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교계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제목: 「한국기독교와 통일운동」. 『한국기독교사연구』

2. 저자: 이만열

3. 발행연도: 2001년

4. 쪽수: 41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7. 목차

1. 선교와 그 정책
2. 교회성장과 반성
3. 단군문제와 기독교
4. 교회와 통일운동

8. 연구목적

이 글이 수록된 『한국기독교사연구』는 전체 5부분으로 나누어 한국기독교의 전래와 그 발전, 최근의 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역할을 해온 면을 평가한 글이다. 특히 네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교회와 통일운동’은 교회의 통일운동을 통해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민족문제인식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바로잡고 나아가 기독교통일운동을 반성한다는 목적 하에 작성된 것이다. 이하 네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글을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연구내용

한국기독교는 해방 전부터 사회주의와 긴장관계에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적인 논설과 시위는 1920년대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극이 되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도 1932년 사회신조를 통하여 여기에 대응하고 있었다. 해방 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북한진주와 일찍부터 선교사를 한국에 파견한 바 있는 미국의 남한진주는 해방정국의 사회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미 양측에 갈등의 불씨를 안겼다. 6·25 이전부터 공산주의자들에게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전후하여 남하해 반공전선을 구축하였다. 해방 후의 기독교계 인사들 중에는 좌우합작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승만 정권의 등장과 6·25 이후 승공통일론이 주류를 이룸으로 인해 결국 기독교세력은 분단고착화세력으로 비쳐지게 되었다.

4·19와 5·16은 한국기독교계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군사정권에 의한 민주주의의 시련은 이승만 정권의 불법선거를 목인, 동조했던 기독교에 냉엄한 반성과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었다. 60년대에 들어서서 기독교가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민족문제에 접근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은 안보를 중시하는 ‘안보론’과 마찰을 일으켰다. 권력자들은 안보라는 미명하에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여기서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은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었으며,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운동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계는 ‘민주화를 통한 통일과 통일을 목표로 하는 민주화’를 운동론으로 수용하였다. 이것은 곧 민주화 없는 통일, 통일 없는 민주화를 배격한다는 의미를 띤 것이었다. 이러한 운동론은 유신정권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자리잡혀 갔고 80년대에는 기독교계의 일부에서 이미 운동화단계로 고양되었다.

기독교계의 통일운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신학계의 조류와도 관련이 있다. 서광선이 통일운동의 이념적인 배경인 통일신학을 “한국의 통일신학은 민중신학의 맥락에서 형성되고 선교신학의 실천적 과제로 행동화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통일운동이 위치해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점에서 적절한 지적이었다. 한국기독교계의 통일신학은 사실상 ‘하느님의 선교신학’과 ‘민중신학’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중이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통일운동의 주체론이 민중신학과 연관되어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80년대에 사회참여에 적극성을 보이다가 90년대에는 통일운동에 뛰어든 복음주의적

인 보수교단의 신학적 배경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주목할 것은 74년에 제정되어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참여에 근거로 작용한 ‘로잔언약’이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기존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의식화’ 시킨 점이다. 90년대의 기독교는 사회참여에 대해 대체로 일치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시기에 비하여 독특하게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될 때까지만 하여도 기독교계는 반공논리에 싸여 있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면 KNCC통일선언(1988년)이 발표되는 등 통일운동에 본격적인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KNCC선언은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에 수용되는 등 많은 영향을 끼쳤다. 80년대 후반의 기독교통일운동은 사회전반의 통일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창구단일화’의 논리로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기독교통일운동은 민간의 통일운동으로서 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각종부문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여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10. 연구의의

기독교사회운동의 연혁을 1950,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면서 역사적인 연원을 추적한 점이 특징적이다. 통일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분단의 상황을 전후로 한 사회적 사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농민, 노동운동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하여 이해할 경우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 지니는 역사적인 연원도 더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신학 및 이론적인 연원도 추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근원과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1. 제목: 「한국 기독교와 통일운동-교회협의회 선언의 입장과 배경」.

『기독교사상』 88년 7월

2. 저자: 이삼열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17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1. 통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새로운 인식
2. 분단체제와 기독교에 대한 자기반성
3. 민족통일의 5원칙과 실천과제

8. 연구목적

19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선언”이 가지는 의미와 그 배경, 실천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글로서 모두 3부분으로 나누어 통일운동의 당위성 및 방향을 논하고 있다.

9. 연구내용

먼저 ‘통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새로운 인식’ 부분에서 통일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을 논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70년대 민주화운동의 와중에서도 기독교가 통일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으며, 급진적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통일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 광주 학살사건을 겪게 되면서 ‘진정한 민주화’가 안보라고 하는 논리에 의해 억압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진정한 민주화’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 언제나 하위논리로 위치 지워지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 70년대와 달리 이후부터는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하나의 운동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보았다.

한편, 선교의 차원에서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이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일을 선교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80년대에 들어와 새로이 등장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선교’라 함은 사회선교적 측면이 강한 이른바 ‘총체적 선교’의 속성을 띠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단체제와 기독교에 대한 자기반성’에서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신학적 반성, 과학적 이해방식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하고 분단체제보다 통일을 우선시하는 관점을 가질 것을 설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80년대에 들어 새롭게 대두한 직후, 분단을 한국사회 제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발상이 싹트고 이를 기독교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점들이 반성되기 시작하였다. 남북 양측도 7.4공동성명 이후 대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리듯이 주장의 대립이 심한데,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

는 데에 기독교인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서 자주의 원칙, 평화 우선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 민주적 참여의 원칙, 인도주의의 원칙을 내세우는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의 선언문이 채택되었다고 밝힌 다음 '민족통일의 5원칙과 실천과제' 부분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본격적인 분석을 가한 연구논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로 통일운동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글이다. 그러나 80년대에 기독교 민주화운동이 '민주화'에서 '통일'로 주된 관심이 이행하는 시점에서 발표된 '민족통일5원칙'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1. 제목: 「80년대 한국기독교운동과 민족민주운동」. 『기사연 무크』1

2. 저자: 임진철

3. 발행연도: 1990년

4. 쪽수: 22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7. 목차

1. 머리말

2. 평가의 관점과 기준

3. 80년대 한국기독교운동의 현황과 전개과정

1) 한국기독교운동의 주체역량의 범주와 현황

2) 80년대 한국기독교운동의 전개과정

4. 80년대 기독교운동에 대한 평가, 향후과제 그리고 방향성

1) 사상이념적 측면

2) 투쟁의 측면

3) 조직적 측면

4) 연대운동적 측면

5) 운동주체 형성의 측면

6) 한국교회 변혁과 새로운 민족민주교회 건설의 측면

5. 맺음말

8. 연구목적

80년대는 사회변혁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변혁의 과제가 분명해진 시기라는 전제하에서 이 시기 기독교운동의 발전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 하여 90년대 운동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된 글이다. 기독교운동이 대중노선을 충분히 구현하였는가의 문제와 전체민족민주운동과의 연대에는 충실했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운동을 평가하였다. 이하 본문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도록 한다.

9. 연구내용

지금까지 기독교운동을 평가할 때 이를 소시민운동으로 규정하거나 전통적인 맑스주의에 기반 하여 그 한계를 논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기독교운동은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전체 운동권과 그 발전과정을 동일하게 밝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독교운동의 주체세력과 목적은 전체 민족민주운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민중을 기반으로 농민, 노동자, 청년학생 각계각층을 포함하는 운동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운동이 가지는 대중성과 기층성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왔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전체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평가와도 맞닿아 있으며, 기독교운동의 한계와 성과를 명확히 밝혀줄 것이다.

보통 기독교운동권이라고 할 때 그 범주는 진보적 지식인과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간계층 중심의 민족교회운동, 노동자·농민·여성 등 계급계층적 대중운동, 지역사회의 민중운동, 민중신학운동으로 대별된다. 기독교운동권은 이와 같이 중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를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면 70년대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헌신한 저명인사 및 공개기구의 운동과 대중노선과 기층민중성을 강조하며 대중조직을 넓혀 가는 젊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민중교회운동을 중심으로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경실련과 같은 대중성을 지향하는 흐름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의식이 낮은 일반서민대중과 소시민 중산층을 묶어내자는 것으로 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80년대 기독교운동의 출발점은 전체 민족민주운동과 더불어 광주민중항쟁에서 주어

지게 된다. 광주민중항쟁으로 열린 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인식의 내용은 1) 소시민적 운동의 극복과 파시즘 권력에 대한 인식 2) 지도조직의 필요성 인식 3) 기층민중의 정치의식화와 이들 역량의 조직화 4) 친미적 세계관의 붕괴 등이다. 이렇게 광주민중항쟁이 제사회운동 세력들에게 심각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듯이 기독교운동권 내에서도 반성이 일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세력화론 대 조건활용론의 대립으로 나타난 기독교운동의 반성은 전자가 주로 특정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를 지향한 반면에 후자는 기독교의 물질, 대중적 토대를 이용하여 기층민중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였다고 평가된다. 즉, 양자간의 대립은 운동의 기반을 일부 지도자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대중성을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70년대 이래 기독교의 민주화운동은 주로 전자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8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이를 비판하고 대중성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성의 확보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문제제기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이는 80년대 중반부터 호헌철폐운동, 6·29선언,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변동이 계속되었고 이에 민주화운동도 당면 정치 상황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독교운동권 내에서 기층성을 둘러싼 논의가 있음과 동시에 80년대 중반 이후 독재정권의 유화책으로 인해 운동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20여 개 이상의 사회단체가 가입한 전국적인 연합체였는데 기독교운동계에서는 농민회총연합회를 제외하고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중대한 오류로서 전체민주민족운동과의 연대를 방기하는 것이었다. 기층민중성을 고민하면서도 전체민주민주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기독교운동권은 다소 위축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공단과 빈민지역에 민중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민중운동의 기층적 토대가 점차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채택되자 민족민주운동권 내에서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이 운동의 성패를 가늠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내부 분열로 빠지게 되었다. 기독교계도 선거운동에 개입함으로써 그러한 오류를 심화시켰다. 결국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자 기독교운동권은 거듭남의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선거 과정에서 대중의 정치적 의식이 향상되었고 89년에는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이 창립되어 기독교운동의 조직적 운동체가 결성될 수 있었다. 기독교사회운동연합의 출현은 기독교운동이 고립분산성과 산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기반은 취약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

과 있는 실천과 힘있는 사업의 진전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볼 때 80년대의 기독교운동은 1) 7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운동에서 한걸음 나아가 사회구성체의 기본성격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민중민주주의를 내세워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점 2) 70년대와 같이 기구 중심의 성명서 발표 수준에서 머무른 선도적 투쟁을 가급적 자제하고 대중중심 투쟁을 전개한 점 3) 지역 중심의 조직을 건설하고자 하였다는 점 4) 기사련과 같은 연대조직이 출현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대중성을 확보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최근 민중교회의 출현과 더불어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향후의 기독교운동은 대중적 구심의 형성을 더욱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0. 연구의의

80년대 기독교민주화운동의 한계와 전망을 정리한 글로서, 여타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하는 문제의 중요성, 지역중심의 조직을 통한 대중성의 확보를 당면과제로 지적한 점은 기독교민주화운동의 진전에 중요한 계기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정치운동 중심의 기존 운동을 민중교회와 같은 기층조직을 통한 지역운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80년대적 상황과 달리 사회적 다원성이 일층 진전된 시대적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기독교사회운동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운동세력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화운동은 시대적 사정이 변화함에 따라 그 활동의 반경 및 성격에서도 일정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이 글은 그러한 변화과정을 포착하고 향후 기독교사회운동 내에서 민중교회와 지역운동단체가 끼칠 영향과 그 의미를 중시하였다는 데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제목 : 「한국교회의 통일론」. 『기독교사상』 81년 6월

2. 저자: 주재용

3. 발행연도: 1981년

4. 쪽수: 11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1. 머리말
2. 남북통일을 위한 제안과 비판
3. 기독교인의 통일논의
4. 통일의 신학
5. 맺는 말

8. 연구목적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제시하고 교회가 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거쳐 온 통일운동의 경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서 작성된 글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등장하고 있던 80년대에 이를 신학적 차원으로 설명하는 ‘통일신학’의 성립을 주창하고 ‘통일신학’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유용성을 논하려는 것이 구체적인 서술 목적이다.

9. 연구내용

한국교회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이미 1961년 2월에 강원룡은 『기독교사상』지를 통해 「남북통일과 우리의 과제」라는 글을 발표하고 기독교계에 ‘恐共症’을 벗어나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반 한 총선거와 사회주의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외에도 김석찬, 김관석, 한철하 등이 70년대 초까지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론을 펼쳤다. 이들 통일론에서 일관하는 방법론은 ‘통일의 신학’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통일의 신학’은 통일의 당위성을 성경적인 논리와 배경으로 설명하는 데에까지는 나가지 못했고 평화를 인류가 추구하는 당위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논한 것이며, 아직까지 기독교 운동세력 전체가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통일의 신학’이란 남북간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은 ‘회개’를 전제로 하여 평화, 화해, 자유, 일치, 만남 등을 성경이 내세우는 보편적 가치로 인식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펼쳐진 기독교의 통일론은 남북교류와 대화를 중시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통일문제를 신학적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통일신학을 구체화하여 현실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10. 연구의의

80년대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에 보다 전념하면서 이전 시기에 비해 신학적, 사상적 측면에서 강화된 측면을 보인다고 할 때, 그 사상적 기반으로 통일신학이 자리잡게 되는데 본 논문은 통일신학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서 선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개신교 사회참여운동의 반성과 전망

1. 제목: 『1960년대 이후 한국기독교운동에 대한 신학적 반성』

2. 저자: 조원경

3. 발행연도: 1985년

4. 쪽수: 103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감리교신학대학

7.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예비적 개념정의

제2장 현대 한국 기독교운동 출발의 배경

제1절 시대적 배경

제2절 신학적 배경

제3장 현대 한국 기독교운동의 출발

제1절 한국 기독교운동의 초기형태들

제2절 기독교운동 초기의 신학적 입장

제4장 현대한국 기독교운동의 발전과 신학적 해석

제1절 한국 기독교운동의 발전 : 사회운동적 성격

제2절 민중신학적 해석

제5장 민중의 새 공동체를 향하여

제1절 현대 한국사회 모순의 제기

제2절 민중민주화운동

제6장 결론

제1절 현대 한국 기독교운동의 자기반성

제2절 민중신학에 대한 평가

제3절 맺는 글

8. 연구목적

기독교계의 민주화운동 및 민중운동을 ‘하느님의 선교’가 현실적합성을 띠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기독교가 사회운동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행한 신학적 자기반성과 운동의 정당성 확보과정을 추적한다는 의도 하에서 작성된 논문이다.

9. 연구내용

2장에서 기독교계가 사회운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계기로 4.19 혁명, 한일협정비준반대운동,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을 들고 있다. 한일협정반대운동에 대해 기독교계가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 일제시기의 신사참배강요 등 역사적 경험을 들고 있는데, 김재준, 함석헌, 강원룡 등을 비롯한 일군의 목사가 중심이 되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세속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1960년대 한국교회가 ‘민족국가 건설과 경제개발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극적 참여 등 현실참여론’을 제기하면서 토착화신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구적 틀을 벗어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신학이 추구되었다고 논하였다.

3장에서는 1968년 대학YMCA와 KSCM이 통합되어 출현한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기존교회의 사회에 대한 무력함을 비판하고 농촌, 산업운동으로 기독교사회운동의 방향을 뚜렷이 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논하고 있다. 사회운동으로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와중에 60년대 후반부터는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전도’에서 노동자 생활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도시산업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 같은 경향이 결국 1970년대 民衆神學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73년 서남동에 의하여 제기된 民衆神學이 1975년 『기독교사상』紙의 지면을 통하여 논쟁이 가열되어 명확한 실체를 띠게 되는 과정을 약술하면서 ‘성서에서 도출한 추상적 원리’로 현실에 다가서는 기존의 방법을 배격하고 역사성을 먼저 고려한 특성이 나타났다고 정리하였다. 나아가 이런 ‘세속화신학’ 또는 ‘현실참여신학’이 기존 교회 내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한 채 ‘기존교회로부터의 이탈현상’이 가속되었다고 진단하였다.

4장에서는 1977년 기독교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예수교 장로회의 청년운동을 통합한 기독교청년협의회가 광주 YMCA에서 발표한 신앙고백을 소개하고 1)민중의 생존권투쟁 지원 2)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정치운동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할 것 3)야학 등을 통한 민중의 각성 등을 본격적으로 지향하여 민중지향성이 심화되었다고 서술하면서 민중에 대한 관심이 세계지배질서의 부조리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기 시작하였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중신학이 ‘民衆’이라는 존재를 추상적으로 규정지은 결과, 추상적인 원칙을 반복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현대 한국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민중신학의 등장과정을 토착화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그것이 결국 민중을 통시대적,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현실성이 점차 적어진다고 파악한 점에 이 논문의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1. 제목: 「한국교회의 민중운동과 민중신학의 미래」. 『기독교사상』

92년 11월

2. 저자: 김명수

3. 발행연도: 1992년

4. 쪽수: 15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1. 전제들
2. 70년대 한국교회의 민중운동과 민중신학
3. 80년대 기독교사회운동과 민중신학
4. 1990년대 민중교회의 전망과 민중신학의 미래

8. 연구목적

민주화운동이 민중신학의 뒷받침을 받아 활성화되었다고 전제하고 민중신학이 나타

나게 되는 과정을 밝힐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다. 주로 사회복음운동과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민중신학도 변모해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9. 연구내용

필자에 의하면 70년 11월 전태일 분신사건을 접하면서 이전까지 ‘개인구원’에 안주 하였던 한국기독교가 NCC의 도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당시 기독교계의 사회참여가 ‘하느님의 신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파악하였는데, 이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대두한 라우렌부쉬의 사회복음운동과 유사한 기반을 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회복음운동은 19세기말 급격한 공업화와 이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등장이라는 사회적 배경 하에서 등장한 것이다. 주로 노동현실의 개선과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와 자본가 양측의 ‘정신적 개조’와 이를 통한 사회통합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타 노동운동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필자는 민중신학도 사회복음운동과 유사한 시대적, 사상적 배경 위에서 성립한 신학으로 설명하고, 이를 선도한 학자인 서남동, 안병무, 현영학, 문동환, 서광선, 김용복 등이 한국신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작업을 통해 민중신학을 정형화해냈다고 보았다. 특히 안병무는 민중신학을 다듬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한 신학자라고 지적하며 이하 안병무의 신학적 고찰을 다소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안병무는 원래 실존주의철학에 정통한 신학자였으나 ‘70년대의 민중경험’을 경험하면서 실존주의를 버리고 고난 받는 민중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실천신학’으로 전환하게 된다. 초기에 그는 한국교회에 만연한 정통근본주의 신학을 공격하였는데, 근본주의 신학이 가지는 ‘탈상황성’ 즉 사회와 분리되어 종교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와 국가의 역할분담을 묵인하고,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안병무로 대표되는 70년대 민중신학은 ‘민중의 고난 받는 현실’과 이를 벗어나려는 투쟁 자체에 메시아적 의미가 내재해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민중과의 연대를 ‘신과의 합일’이라는 종교적 메시지로 설명하려 하였다고 한다.

80년대에 들어와 민중신학은 일반 사회운동권의 도전과 변화된 시대적 여건 하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사회운동의 이론적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과학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고민의 결과 나타나 것

이 강원돈의 '물의 신학'이었다. 기독교 신학이 가지는 관념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질적 세계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강원돈은 성경 요한복음을 활용하여 과학적 세계관을 기독교신학 체계 내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기독교운동권은 여타 운동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이래 자본주의이데올로기에 편승하였으며 군사정권에 협력하여 그 권력연장에 일정정도 기여하였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기독교가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민중의 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근래에 들어서는 민중교회가 등장하였다. 민중교회는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민중과 연대해 나가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0. 연구의의

민중신학이 민중교회 등의 형태로 지역주민과의 교류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80년대 새롭게 진전되는 기독교사회운동의 일면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 글이 가지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민중신학이 80년대 달라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기발전을 해 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하느님의 신학'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회복음' 신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느님의 신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속성을 지닌 것이며, 또 어떠한 변용과정을 통해 민중신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사회복음운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소개와 분석이 가해지고 있지 않고 있지만 통설적으로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적 노동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민중신학과 사회복음운동, 그리고 '하느님의 신학'이 각자 지니는 특징과 상이점이 있다고 할 때 이를 밝히고 민중신학이 가지는 특성을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 제목: 「한국기독교의 변혁과 기독교운동의 과제」. 『신학과 실천 II』

2. 저자: 박성준

3. 발행연도: 1989년

4. 쪽수: 33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7. 목차

1. 한국기독교를 보는 눈
2. 한국기독교 변혁의 방향
3. 기독교운동이란 무엇인가?
4. 한국기독교운동의 몇 가지 당면과제에 대하여
5. 맺는말

8. 연구목적

80년대 후반 사회 전반의 민주화경향과 함께 기독교회의 개혁도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전제한 뒤 기독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요구되는지, 또 현재 기독교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다. 특히 기독교 내에서 절대다수를 점하는 보수세력의 개혁과 새로운 운동동력의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9. 연구내용

한국 기독교는 70년대 이래 민주화운동과 변혁의 주체로 나선 측면과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여 온 측면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왔다. 이 중 후자는 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부정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교회 내에서도 보수적 교회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대두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고 한국교회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한국교회의 변혁이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필자는 '민족적 기독교로의 변혁'과 '민중적 기독교로의 변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가 제시한 '민족적 기독교'란 외세로부터의 자주, 민족적 특성이 살아나는 문화 형식의 도입, 분단체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사실 70년대 이래로 기독교계의 다수세력은 미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이는 기독교의 '보편성'에 기반 하여 외세를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인데, 필자는 이 같은 보편성이 심하게 왜곡된 것이며, '민족적 기독교'라고 해서 외국을 배타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필자가 두 번째로 제시한 '민중적 기독교'라 함은 반제국주의, 실질적 민

주주의 실현, 남녀평등, 정의로운 소유와 분배, 평화통일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러한 '민족적 기독교'와 '민중적 기독교'의 개념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운동이 전 기독교계로 확산되는 데에 중요한 전제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필자는 현재 한국기독교운동은 그 기반을 확산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기독교운동론을 정립하고, 이에 기반을 둔 조직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신학을 성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새로운 신학'을 주장한 것은 이 시기 개신교 및 가톨릭계의 일부에서 '한국적인 신학'을 정립함으로써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일어났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에 의하면 이전의 기독교사회운동은 사회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진행되었다. 때문에 앞으로 기독교사회운동이 전사회적인 공감을 확보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사회 분석 작업에 바탕을 둔 정치노선 정립, 이론과 실천의 결합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필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신학'은 사회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사회과학적 소양과 함께 새로운 '운동의 신학'이 동시에 정립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새로운 신학'은 '민중적 세계관'에 기초한 신학이어야 하며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수용을 바탕으로 민족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기독교의 사회운동이 그 종교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과학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이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제안한 글이다. 80년대 후반 기독교사회운동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인식으로서 당시 기독교사회운동세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80년대 후반 기독교계가 새로운 사회운동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향후 다양한 운동모색과정을 밝혀 그 의미를 보다 엄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제목: 「민족·민중·교회」, 『민중과 한국신학』

2. 저자: 안병무

3. 발행연도: 1982년

4. 쪽수: 23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신학연구소

7. 목차

8. 연구목적

1979년 아세아기독교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신학연구모임에서 발표된 글로서 『민중과 한국신학』이라는 제목 하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민중’을 신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역사학이나 문학 등에 비해 뒤쳐졌음을 자각하고 ‘민중적 신학’으로의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문제의식으로, 동 발표회에서는 모두 20편의 글이 발표되었는데 ‘민중’의 존재를 성서적으로 밝히려는 시도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당시 발표된 논문 중에서 안병무의 「민족·민중·교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9. 연구내용

초창기 한국 기독교회는 민중의 자각운동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3·1운동에 교회가 앞장선 것이 그 일례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기독교회는 민중을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았고 이승만 정권이 내세운 ‘민족우선’이라는 구호에 현혹 당하였다. 결과적으로 억압받는 일반 민중들의 생활에는 무관심하였고 지배계급의 종교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4·19 당시 교회는 민중의 민주화요구에 직면하면서도 인권과 정의라는 가치에 소홀하였다.

성서에는 민중을 표시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라오스’와 ‘오클로스’가 그것이다. ‘라오스’는 어떤 집단 내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민중의 칭호인데 반해서 ‘오클로스’는 권외적인 대중이다. 이들은 한 집단 안에 있으면서도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부류들이다. 주목할 것은 예수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은 ‘오클로스’였다는 점이다. 초창기의 한국교회에도 대개 ‘오클로스’가 모여들었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게 교회에서는 점차 ‘오클로스’가 배제 당하고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기독교회는 본래의 모습으로 급전환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교회는 관심을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민중을 위한 것에 맞추어 가야한다. 이 길이 공산주의에게 빼앗긴 민중들을 교회가 다시 찾아오는 길이며 ‘사랑의 운동’으로 사회를 정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10. 연구의의

위의 글을 위시한 수록논문들은 대체로 ‘민중을 위한 교회’로 일신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70년대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이 점차 신학적 차원에서 수용되어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이한 것은 저자들이 대부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개혁을 경계하고 교회의 운동이 사회주의 확산을 저지할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기독교 사회운동가들의 사회주의관은 교회민주화운동의 성격규명과 관련하여 향후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1. 제목 : 「민중적 사회발전에 관한 한국교회의 반성」, 『기독교사상』 85년 8월

2. 저자: 조승혁

3. 발행연도: 1985년

4. 쪽수: 24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기독교사상사

7.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사회발전의 참여현황
3. 사회발전에 관한 기독교적 입장과 반성

8. 연구목적

한국교회는 6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 후퇴와 민중적 자유의 유보, 경제적 불평등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사회참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필자에 의하면 사회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 이 때문에 사회개혁주의로까지는 진전되지 못하였다는 점, 교회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사회변혁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며, 민중적 경험에 기반 한 방법론과 사회과학적 분석틀의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교회 민주화운동의 문제점을 지적, 반성하고 전망을 밝혀보려 한 것이다.

9. 연구내용

이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가 사회운동에 있어서 가지는 문제점은 민중의 문제를 정치적 쟁점과 결부시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민중적 현실에 더욱 밀착하여 현장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여 민중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독교 사회운동은 이 측면에서 약점을 보여왔으며 결과적으로 노동 및 농민운동의 제 분야에서 민중과는 격리된 채 운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운동이 지니는 문제점을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민중에게 이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중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 사회운동에서는 이를 결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민중적 기반은 약화되었다. 2) 교회는 민중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의식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교회 스스로가 민중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님에도 교회는 민중의 움직임에 무관심하였다. 3) 사회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1982년 3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주최한 국제발전문제 연구협의회에서 “단순한 서구화보다는 민족고유의 전통과 유산에 입각한 운동을 지향해야 하며, 민중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기반 하여 기독교 사회운동을 돌아보면, 민중적 선교를 강조하면서도 민중적 산업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은 점을 비판할 수 있다. 보통 기독교계의 사회운동을 ‘사회선교’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는데 ‘선교’ 또는 ‘전도’라는 용어는 교회생활의 규범을 이식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유발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선교’라는 용어가 종교성을 강조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민중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분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10. 연구의의

80년대 중반 기독교사회운동이 전체 민주화운동권 내에서 주도권을 점차 상실해갈 때 기독교사회운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찾으려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당시 기독교 사회운동세력은 민중교회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빈민사업 및 노동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표명을 통해서 한 단계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노력하였는데 이 글도 그러한 고민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80년

대 기독교 민주화운동은 70년대에 비하여 그 주도적인 지위를 점차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독교 민주화운동세력이 여타 사회운동세력에 비하여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연대관계의 구축에도 소홀하였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독교 운동세력이 80년대에 변화된 사회상황 하에서 전시기에 비해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그 위치와 운동역량의 변화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가톨릭의 사회참여운동

1)가톨릭 사회참여운동의 배경과 국가-교회갈등의 전개

1. 제목: 『한국정치와 교회-국가갈등』

2. 저자: 김녕

3. 발행연도: 1996년

4. 쪽수: 375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가톨릭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서장. 종교의 정치학

제2장. 종교, 사회적 변화, 그리고 정치에 대한 가톨릭의 접근

제3장. 종교, 정치, 사회적 변화

제4장. 교회-국가 갈등, 신학적 스펙트럼, 교회의 제도적 힘

제5장. 교회 내의 불일치와 한계

제6장. 한국의 교회-국가 관계 1784-1979

제7장. 한국의 교회-국가 갈등 1974-1979

제8장. 한국의 교회-국가 갈등 1980-1989

제9장. 결론

8. 연구목적

이 글은 천주교회가 200년 가까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 1970년대에 접어들어 갑자기 정치적 반대세력으로 급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1970년대 한국천주교회의 사회참여 움직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고, 한국에서 점증하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이다.

9. 연구내용

필자는 한국천주교회의 사회참여를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독재정권 하에서의 경험이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즉 독재정권은 한국교회의 국가에 대한 반대에 필요조건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적 여건만으로는 교회가 행동을 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교회 내의 변화가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필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의 새로운 사회교리들이 천주교회의 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교리적 측면의 변화가 권위주의 독재의 현실과 적절하게 부딪히면서 교회의 사회적 개입을 촉진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한국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이 국가의 탄압을 받게 된 후에야 독재정권에 대항하였는데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측되며 이 점에서 브라이언 스미스가 주장한 '지연된 반응' 현상이 한국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필자는 해석하였다.

교회 민주화운동의 원인에 대한 가설적 설명에 이어서 필자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교회-국가 갈등의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하여 1)정치적 상황이 억압적이 될수록 교회는 더욱 일치된 행동을 보이며 교회의 정치적 개입자체가 쟁점화 될 여지가 클수록 분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2)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독재정권과의 갈등이 나타났다는 점 3)교회가 독재정권에 항거함으로써 독재정권의 '도덕적 권위'가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 4)교회 내적으로 사회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하였으나 오히려 '긍정적인 길항관계'로 작용하여 교회의 일치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점 5)교회의 사회참여활동이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10. 연구의의

한국민주화의 원인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독재정권의 억압을 들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글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와 대비하여 바티칸공의회, 독재정권의 억압이라는 배경이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작용하였다는 점을 보다 심도 깊게 밝힌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천주교회 사회참여의 계기가 된 유신체제와 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분석하는 작업이 다소 부족하며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유신체제가 지니고 있는 사회모순은 급격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폐해 즉, 근대화가 물고 온 폐단들과 긴밀히 연결된다고 보여지며 이 점에서 천주교회의 대응양상이 산업화의 모순에 대항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산업화에 대한 가톨릭적 이해와 대응이 민주화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1. 제목: 『한국 가톨릭교회와 소외층, 그리고 사회운동』

2. 저자: 윤여덕, 오경환, 박문수

3. 발행연도: 1990년

4. 쪽수: 27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가톨릭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1장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회사목 활동

2장 교회의 정의활동과 신학적 근거

3장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4장 정의실현을 위한 교회의 활동방법

5장 한국 가톨릭 사회운동단체의 역사 : 연구대상 단체를 중심으로

6장 한국가톨릭 사회사목을 위한 의식조사 연구

7장 맺음말

8. 연구목적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위하여 행동하는 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러한 활동이 한국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이를 통해 가톨릭의 사회참여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향후 '사회사목'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9. 연구내용

필자에 의하면 가톨릭교회는 유교가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조선봉건사회의 내재적 요구에 의하여 수용되어, 봉건사회의 틀이 완성이 시작할 때 유교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관념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가톨릭교회가 지향하는 이상이 자유, 평등이었기 때문이다. 즉 가톨릭은 처음부터 사회변혁적 분위기 하에서 수용되어 사회참여적 성격이 강하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가톨릭이 특히 근대화의 과정에서 기초교육과 직업교육, 한글보급 등을 통해 이바지한 바가 컸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기여를 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민중과 격리된 '聖俗二元論'을 내세웠고 이로 말미암아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향은 해방과 더불어 사회문제에 교회가 직접 발언을 함으로써 상당부분 불식되었지만 반공주의를 내세움으로써 독재정권이 남북분단을 구실로 정권을 연장하는 데에 본의 아니게 도움을 주기도 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제시기가 끝난 후인 1950년대 말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가톨릭교회는 '각성하는 교회'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소외층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1958년 6월에 가톨릭노동청년회(JOC)가 발족되었다. 필자는 초창기의 JOC가 본격적인 사회참여단체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었고 단지 봉사활동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1966년에 접어들면서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강화도 심도직물 노동탄압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이 때부터 본격적인 운동단체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1966년은 또 가톨릭노동청년회로부터 가톨릭농민회가 분리된 해이기도 하며, 이 점에서 가톨릭 사회사목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도이다. 한편 1969년에 김수환 주교가 추기경으로 선임되면서 한국가톨릭교회는 일약 지방교회에서 세계교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필자는 김수환 추기경이 노동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였

으며 민주적 선거를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여 가톨릭의 사회참여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서술하였다.

필자에 의하면 1970년대는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된 때였다. 가톨릭 교회도 사회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복음화운동을 전개해가기 시작하였다. 1971년 원주교구의 '부정부패 추방운동'은 가톨릭사회정의실현운동의 출발점이었는데,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당시에 내건 슬로건은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사회정의 이룩하자"였다고 한다. 이러한 운동방침에 따라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인간존엄성 수호 2)경제 불의에 대한 투쟁 3)소외계층의 단합 4)희망을 가지고 참여할 것 등을 구호로 내세웠다고 소개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가톨릭교회가 국가와의 갈등관계로 고난과 역경을 자처하게 된 시기이기도 한데 필자는 당시 가톨릭교회의 고난과 관련된 조직운동으로 「한국가톨릭농민회(JAC)」를 들고 있다. 가톨릭농민회는 1966년 가톨릭노동청년회에서 가톨릭농민청년회가 갈라져 나오면서 활동을 시작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농민 스스로가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각종 교육활동을 펼쳤으며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1972년에는 한국가톨릭농민회로 개칭하면서 농촌문제의 구조적 측면을 조명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1970년대 초 교회의 사회활동들은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 1975년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의 결성으로 확대되었다. 이즈음 국내 학계, 종교계, 재야정치계 등은 진보적인 사상을 해외로부터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고 있었는데, 천주교 측은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을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보고 받아들였다. 필자는 해방신학의 영향과 국내적인 여건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교회문제와 사회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이 곧 신앙운동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사제단은 유신체제의 반민주, 반민족 모순이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등장한다고 보고 사회문제나 구조적인 악을 비판하는 활동을 펼쳐 민중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고도 평가된다.

한편 70년대의 활동은 사실상 주교, 사제 등 성직자에 대한 탄압에 맞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대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문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80년대 고위성직자들 사이에 정의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에서인지 1980년대 천주

교회는 1984년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1985년 천주교도시빈민회의 설립 등을 통해 노동과 빈민문제 해결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지향하면서 발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대두하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시대별로 가톨릭 사회운동의 성격과 한계를 지적한 뒤 본문에서는 현재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가톨릭 신자 중 사회정의를 이루지 않고서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에 달하고 소외층을 옹호하려는 생각이 없는 경우도 40%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는 “하느님이 원하는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에 대한 사랑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문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가톨릭이 가진 사회정의에 대한 입장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가톨릭이 믿는 하느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복음선포의 중요 일부분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야 하며, 성당 내에서의 교육을 통해 정의실현과 인권회복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복음선포의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급무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10. 연구의의

시대별 가톨릭교회의 사회관을 잘 정리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가톨릭사회운동이 교권수호의 차원에서 시작하였다는 점, 가톨릭 내에서의 이견이 존재하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1980년대 운동이 상당기간 침체를 맞이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은 유의깊게 살펴볼 만하다.

1. 제목: 『1970년대 한국 천주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70년대 천주교 사회운동을 통해 본 교회, 국가 갈등을 중심으로』

2. 저자: 강경애

3. 발행연도: 2000년

4. 쪽수: 155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성신여자대학교

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관한 변천과정

제1절 교회와 국가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2절 세계교회에서의 태도변화과정

제3절 한국교회에서의 변화과정

제3장 현대 가톨릭교회의 국가관

제1절 교회와 사회정의

제2절 국가와 정치권력

제3절 현대의 교회와 국가관계

제4장 1970년대의 천주교 사회운동

제1절 유신체제 이전의 사회운동

제2절 유신체제 초기의 사회운동

제3절 유신체제 말기의 사회운동

제5장 1970년대 천주교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

제1절 사회운동의 성과

제2절 사회운동의 한계점

제6장 결론

8. 연구목적

필자에 의하면 가톨릭교회는 2천년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기간을 정치사회에 대체로 침묵하거나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 왔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분기점으로 이 같은 면모를 반성하고 사회참여에 노력해왔다. 한국천주교회도 2차 바티칸공의회 직후 사회참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회가 권위적인 정권과 어떠한 갈등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9. 연구내용

필자는 이미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톨릭 2천년의 역사가 국가와의 타협으로 점철되었다고 지적하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이 같은 모습을 쇄신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천주교회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필자는 조선후기에 천주교가 유교사회가 드러내고 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수용되었지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개혁적 성향이 탈각되었고 체제순응적인 종교로 존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주교회가 왜 1970년대에 정치문제에 개입하였고 국가와 갈등구조에 놓이게 되었는가? 필자는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한국사회가 드러낸 제 모순의 양상과 이에 대한 천주교회의 대응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천주교회의 정치참여가 부정부패문제에서 인권문제, 노동문제 등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유신체제 하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에서 일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태도변화를 통해 사회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필자는 1)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진보적 교리 2)천주교회 조직의 독특성 3)해방신학의 영향 4)민족적인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 내적인 전통 5)김수환 추기경의 진보적 성향 등을 꼽았다.

1970년대 천주교의 사회운동은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였다고 한다. 즉 기본적인 인권과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보장되는 사회가 가톨릭교회의 목표인데, 이러한 목표 하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은 온건하면서도 비폭력적이며 점진주의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필자는 이 같은 목적이 사실은 천주교회의 '사회교리'에서 연역된 것이 아니라 사회현실인식과 경험에서 대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한국천주교회 사회참여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이와 동시에 한국천주교회 사회운동의 특징으로 1)소수 사제단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되었다는 점 2)교회의 도덕적인 권위를 높여 주었다는 점 3)비폭력을 지향함으로써 계급투쟁적인 요소를 배제했다는 점 4)조선후기 한국천주교가 지향한 자유, 평등의 이념을 원용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국천주교회 사회참여운동의 한계점으로는 1)대응양식이 소극적이었다는 점 2)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소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적인 충격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운동이 시작되어 교회 내부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지는 약간의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 3)사태가 발생한 후 이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운동을 선도하지 못했다는 점 4)평신도의 무관심으로 사회참여가 확산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천주교회가 1970년대 정의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차지하였고 국가와 긴장상태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는 그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1970년대 천주교회의 사회참여는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았고 통일문제로 관심을 확대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10. 연구의의

천주교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적한 부분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주장으로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일반사회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천주교사회운동의 역할 및 위치를 밝히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1980년대 천주교 사회운동과 비교분석하지 않아 좀 더 다양한 인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천주교회의 사회참여가 80년대에 다양한 정치태도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과 일반사회운동과의 연계를 밝히는 작업은 천주교회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1. 제목: 「가톨릭교회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과 제약요인 : 한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가톨릭사회과학연구』9

2. 저자: 김녕

3. 발행연도: 1998년

4. 쪽수: 20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가톨릭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1. 서론
2. 가톨릭교회와 사회, 사회변화
3. 가톨릭교회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
4. 제약요인
5. 요약 및 결론

8. 연구목적

가톨릭 사회참여활동이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어디에서 연원하며 그 추이는 어떠했는가를 간략히 살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9. 연구내용

본문에 의하면 가톨릭교회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의 근원은 교회에게 부여된 예언자적 소명과 사목적 소명, 정치적 탄압에 대한 방어망의 역할,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통

한 비전 제시 등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은 ‘규범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규범적 차원’이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회가 지닌 물질적, 인간적 차원의 조직과 각종 제도적인 대안을 통한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교회는 이러한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1970년대 이래 사회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필자는 교회의 활동에 제약요인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범적 차원’에서 볼 때 교회 내에 존재하는 신학적 태도들의 불일치, 주교단이 행하는 선언의 모호함, 가톨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수성 등이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파악하고, 동시에 ‘구조적 차원’에서도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권위주의 및 상명하달식의 의사결정구조, 공인·비공인의 구분을 내세우며 교회 내 사회운동단체들을 주교회의 산하에 묶어두려는 경향, 교회 내 구성원들의 충원이 주로 중산계층이나 상층계층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교회 내의 계층구조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의 제도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와 우호관계를 모색한 적이 많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회운동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제약요인을 가능한 한 극복하고 교회 고유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한국의 사회변화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가톨릭교회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말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톨릭교회의 인권운동은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시대적인 변화와 개인주의의 급속한 확산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하였다. 1988년에 주교회의가 정의평화위원회의 기구를 축소하고 연구중심활동으로 선회한 일이 있는데 필자는 이를 두고 가톨릭인권운동의 변화기점이라고 하였다. 과거에 비해 인권현실과 사회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한국가톨릭교회가 사회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1. 제목: 「가톨릭교회와 한국정치」,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2

2. 저자: 박재정

3. 발행연도: 1992년

4. 쪽수: 32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성신여자대학교
7. 목차

1. 서론
2. 봉건사회 속에서의 한국 천주교회
3. 식민지하에서의 천주교회
4. 민족국가 건설과 천주교회
5.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교회
6. 새로운 가톨릭 공동체에 대한 제도교회의 반응
7. 결론

8. 연구목적

한국 천주교회가 정치참여에 대하여 가져왔던 태도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술한 글이다. 필자는 교회가 그 출발부터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배구조의 유지를 선호하였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 보수적 태도를 보였으나 제도교회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민중교회의 등장으로 교회 내에서 대립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교회는 사회구성원에게 행위의 규범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지만 내부적으로 진보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왔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봉건사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9. 연구내용

필자는 국가와 교회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근대시대, 일제시대, 해방이후를 다루고 있다. 먼저 조선후기의 가톨릭과 국가간의 관계에 대하여 당시의 가톨릭이 주로 하층민에게 전파되었고 그 형태가 巫敎와 혼합되는 양상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에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자발적인 형태로 호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의 정책이 교회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일제시기에 들어와서도 교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라는 정책이 구사되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일제는 신도정책을 가장 우선시하였고 기독교는 국가권력에 비협조적인 중

교로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천주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민중교회의 등장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도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천주교회는 비정치적 태도를 표방하게 되었고 민족주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3·1운동 이후 교회는 의료봉사 등의 형태로 사회문제에 소극적이거나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년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억제하고 교회 내 진보적 그룹의 성장을 억압하여 결과적으로 식민정책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았다.

필자는 해방이후 한국이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교회는 국가에 그 사회적 기능을 모두 넘겨주고 개인의 신앙을 담당하는 데에 그 역할이 국한되었다고 하였다. 근대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근대국가의 설립은 과학과 실용주의의 이름으로 종교의 기능을 무력화시켰고 교회 내에서 일고 있던 민중교회적 분위기마저 말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가와 갈등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1970년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투쟁이 본격화하면서부터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전 시기 국가에 의하여 그 사회적 기능이 제약 당하였던 가톨릭교회는 '정의구현'을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주도한 것은 가톨릭의 제도교회가 아니라 주교회의와 어느 정도 갈등을 빚고 있던 자발적인 조직 즉, 민중교회였다고 필자는 정리하고 있다. 민중교회는 이미 1958년 가톨릭 노동청년회가 등장하면서 그 단초가 보이기 시작하였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민중교회의 등장과 함께 국가는 가톨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게 되는데, 국가가 로마교황청에 '바람직하지 못한 성직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교회내부의 보수적인 신부들을 '구국사제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화하려 한 것이 그 예이라고 필자는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필자가 제기한 가설 즉, 국가는 교회가 개인적인 신앙과 도덕을 강조하여 지배구조의 유지에 기여할 경우 그 활동범위를 보장하다가 진보적 성향으로 변하게 되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0. 연구의의

필자가 제시하는 개념 중 민중교회, 제도교회의 구분은 민중교회가 사회참여에 적극

적이었고 그와 반대되는 제도교회가 보수적이었다는 논지 하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교회와 제도교회가 차별성을 띠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인데, 이 글에서는 민중교회의 개념과 그 진보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민중교회가 진보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부분이다.

2)반독재 민주화운동

1. 제목: 『암흑 속의 햇불』

2. 저자: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3. 발행연도: 2000년

4. 쪽수: 980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7. 목차

1장. 1974년

길잡이 : 대통령의 말이 곧 '법' 이었던 시대/ 함세웅

1. 주요 사건일지

2. 가톨릭계 일지

3. 카톨릭계 주요 자료

1) 강론 :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한다 / 지학순

2) 교서 : 성년은 하느님,, 인간, 가난한 자의 해/ 주교단

3)경위서 : 지학순 주교의 연행에 관하여 / 주교단

4)성명서 :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나의 입장 / 지학순

5)선언문 :정의의 이름으로 서명한 '양심선언' /지학순

6)강론 : 정의 구현과 교회의 쇄신을 기원하며 / 김수환

7)선언문 : 사회교회의 실천은 종교의 의무다/ 주교단

8)서한 : 고통중의 모든 분들을 위한 기도를 / 나길모

9)성명서 지 주교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주교단.

10)항소문 :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현키 위하여 / 지학순

- 11) 보도문 : 지학순 주교는 어떤 분이신가?/사제단
- 12) 강론 : 일류의 번영을 위해 자유를 / 나길모
- 13) 청원서 : 양을 소리를 함께 외치기 위하여 사제단
- 14) 선언문 : 가톨릭 시보는 사탄을 멀리하라 가톨릭 청년회
- 15) 건의문 : 주교단의 일치된 의사 표시를 바라며 /평협
- 16) 성명서 : 침묵으로만 좌시할 수 없어 / 평협
- 17) 보도문 : 지학순 주교의 재판 과정 / 사제단
- 18) 서한 사랑하는 벗들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 / 지학순
- 19) 결의문 구원의 횃불이 되기 위해 / 사제단 평협 공동
- 20) 연설문 : 나의 법학 박사 학위는 영광인가 우물인가? /헬더 까마라
- 21) 선언문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 우리의 현실 /신, 구교 연합
- 22) 선언문 : 경제 제일주의에 항의하는 '제1시국선언' 사제단
- 23) 서한 : 옥중에서 교황 바울 6세께 / 지학순
- 24) 성명서 : 지학순 주교에 대한 기소는 정당한가? / 원주 교구 평신도
- 25) 강론 : 사회 정의는 우리가 구현해야 한다./ 두 봉
- 26) 선언문 : 교회 안팎의 불행한 사태에 즈음하여 / 꾸르실리스타
- 27) 진술서 : 신앙인의 양심에 의한 최후 진술 / 지학순
- 28) 결의문 : 위정자와 교회의 장상들에게 바란다./대건 신학대 학생회
- 29) 강론 : 민주 시민으로서 긍지를 찾자 /김재덕
- 30) 성명서 : 신앙과 사랑의 일치를 확인하며 / 주교단
- 31) 강론 : 정부는 개인을 위해 필요한 제도일 뿐 / 나길모
- 32) 선언문 : 백만 학우여 뜨거운 피로 /서울교구 가톨릭 학생회
- 33) 강론 : 침묵의 집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함세웅
- 34) 선언문: 부정부패 일소를 촉구한다 / 사제단
- 35) 호소문 : 목자 잃은 양들이 주교단에 묻습니다. / 원주 교구 신자 일동
- 36) 답시 : 원주 교구 신자들이 부른 '눈물의 노래' / 원주 교구
- 37) 강론 :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다 / 정하권
- 38) 선언문 : 국민의 긍지를 찾기 위한 '제 2시국 선언' / 사제단
- 39) 성명서 : 기도회 방해를 규탄한다. / 사제단
- 40) 서한 : 전국적인 기도회 개최를 전하며

- 41)성명서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 전주 교구 가톨릭 학생회
- 42)결의문 : 고통의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톨릭대 학생회
- 43)선언문 : 새 질서 마련을 위한 '제 3시국 선언' / 사제단
- 44)선언문 : 무엇을 두려워하라 / 인천 교구 가톨릭 학생회
- 45)성명서 : 정의로운 소득 분배를 제의한다. / 사제단
- 46)강론 :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 47)성명서 : 현 시국에 즈음한 '우리의 인권 주장' / 사제단, 정평위 공동
- 48)결의문 :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 부산 교구 사제단
- 49)성명서 : 오글 목사의 추방은 권력의 폭거다. / 사제단
- 50)추도사 : 최종길 교수와 떠난 모든 형제들을 위해 / 사제단
- 51)메시지 : 진리 수호를 위해 십자가를 진 자만이 / 김수환
- 52)성명서 : 정의를 위해 '하나되게 하소서' / 사제단
- 53)답시 : 어화 우리 벗님네여 / 저자 미상

4. 사회 단체 일지

5. 사회 단체 주요 자료

제 2장. 1975년

1. 주요 사건일지

2. 가톨릭계 일지

3. 가톨릭계 주요 자료

- 1) 호소문 : 동아일보에 대한 탄압에 즈음하여 / 사제단
- 2) 선언문 : 종교인의 탄압에 대한 나의 '양심 선언' / 안승길
- 3) 성명서 : 종교인의 사회 참여는 부당한가? / 정하권
- 4) 결의문 : 암흑 속의 횃불을 높이 들고 / 사제단
- 5) 성명서 :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에 관하여 / 가톨릭 노동청년회
- 6) 선언문 :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에 즈음하여 / 사제단
- 7) 서한 : 한국노총위원장에게 보내는 고언 / 가톨릭 노동청년회
- 8) 서한 : 가톨릭 신자인 정치인에게 묻는다./ 김승훈
- 9) 성명서 : 종교 탄압에 대하여 경고한다. / 사제단
- 10) 선언문 :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 4 시국선언' / 사제단
- 11) 성명서 : 순교를 각오해야 할 때다. / 사제단

- 12) 묵상 : 재의 수요일과 국민투표 / 사제단
- 13) 성명서 : 진리와 양심의 증언자가 되리라. / 사제단
- 14) 강론 : 부도덕을 질책함은 교회의 의무다. / 지학순
- 15) 성명서 :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 / 사제단
- 16) 서한 : 독재와 투쟁하는 필리핀 사제단에게 / 사제단
- 17) 성명서 : 효율적인 사회 참여를 다짐하며 / 주교단
- 18) 평가서 : 기독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반성 / 사제단
- 19) 강론 :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다. / 김몽은
- 20) 선언문 : 인간 회복을 위한 '민주, 민생복음 선포' / 사제단
- 21) 성명서 : 성명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를 고발한다. / 사제단
- 22) 강론 : 정치란 정치인의 전유물입니까? / 이계창
- 23) 성명서 : 기자들의 해임 사태에 즈음하여 / 사제단
- 24) 성명서 : 김지하의 재구속에 대하여 / 사제단
- 25) 선언문 : 언론과 학원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 사제단
- 26) 성명서 : 사대주의 악법의 백지화를 위하여 / 사제단
- 27) 선언문 : 십자가의 희생의 각오하면서 / 사제단
- 28) 성명서 : 오늘의 현실을 고발한다. / 사제단
- 29) 성명서 : 인혁당 피고인들의 사형 집행을 보고 / 사제단
- 30) 결의문 : 안충석 신부가 돌아올 때까지 / 사제단
- 31) 성명서 : 김상진군의 죽음에 답하라 / 사제단
- 32) 성명서 : 연행 공포증에 막연한 이 시국을 통탄한다. / 사제단
- 33) 결의문 : 사제들의 연행은 종교 탄압이다. / 사제단
- 34) 성명서 : 시노트 신부의 추방을 규탄한다. / 메리놀회 한국지부
- 35) 성명서 : 사랑하는 한국을 떠나며 / 제임스 시노트
- 36) 성명서 : 대회에 나설 것을 약속하며 / 주교단
- 37) 성명서 : 교회는 왜 쇠신이 안 되는가? / 신자의 소리회
- 38) 평가서 : 정의 구현을 위한 활동과 점검 / 사제단
- 39) 교서 : 순교복자 시복 50주년을 맞아 / 주교단
- 40) 성명서 : 주교님들께 드리는 제언 / '희망의 미사' 참가자 일동
- 41) 성명서 : 김영삼 총재에게 묻는다 / 지학순

- 42) 성명서 : 김지하에 대한 박해에 분노하며 / 사제단
- 43) 결의문 : 사제들의 불법 연행에 즈음하여 / 전주 교구 사제단
- 44) 서한 : 침묵하고 계신 주교님들에게 묻습니다. / 사제단
- 4. 사회 단체 일지
- 5. 사회 단체 주요 자료

8. 연구목적

1970년대 및 80년대의 천주교 민주화운동의 자료를 통하여 역사적 진실에 후학들이 접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가톨릭 민주화운동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이기보다는 자료집의 성격이 강하다.

9. 연구내용

천주교는 1970년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각종 문제의 등장과 유신 체제, 지학순 주교의 구속 사건, 제 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하여 민주화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는 설명을 짧게 덧붙인 후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후의 구성은 1974년 -1987년까지 주요 사건과 가톨릭계 사건, 주요 자료들이 연도별로 서술되어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각종 성명서와 결의문, 보도자료, 기타 문헌 및 서신 등이 묶여 있어 해당 분야의 연구에 일차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이해된다.

10. 연구의의

상세한 구성으로 1970년대 80년대 천주교 민주화 운동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으며, 목차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1970, 1980년대 사건들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제목: 『명동성당 시위 전단 자료집』

- 2. 저자: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교회
- 3. 발행연도: 1994년
- 4. 쪽수: 1권 934쪽, 2권 535쪽
-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명동천주교회

7. 목차

1권

1. 반독재 운동

강경대 사망 사건 / 광주 민주화 운동/ 군부대 내 선거 부정 사건/ 김귀정 사망 사건 /거창 신원 양민 학살 사건/ 김기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 김춘도 순경 사망 사건 /대통령 후보 단일화 촉구 사건 / 민주화 운동/ 반 노태우 사건/ 반민자당 사건 /부정선거 규탄 사건 /성폭력 사건 / 시국대토론회 /5공비리 척결 요구 사건/ 이부영 불법 구속 사건/ 6월 민주화 항쟁 제적생 복교문제 / 주기성 사망 사건

2. 산업 평화

고추 전량 구매 요구/ 평화 방송 파업 사건 / TC전자 폐업 철회 운동 / 탄광촌 생존권 확보 운동 /한국 노총의 노동자 탄압 사건/ 한진 그룹 노동자 탄압 사건

3. 사회 문제

기형아 예방 운동/ 경륜장 건설 반대/ 공직자 재산 공개 파문/ 단국대 이 전 반대 /덕성여대 비리 사건 /물가문제 /정의구현 사제단 파북 사건/ 상이군경 처우 개선 요구 /상지학원 정상화 운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약사법 개정 요구 사건/ 외래상품 수입 반대/ 의료제도 개혁 요구 사건 / 전북 혜화 학교 비리 /주택정책 공청회/ 통합공과금 제도 폐지 반대 /호남대 사학 비리 반대 데모 /서경대학교 사학 비리

4. 사회 복지

노점상 생존권 투쟁 /상계동 철거민 오동근 어린이 사건/ 장애인 권익 쟁취 운동 /철거민 생존권 투쟁/ 유아교육 /행정 정상화운동 /의료보장 쟁취운동

5. 평화 운동

반외세 운동/ 국가보안법 철폐반대/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사건 /동두천 윤금이 살해사건/ 임수경 강제 선고 공판 규탄 /반핵운동 /소말리아 파병 반대 / 조성만 할복 투신 사건 / 한반도 핵문제/ 통일 운동/ 태평양 전쟁 유족회 투쟁사건

6. 인권 운동

양심수 석방 운동/ 의문사 진상 규명 운동 /박종철 고문 살인 사건/ 이철규 사망 사건

7. 문화 운동

교원 의무 발령제 쟁취 투쟁/ 교대 정상화 운동 /비디오 감상실 폐쇄 반대 / U.I.P직배 영화 반대 /전교조 투쟁 사건 /청구 상업 학교 교육 정상화 운동/ 특수 교육 전공 교사 농성 사건

2권

1. 반독재운동

경찰 폭력 광주 민주화 운동/ 대통령 후보 단일화 문제/ 반 노태우 사건/ 반독재 사건 /반민자당 사건 /4월 혁명 기념 부정 선거 규탄 사건/ 송광영 분신 사건 /안기부 불법 연행 사건/ 외채 정권 퇴진 요구/ 이한열 사망 사건/ 홍기일 분신 사건

2. 산업 평화

고추 전량 구매 요구/ 가농 및 농민 운동 탄압 개정/ 농지 세제 문제점/ 경동 산업과 기아 산업의 노동 착취/ 경동산업과 코리아 스파이서 파업 사건/ 구미, 홍명. 고엽의 노동자 탄압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복직 사건/ 교통 행정 반대 농성 /노동 운동 / 대우조선 무단 해고 사건/ 노동운동에 대한 재야의 시각/ 김경숙 추모 및 노동자 전진 대회/ 논노상사 노조탄압/ 농, 축산물 수입 반대 사건/ 농가 부채 문제 농미 위원회 결성/ 농지 개량 조합 민주화 요구 사건/ 농지 임대차 허용 반대/ 농협 민주화 사건/ 대한 광학 노동자 탄압/롯데 제과 해고 노동자 농성/ 대한교육보험 모집인 농성 사건/ 박진석 분신 시도 사건/ 멕스테크 위장 폐업 사건/ 문선현 부부 구속 사건/ 문송면 수은 중독 사망 사건/ 보리 구매가 문제/ 삼익 악기 농성 사건/ 산재 근로자 대책 투쟁/ 산재 보상법 개정 촉구 사건/ 삼양사 소작당 사건/ 3.13 가톨릭 농민 회원 탄압 사건/ 아주 파이프 창립 사건 / 순창 농민회 창립 사건/ 영창 농성 사건/ 유럽 건설 노사 분류/ 이재열 사망 사건/ 인천 지역 노동자 투쟁 사건/ 완주 군수 비리 사건/ 청계 피복 노조 투쟁 사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노조탄압 사건/ 태연물산 노조탄압/ 한국 노총의 노동자 탄압 사건/ 포항항운 노조탄압 사

건/ 한국 전자 부품 폭력 사건/ 현대 그룹 노조투쟁 사건/ 한국 피코 부
도 사건/ 화염병 방지법 반대/ 이석규 사망 사건/ 협성 노조 파업 투쟁
사건/ 박창수 사망 사건/ 추곡 수매 문제

3. 사회 문제

세종대 학원 자주화 운동/ 금융실명제, 토지 주택 정책 문제/ 현지 개량
법 철회 요구 사건

4. 사회 복지

장애인 권익 쟁취 운동/ 도봉 군인 아파트 철거 문제/ 철거민 생존권 투쟁

5. 평화 운동

국가 보안법 폐지 투쟁 사건/ 반미 운동 미국 문화원 농성사건/ 사회 안전
법 폐지투쟁 사건/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조성만 할복 투신 사건 / 통일
운동/ 임수경 강제 선고 공판 규탄/ 한반도 핵문제/ 홍근수 목사 구속 사건

6. 인권 운동

고문 추방 운동/ 박종철 고문 살인 사건/ 양심수 석방 운동/ 영생 애육원
집단 성추행 사건/ 의문사 진상 규명 요구/ 해지 공직자 복권 운동/ 이내
창 사망 사건

7. 문화 운동

전교조 투쟁 사건/ 교육 개혁 촉구 운동/ 국교생 좌경 의식화 사건/ 국제
종교 범죄조직 문제 / 노동해방 문학 말살 사건/ 민교협 창립 1주년 사학
비리 규탄

8. 연구목적

70년대 이후 명동성당은 수많은 시위의 장소가 되면서 사회와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이에 명동성당 축성 100주년을 맞아 명동성당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명동에
서 벌어졌던 시위 전단들을 통하여 교회의 대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여 미래 교회의
위상 정립에 긍정적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다.

9. 연구내용

시위 당시 배포되었던 전단지 모음집이다. 80년대 명동성당 구내에서 일어났던 시위
의 유인물과(1권) 명동 성당 청년회에서 참가하거나 수집해 두었던 유인물(2권)로 구

성되어 있다. 통일, 정치적 사건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터져 나왔던 시기인 만큼 다양한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다. 개략적인 내용은 위에 기록된 목차의 제목을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10. 연구의의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수록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상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1차 자료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당시 운동 세력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1. 제목: 「1970년대 한국가톨릭의 정치참여활동에 관한 연구」

2. 저자: 김기석

3. 발행연도: 1985년

4. 쪽수: 117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7. 목차

1. 서론

2. 종교와 정치참여

1) 현대신학의 동향

2) 해방신학

3. 한국가톨릭의 정치참여 요인

1) 경제사회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참여요인의 분석

4.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활동

1) 사제단의 결성

2) 사제단의 조직 및 특성

3) 사제단의 활동

5. 결론

8. 연구목적

이 글의 목적은 1970년대 가톨릭 정치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보고 기초자료를 정리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천주교가 70년대 중반기에 이르러 강경한 어조로 정치사회적인 현실의 변혁을 요구하기 시작한 원인과 과정을 기술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9. 연구내용

필자에 의하면 1970년대에 들어와 한국 가톨릭계가 정치참여를 확대한 것은 외자의 존적인 공업화정책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분배의 불균형과 유신체제로 상징되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발생한 점 등에 원인이 있다. 또 직접적으로는 지학순 주교의 구속사건을 통한 정치적 압력의 체험이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이 당시 천주교의 정치참여활동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주도하에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하여 발표된 성명서나 선언문, 사제의 강론을 통해 강조된 사제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이었다고 한다. 필자에 의하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란 기본적인 인권과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결국 경제적 평등과 참여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경제적 평등 역시 참여정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서민대중의 경제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나아가서는 그 같은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마저도 유린하는 사회에서는 경제적 평등, 인간다운 삶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사제들의 논리였고, 이러한 활동목표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서는 당연한 것으로서 ‘예언자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당위적으로 제기하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조직은 기존의 천주교조직을 그대로 채택하였을 뿐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본문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제들 개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이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가지는 특성으로서, 실제 활동을 보더라도 이 같은 점이 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제단의 활동은 비폭력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점에서도 특징적이라고 필자는 지적한다. 비폭력 원칙의 고수는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톨릭계 활동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던 반면에 동시에 활동의 한계로도 작용한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제단의 활동은 사후적인 활동이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그들 활동의 주된 형태가 성명서발표 및 기도회였다는 사실이 시사하듯 사제단의 활동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창출하여 주도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일단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점이 이들이 지니는 한계라고 하였다. 이는 천주교의 전통적인 보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하겠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사제단의 활동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활동에 응집력이 있었고 지속성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정의구현사제단은 결성 이후 지금까지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지속성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심대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10. 연구의의

가톨릭 사회운동을 주로 조직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주교단,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의 특징과 활동을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가톨릭사회운동이 가지는 고유한 논리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및 소개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

1. 제목: 「한국가톨릭 사제의 사회참여 활동의 특징과 변화」

2. 저자: 안수영

3. 발행연도: 2000년

4. 쪽수: 9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충남대학교

7.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Ⅲ.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이념과 조직구조

Ⅳ. 교회와 사회변화에 따른 사제단의 활동의 변화

- 1) 가톨릭 교회의 사회참여개관
- 2) 사제단 활동의 전개과정
- 3) 교회 내적 환경변화와 사제단의 활동
- 4) 한국사회운동의 성장과 사제단의 활동

Ⅴ. 정치적 민주화, 인권관련활동

- 1) 사제단 정치참여의 정체성
- 2) 민주화운동 참여와 활동

Ⅵ. 민족통일관련활동

- 1) 통일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이해
- 2) 사제단의 통일논의와 실천

Ⅶ. 결론

8. 연구목적

이 글은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가톨릭 사제의 사회참여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제단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제도교회와는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가 하는 점이 탐구대상이다.

9. 연구내용

필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사회참여활동은 조직체의 이익보다는 전체사회와 사회구성원의 공익에 목적을 둔 것으로 한국사회의 의미 있는 변동에 기여했으며, 민주화와 통일관련 활동을 통해 선도적이고 변혁적인 이념을 한국사회에 제시하였다고 하여 그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사제단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 내 하부조직으로 제도교회와 독립적으로 형성, 발전하였다고 평가하고, 이 같은 하부조직으로서의 사제단의 위치는 사제단이 민중교회의 성격을 갖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도 평가하였다.

사제단의 활동이 민중교회적인 기층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평가는 필자의 독특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사제단의 활동을 좀 더 해명하기 위하여 기존교회와의 차이점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필자에 의하면 제도교회와 비교할 때 사제단이

가지는 특성과 사회참여활동의 특징은 사제단의 독특한 조직구성에서 유래한다. 사제단의 조직은 위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주교회의 조직과는 달리 조직적 밀집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일반사회조직의 발전원리와 비교했을 때도 조직의 전문화, 분화정도가 정비되지 못한 느슨한 방임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제단의 조직특성은 사회참여활동에 있어 사제단이 제도교회보다 구조적으로 능동적인 참여활동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사제단은 사회참여활동과정에서 변혁적 기제와 결합된 선택과 결정을 해왔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참여활동은 다시 사회구조적인 인식에 따라 피드백 되어 운동논리의 형성과 발전에 이용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사제단은 종교지도자들로서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제단의 사회참여활동이 민중교회로서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다시 지적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권위적 국가기구의 형성은 사회운동단체들로 하여금 그들 나름대로 고유한 활동범위와 자생적인 활동력을 전개할 수 없게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단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억압적인 상하관계로 조직된 70-80년대 상황에서 지배권력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합리와 모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국사회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이 사제단이 민중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사제단의 민중교회적인 속성을 지적한 뒤 필자는 사제단이 제기한 통일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제단의 통일논의는 '제국주의적 선교'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제단의 통일논의와 실천은 인도주의적 접근과 연대적 성격을 특징으로 분단을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분단을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창출하는 가장 근원적 토대로 상정하고 사회변화와 인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일논의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사회참여논리를 분석한 점에서 드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사제들을 직접 면접하여 연구방법에 있어 성실성을 추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사제단의 조직적 특성과 통일논의의 특성을 논한 점은 사제단의 운동논리를 비교적 정확히 포착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제단의 활동을 민중교회에 대비시킨 점에 대해서는 엄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교회의 개념과

그 특성, 개신교와의 비교, 민중교회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가 함께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제목: 「한국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정의구현활동, 그 논리적 구조와 대안적 전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중심으로」

2. 저자: 천선영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174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서강대학교

7. 목차

1. 서론

2. '사제'의 위상과 역할

3. 이론적 논의

1) 종교의 정의구현활동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1

2) 종교의 정의구현활동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2

3) 논의

4. 한국 가톨릭 교회 사제들의 정의구현활동의 배경

1) 내적 논리의 토대

2) 한국사회에서 가톨릭교회의 정의구현활동

5. 한국가톨릭 교회사제들의 정의구현활동 그 논리적 구조

6. 한국가톨릭 교회사제들의 정의구현활동, 그 논리적 구조의 실천적 적용과 대안적 전망

1) 논리적 구조의 적용

2) 신앙적 성찰

7. 결론

8. 연구목적

종교지도자인 사제들로 하여금 사회에 뛰어들게 한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를 규명

하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정의구현활동이 가지는 ‘예언자적’ 논리구조를 밝히고 이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식을 밝히고자 했다.

9. 연구내용

필자는 한국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정의구현활동은 교황 레오 13세 때의 공의회를 전후하여 촉진된 ‘새로운 신학의 실천적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새로운 신학’은 이전의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신학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흐름이며, 이러한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사제들은 자신들의 사명 중 ‘예언자적 사명’을 더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정의구현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학’의 내용과 성격이 문제시될 것인데 필자는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미루고 가톨릭사제들의 실천적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한국가톨릭은 교회사적으로 사제들의 정의구현활동은 교회창립 초기의 ‘개혁적 성격’을 되살리려는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사제들의 정의구현활동은 이전의 교회와 단절되었다기보다는 초기교회를 이상적인 모델로 하여 이를 계승하려는 강한 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내적으로 사제들의 활동을 ‘구조적인 접근법’을 통해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의 측면을 거론할 수 있다고 필자는 언급하고 있다. 필자가 정리한 ‘구조적인 접근법’의 세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 1) 사제들의 정의구현활동은 공의회를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신학적 조류의 대두와 함께 지극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구조,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러한 통치구조가 빚은 군부통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심화와 대중화, 합법적인 사회개혁 운동의 공간이 거의 확보되지 못하고 있던 사회구조적 상황, 덧붙여 그러한 변화에 불을 붙인 ‘지학순 주교의 구속사건’이 맞물리면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
- 2) 사제들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내적인 쇄신’이 없이는 사회정의의 구현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교회 쇄신작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논리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게 된다는 점
- 3) 80년대 이후 사제들의 관심은 인권문제에 기초한 제도적 폭력과 구조적인 압제에 대한항거에서 분단이라는 민족모순의 문제로 옮겨지고 나아가서 교회와 사회의

근원적 쇄신과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지향을 확고히 하게 된다는 점
 이 같은 사제들의 사회참여활동의 배경과 함께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구조는
 ‘보고, 판단하고, 실천한다’라는 3단계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필자는 평가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실천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어서 필자는 사제들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여타의 사회
 운동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이들의 방법론은 무력을 포함한 혁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사제들의 개혁성은 근본적
 인 개혁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
 였다.

10. 연구의의

가톨릭사회운동의 배경으로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사명의식’을 들고 있다.
 ‘예언자적 사명의식’은 종교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사회적인 부조리
 를 경고하는 것으로서 가톨릭의 사회참여를 적절히 설명해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이
 한 것은 이 같은 ‘예언자적 사명의식’이 가톨릭의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지만
 ‘체제 내 개혁’을 지향하는 한계를 내포하였다는 것을 지적한 점이다.

1. 제목: 「천주교사회운동과 가톨릭의 한국화 - 천주교사회운동에 대한 도전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 저자: 강인철

3. 발행연도: 1997년

4. 쪽수: 13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우리신학연구소

7. 목차

1. 머리말
2. 천주교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본 가톨릭의 한국화
3. 1980년대 이후 가톨릭 사회운동의 상대적 침체
4. 1980년대 천주교사회운동이 직면한 도전

8. 연구목적

천주교사회운동의 사회참여는 한국사회의 변동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톨릭의 한국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이념, 행동목표, 조직적 특성을 중심으로 천주교사회운동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개관하는 가운데 각 시기별로 천주교사회운동을 가톨릭의 한국화라는 견지에서 평가하려는 것이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나아가 천주교사회운동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9. 연구내용

필자는 천주교가 오래 전부터 이미 ‘한국화’의 길을 밟아 왔다고 보고 1930년대 가톨릭의 동향에서부터 이를 추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화’란 한국적 실정에 맞는 종교로 천주교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종교는 ‘예언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종교가 종교의 본래적인 사명과 함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인데, 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종교가 현지 사회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성격의 ‘한국화’가 1931년에 소집된 조선주교회의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는 교회와 신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반면, ‘반공’을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 전시동원체제에 동원되어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해방 직후 가톨릭은 확고하게 우익진영에 속해 있었으며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정교분리 움직임에 따라 사회참여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다만 1958년 서울의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JOC)가 첫 출발에 나서 1961년 최초의 ‘전국평의회’를 개최하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의미 깊은 변화를 예고하는 전조라고 언급하였다.

필자에 의하면 천주교사회운동의 발흥은 1960년대라고 할 수 있다. 5·16쿠데타 이후 제도정치권에 속하여 있던 장면 등과 같은 가톨릭평신도 지도자들이 몰락해간 반면 대학과 공장지대, 농촌, 도시빈민 주거지역 등의 현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도력이 빠르게 형성되어갔다. 특히 JOC는 1960년대 중반을 고비로 육체노동자 중심의 조직, 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을 명백히 하였고 1966년에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가 발족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1960년대 초이래 한국사회의 급속한

재구조화에 따르는 현장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친미·반공·분단지향적 정치지형 자체를 비판적으로 문제시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자유공간’을 확보할 단초가 마련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았다.

1970년대 가톨릭의 사회운동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잉태한 진보적인 신학흐름들과 접촉하면서 급진전하였는데 1974년에 발족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필자는 보았다. 이어서 이들 사제집단이 현장활동가를 고무하고 적절한 신학적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 민중 속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유기적 지식인’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가톨릭의 한국화’라는 견지에서 보자면, 이 시기의 천주교사회운동은 한국천주교회사상 처음으로 ‘가톨릭의 한국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1970년대는 7·4공동성명을 계기로 대화상대로서의 북한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와의 유착상태를 타파함으로써 정권의 안보와 통일운동간의 오랜 연계고리에서 벗어나 통일문제를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둔 시기라고도 평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방신학이 활발하게 수용되어 천주교사회운동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자양분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진보적인 가톨릭 신앙의 확립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고도 보았다.

천주교사회운동은 1980년대에도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평신도운동 자체의 독자적이고 전국적인 조직화가 시도되었던 점, 통일운동의 열기가 교회 안으로 흘러든 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사회운동세력이 공유할 이념과 조직, 신학의 부재로 침체에 빠지게 되었으며 고위 성직자층의 비판으로 운동세력의 활동폭이 좁아져 교회쇄신운동이 운동의 주요영역으로 부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가톨릭사회운동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운동세력 내에서 ‘생활공동체운동’ 및 사제단 등을 중심으로 한 ‘교회쇄신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톨릭의 한국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가톨릭의 한국화’를 위해서는 다원화된 사회여건을 수용하고 ‘그리스도교기초공동체’ 건설을 통한 참여 및 민주주의운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0. 연구의의

필자는 1970년대 가톨릭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일종의 ‘유기적 지식인’으로 기능하

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개신교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성과들에서 개신교 사회운동 지도자들을 ‘중간집단론’에 의거하여 ‘중간집단’으로 해석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양자를 비교하는 것도 그리스도교 사회운동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유기적 지식인’과 ‘중간집단’은 결과적으로 소수 엘리트 위주의 운동을 지향함으로써 대중적인 고립과 사회운동의 영향력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1980년대의 상황이 이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가톨릭사회운동이 ‘공동체운동’과 교회쇄신을 통한 신자층의 확보에 주력하려 한 것은 이와 관련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향후 개신교 및 가톨릭의 사회운동이 대중성을 획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적 신학’의 수립이 운동의 저변확대와 한국민족주의와의 결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1. 제목: 「국가, 시민사회와 가톨릭교회의 관계-제5공화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9-2

2. 저자: 강경애

3. 발행연도: 2000년

4. 쪽수: 32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성신여자대학교

7. 목차

1. 서론
2. 가톨릭교회의 분화와 유형
3. 5공화국의 성립과 자유주의적 교회의 분화
4. 사회운동세력의 급진화와 민중교회의 분화
5. 제5공화국과 가톨릭 양태
6. 맺음말

8. 연구목적

유신체제의 붕괴와 제5공화국의 탄생 그리고 제5공화국 전반을 통한 정치, 사회민주

화운동이라는 교회외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가톨릭 양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정리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필자에 의하면 ‘가톨릭양태’란 ‘국가를 매개로 하는 가톨릭교회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 같은 개념정의에 따라 시민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교회의 행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려 하고 있다.

9. 연구내용

필자에 의하면 제5공화국 하에서의 가톨릭교회의 정치, 사회적 참여는 정치질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라는 교회 고유의 사명의식의 발로이다. 그런데 이 고유한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처한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 의하여 구체화되며 다른 한편으로 제도로서의 교회가 갖는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하여 한계 지워지게 된다.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1970년대가 교회와 국가간의 ‘상호인정’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였다고 규정하고 이를 ‘호민관적 가톨릭 양태’라고 이름 붙였다. 이에 비하여 1980년대의 교회는 광주민주화운동과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을 겪으면서 자유주의적 교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게 되었고 다른 사회운동의 급진화와 함께 교회의 일부분 역시 급진화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가톨릭 내에서 사회참여를 주도한 민중교회는 ‘정치적 민중교회’와 ‘사회적 민중교회’로 분화하였고 이를 통하여 하부운동의 활성화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공화국 하에서의 교회는 계속적인 분화를 통하여 분파가 많이 등장하였고 이들 분파는 또 국가 및 시민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어 가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이 등장하게 된 원인으로 필자는 교회가 과거의 ‘호민관적 성격’을 벗어버리고 군사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80년대의 가톨릭교회는 시민사회의 저항세력에 정치적인 지원을 하고 민중적 지지를 중재하여 민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일조하였던 점에서 ‘보당적 가톨릭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보당적 가톨릭 양태’ 하에서의 교회는 공동체교회 즉 민중교회의 급진성을 흡수하는 ‘제도화의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회적 권위의 근원을 신적인 질서에서 찾았던 가톨릭교회의 철학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80년대 ‘보당적 성격’ 하에서의 가톨릭교회는 분파를 지양하고 일치된 형태를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10. 연구의의

필자는 가톨릭교회가 보수적 자유주의, 중도적 자유주의, 급진적 자유주의로 이동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변화를 민중교회의 활성화에서 바라보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가톨릭교회 내에는 제도교회와 민중교회가 대립하고 있다가 후자가 점차 전자에 흡수되어 가는데, 이는 교회의 자기정체성 확인과정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필자는 제도교회, 민중교회, 국가의 3주체를 설정하였고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 가톨릭의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3자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제도교회, 민중교회의 개념규정 및 성향에 대한 보다 엄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톨릭 교리 내부적으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밝힐 필요도 있다. 필자는 '민중교회'의 존재 자체를 사회참여 기제로 설명하고 있는데 '민중교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는 여전히 사회참여의 기제와 방법론에 대해 밝힌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제목: 「유신시대 명동성당에서의 민주화운동」, 『가톨릭사회과학연구』 10

2. 저자: 김녕

3. 발행연도: 1999년

4. 쪽수: 23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가톨릭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1. 머리말

2. 교회의 정치적 개입, 예언자적 역할, 교회-국가 갈등과 교회 내 갈등

3. 주요사례들

1) 1960년대와 한국가톨릭교회

2) 유신시기의 주요사례들

4. 맺음말

8. 연구목적

유신시대 명동성당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명동성당의 위상과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명동성당은 민주화운동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종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이 명동성당을 통해 시작되었고 부각되었기 때문인데 명동성당의 민주화운동을 살핌으로써 유신시대 명동성당이 주는 메시지를 음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밝히고 있다.

9. 연구내용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실행으로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되어 사회경제적 구조와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사회의 피폐화, 이농현상, 도시빈민의 양산과 빈부격차의 심화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지적하면서 필자는 가톨릭에서도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언급하고 명동성당의 상징적 위치, 및 명동성당을 배경으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를 간략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명동성당은 1962년 6월 서울대교구의 주교좌 본당이 되었고, 1969년 4월에 김수환 대주교가 추기경에 선임되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진보적이고 초교파적인 입장으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직자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여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신하도록 격려했다고 한다. 유신체제가 성립된 전후, 박정희는 경제성장의 무리한 수행이 낳은 모순들이 낳은 경제위기, 1971년 닉슨독트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정책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는데 이를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갖은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이런 가운데 명동성당은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1974년의 '지학순 주교사건'과 정의구현사제단의 결성,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등이 라고 소개하고 있다.

- 1) 지학순 주교사건 - 1974년 7월 6일 원주교구의 지학순 주교가 체포된 사건은 주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진 위해로서 본격적인 교회-국가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지학순 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에게 '민청학련'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결성되었다. 당시 명동성당에서는 대략 2,000여 명의 사제와

신자들이 시국선언서를 발표하였고 거리 시위를 벌였다.

필자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무릅쓰고 바람직한 사회, 정치적 변화를 위해 투신하라는 규범적인 힘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민주화라는 시대의 사명을 각성할 수 있었고 전국성년대회 등 정치시위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개신교 지도자들과도 연대하여 신구교가 연합하여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2)명동 3·1사건 -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념미사를 통해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된 사건이다. 이 선언문의 3대 주제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나라를 세울 것, 경제입국의 구상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 민족통일을 추구할 것 등이었다. 이 사건은 정부와 교회 사이의 갈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미의 경우 독재정권은 교회의 개입에 대해 “교회성직자들이 정치에 간섭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맑스주의자들이 침투하고 있다”고 선전공세를 펼쳤는데 이러한 방식이 명동3·1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인간회복, 인권회복, 민주회복을 바라는 재야인사들이나 일반국민들과의 연계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필자에 의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두드러졌던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는 한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교회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교회 내의 분열도 빚어졌으며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라는 또 다른 사명을 교회에 부과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90년대에 들어와서 김영삼 정부의 부도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유신시대 이래의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화가 형식적으로나마 진전되면서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교회의 탈정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 교회는 민주·반민주의 갈등구도보다는 더 지평을 확대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천명해야 하고 명동성당도 이러한 소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끝을 맺고 있다.

10. 연구의의

명동성당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짚어보고 명동성당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살핀 것으로서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민주화운동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 제목: 「1970년대의 한국교회와 정치」, 『가톨릭사회과학연구』 4

2. 저자: 한용희

3. 발행연도: 1987년

4. 쪽수: 21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가톨릭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I. 서론

II. 활동내용으로 본 분석

1.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
2. 농민의 권익을 위한 활동
3. 교권수호를 위한 활동
4.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
5. 언론자유를 위한 활동
6. 유린당한 인권수호를 위한 활동
7. 양심수호를 위한 활동

III. 활동주체를 중심으로 본 분석

1. 주교단
2.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3.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4.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5. 신구합동 사회선교활동
6. 분석과 평가

8. 연구목적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천명하며 가톨릭교회가 사회에 관한 자기교리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1970년대의 천주교회 활동이 이를 충실히 실천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천주교회의 사회참여활동을 제시한 글이다.

9. 연구내용

1970년대 한국 천주교회의 사회참여활동은 노동자, 농민, 언론자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하에서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 - 1978년 동일방직 노조지부에 사주축이 오물을 뿌리는 등 탄압사건이 일어나자 인천교구 사제단이 이들을 돕기 위하여 시작한 운동을 들 수 있다. 인천교구 사제단은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으며 김수환 추기경도 강론을 통해 노동조합 결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는 사항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이 때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임을 밝히고 힘없는 이들을 위하여 참된 봉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 2) 농민의 권익을 위한 활동 - 농민의 권익을 위한 활동은 ‘함평고구마사건’이 대표적이다. ‘함평고구마사건’은 1976년 농협측이 함평군 농민들에게 생산된 고구마를 전량 수매하겠노라고 약속하고서도 이를 어겨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전남 가톨릭농민회는 투쟁을 결의하고 각 분야에 걸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결국 농협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 3) 교권수호를 위한 활동 - 교권수호를 위한 대표적인 사건은 ‘7·6사건’이다. 이는 1978년 7월 5일 전주교구의 신부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찰측에서 대형버스를 동원하여 경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사제측이 항의하며 일어난 사건이다. 경찰은 문정현 신부를 비롯하여 박종상, 문규현 신부를 구타하고 이들을 유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수환 추기경과 지학순 주교가 직접 나서 교권수호를 위한 미사를 올리는 등 당국에 대하여 항의를 표하였다.
- 4)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 - 민주주의를 위한 교회의 사회참여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1974년 10월 9일에 있었던 전국성년대회와 1976년 3월 1일의 명동기도회사건이다. 1974년 10월 가톨릭신학대학 교정에서 열린 전국 성년대회에서는 김재덕 주교가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사회참여를 촉구하고 지금까지의 안일한 생활을 반성하자는 강론을 펼쳤다. 이 강론 후에 사제들은 구속된 지학순 주교의 석방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외치며 혜화동 일대에서 대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 ‘명동기도회사건’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카톨릭 성직자를 포함한

개신교목사, 재야인사들이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문정현, 함세웅, 김승훈, 장덕필 신부 등이 연행되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한 모임이 12월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발표된 「민주구국선언」은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 회복, 경제발전, 통일 등을 주창한 것으로서 억압적인 시대현실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한 점에서 의의가 깊다.

- 5) 언론자유를 위한 활동 - 19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천주교회는 이들을 적극 후원하고 기도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 6) 유린당한 인권의 수호를 위한 활동 - 부당하게 유린당한 인권을 위한 활동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혁당사건'이다. 천주교회는 '인혁당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탄원서를 받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무죄변론을 맡아 다각도로 활동을 펼쳤으나 결국 사건관련자들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야 했다.
- 7) 양심수를 위한 활동 - 양심수를 위한 활동은 주로 기도회를 통하여 양심수를 기억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활동을 개관함과 아울러 70년대 사회참여를 다시 그 활동주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교단 -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사회문제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12회에 달한다. 그 중 정치질서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 것은 1974년 10월의 「한국주교단 사목교서」, 1975년 2월의 「한국천주교 주교단 메시지」등이며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1971년 「한국주교단 공동교서」를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다.
- 2)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1976년 8월에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1976년 11월 '명동성당 3·1절 미사사건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를 비롯하여 1977년 2월 시국기도회, 同年 3월의 「3·1시건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발표 등 각종 인권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 3)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 1974년 7월 지학순 주교가 정보기관에 의하여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처음 지학순 주교의 석방을 위

해 노력하다가 차츰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에 저항하는 여러 운동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혔다.

- 4)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많은 기도회를 개최하고 성명서, 선언문, 결의문 등을 발표하였다.
- 5) 신구교 합동사회선교활동 - 신구합동 사회선교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974년 11월에 조직된 민주회복국민회의, 3·1절 명동기도회 등이 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민주주의의 확립과 신장이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침묵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민주국민헌장」등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소위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운동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3·1절 명동기도회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유명한데 함석헌, 정일형, 문동환, 이문영, 안명부, 서남동, 김대중, 윤보선 등이 참가하여 사회 여러 분야를 망라한 단결을 과시하였다.

필자에 의하면 사례들 중 한국주교단은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소극적인 측면을 보였으며,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헌신적으로 활동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가끔 주교들의 비협조로 그 활동이 저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교회의 공식단체는 아니지만 주교단의 가르침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민중적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었다고 지적하는 한편으로 때때로 사제들 간의 불일치를 노정시켜 사제단 분열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평신도의 사회정의운동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전개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 평신도들이 사회정의운동을 방해하거나 분열시키려 하여 결과적으로 교회 내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10. 연구의의

가톨릭 사회운동의 추이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주교단과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중요단체들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드러낸 것이 이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학순 주교사건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적절히 소개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3)농민·노동·빈민운동

1. 제목: 「慶北地域 農民運動史研究, 1976~1994 -安東가톨릭농민회 활동을 중심으로」

2. 저자: 김종헌

3. 발행연도: 1995년

4. 쪽수: 183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경북대학교

7. 목차

1. 서론

2. 경북지역 농민운동의 출범

1) 초기 농민운동의 태동

2) 출범기 조사사업의 전개

3) 현지 농민교육의 전개와 그 현황

4) 농민운동의 전개와 안동농민회 탄압사건

5) 태동기 안동 가톨릭농민운동의 성격과 그 내용

3. 안동 가톨릭농민운동의 성장기

1) 1980년대 전반기의 농업정책과 농민들의 대응

2) 성장기 조사 및 교육활동의 전개와 그 내용

3) 지역별 실천활동의 전개

4) 전국적 과제활동

5) 성장기 안동 가톨릭농민운동의 성격

4. 안동 가톨릭농민운동의 고양기

1) 80년대 후반의 농정의 변화와 농민의 대응

2) 고양기 조사 및 교육활동 전개

3) 기본활동의 전개

4) 농민생존권 쟁취운동의 전개

5)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

- 6) 고양기 안동 가톨릭농민운동의 성격과 대중화
5. 안동 가톨릭농민운동의 전환기
 - 1) 농민운동 방향전환의 배경
 - 2) 새생명 공동체운동의 이념
 - 3) 안동가농의 새로운 방향모색
 - 4) 전환기 새생명공동체 운동의 성격과 농민의 반응
6. 안동가톨릭농민운동의 특징과 평가
 - 1) 경북북부지역의 농업환경과 농민운동의 조건
 - 2) 가톨릭농민운동의 성격
 - 3) 가톨릭농민운동의 전환과 그 의의
 - 4) 가톨릭농민운동의 의의 및 한계
7. 요약과 전망

8.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경북지역에서의 농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경북지역의 농민운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경북지역 농민운동이 조직화 되어가는 양상, 농민의 권익향상 정도 등을 파악하려 한다고 필자는 밝히고 있다. 또 나아가 1990년 4월 ‘전국농민총연맹’의 결성 이후 가톨릭농민회가 ‘새생명공동체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가운데서 현실적인 농민운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9. 연구내용

이하 본문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경북지역 농민운동은 소수의 안동가톨릭농민회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안동가톨릭농민회는 태동기부터 농업, 농민문제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농민들에게 인식 시키려 노력하였다. 각종 조사활동과 교육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가 1978년 12월 창립된 후 안동가톨릭농민회는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현장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여러 안동농민회탄압사건을 겪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안동가톨릭농민회는 벼품종 선택권 쟁취투쟁, 수세시정, 강제출자거부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1960년대 사회선교의 하나로 출발한 한국가

톨릭 농민운동이 1970년대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경북지역도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안동가톨릭농민회는 1980년대 전반기에 농촌사회 민주화와 현장조직력 강화, 재정 자립도 증가 등으로 성장하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와 실시된 농업협동조합, 농기개량조합 등 농민관련단체의 민주화운동과 쌀 생산비 보장운동 등으로 안동가톨릭농민회 운동의 성장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한국가톨릭농민회가 1970년대 후반에 전개했던 사업임을 고려할 때 다소 문제인식이 늦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부터 이 지역에서 나타난 농민운동의 과제로 농업세제시정활동이 있다. 이는 농지세, 수세 등 부당한 세제를 시정하는 활동으로 세법바로알기운동과 올류농지세작물생산비 조사 등을 통해 전개되었다. 1982년의 경우 조합민주화를 위하여 집중지역을 설정하여 활동하였는데 조합장 선출에 계획적으로 참여하여 총대회를 활성화하였으며 농민활동의 선전도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농민회에 대한 거부반응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 및 문화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농민과의 신뢰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활동은 몇 개의 분회에서만 시행되었고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마을의 구체적인 문제를 일부 신도와 농민회원 중심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안동가톨릭농민회운동의 고양기는 1980년대 후반기이다. 이 때에 들어오면 경북지역 농민운동은 그 조직과 이념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농민운동의 대중노선과 자주적 농민운동조직의 등장, 그리고 농민운동의 전국단일조직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기에 안동가톨릭농민회는 농촌사회의 민주화와 농민운동의 통일과 질적인 발전에 그 목표를 두고 지역별로 대중적 군농민회 결성을 강화하였다. 지역농민들은 그 동안의 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투쟁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정치권력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의 소몰이 투쟁은 농민들이 직접 나서는 대중적인 정치투쟁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군단위의 시장에서 가두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과거 기도회 형식의 투쟁과는 큰 차이점을 보였다. 한편 1988년의 고추투쟁으로 표출된 농산물 가격문제는 전 농민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문제였다. 또 이는 제국주의 수탈에 대한 농민적 투쟁이라는 점에서도 이 시기 농민운동의 핵심적 과제였다. 지역농민들은 고추투쟁과정에서 농민운동의 대상을 명확히 찾아내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군단위에서 농민운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농민운동은 안동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고추투쟁과정에서 고양

된 열기를 조직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채 선언적인 투쟁에만 집중한 시기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대중적 투쟁을 담당할 조직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군단위 조직이 경북지역에 확산되었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연대들이 형성되기도 하여 경북지역에서도 협의체 구성이 모색되었다.

1989년 이후 안동가톨릭농민회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농민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전국적 조직의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새생명공동체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안동가톨릭농민회도 새생명공동체 운동의 실천방법으로 우리농산한생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농산한생명운동은 정부의 정책이나 관에 대한 거부운동에서 벗어나 이와 공존하려는 운동이다. 이에 따라 가톨릭농민회는 마을단위의 생산생활협동반을 조직하고 소비자와 연대하여 농산물의 가공, 생산, 유통을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소비자와 더불어 농민이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농업문제의 심각한 측면은 외국농산물의 개방과 계층계급간의 갈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농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의 상실이다. 이로 인해 농업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문제의 해결은 농민으로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자연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농업을 바라보아야 하며 환경을 살리는 일이 농민의 주요한 사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새생명공동체운동은 이 점에서 단순히 공해가 없는 농산품을 먹자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회 각 부분에 생명의 세계관이 확대되도록 해야 하며, 생산자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계도해야 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운동에 동참시켜야 한다.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개방농정과 농업축소정책은 199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식량자급률은 떨어지고 농가소득도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농민운동도 점차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는 한생명사업을 전개하였다. 앞으로 안동가톨릭농민회는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환경문제를 생각하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가 바라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능력을 갖추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지역의 특산물 개발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10. 연구의의

농민운동이 거의 없었던 1960년대부터 농민단체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가톨릭농민

회의 사업을 안동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그 특성을 짚은 논문이다. 6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사업을 진행하던 가톨릭농민회는 70년대 들어와 조직활동을 강화하면서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군농민회의 개별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안동가톨릭농민회운동이 대중적인 기반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기존의 논문에서는 농민운동의 조직과 이념변화가 실증적 자료를 통해 논급되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향후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전체적인 농민운동의 구도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톨릭농민회가 대중적 기반을 어느 정도 형성하여 갔는가에 대해서는 숙고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농민운동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소수의 농민층에 의해 주도되었고 부농층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가톨릭농민회가 대중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확산시켰는가의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가톨릭농민운동의 최근 침체해 가는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파악된다.

1. 제목: 「경북지역 농민운동의 전개, 1976~1983 - 안동가농의 분회조직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2. 저자: 박래성

3. 발행연도: 1998년

4. 쪽수: 116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경북대학교

7. 목차

I. 들어가며

II. 경북 북부지역에서의 농민운동전사

III. 경북지역의 농민운동 1976~1978

1. 1976~1978년 경북지역의 농민운동의 배경

2. 농민운동의 조직

3. 농민운동의 전개

4. 소결

Ⅳ. 경북지역의 농민운동, 1979~1983

1. 1979~1983년 경북지역의 농민운동
2. 농민운동의 조직
3. 농민운동의 전개
4. 소결

Ⅴ. 결론

8. 연구목적

이 글은 경북지역의 농민운동이 성장, 발전하여온 과정을 지역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농민운동 주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가 일종의 당위적 명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으로부터 현실을 재단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실제자료를 통한 접근으로 농민운동의 진행과정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운동을 실제자료를 통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경북지역의 농민운동이 가톨릭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와 그 특질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이것에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9. 연구내용

이하 본문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경북지역에서 농민운동이 태동하던 시기에 존립하였던 조직은 1976년 한국가톨릭농민회 경북지역협의회와 안동교구의 농민사목부, 그리고 부락단위의 분회조직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이 지역에서의 농민운동을 주도한 것은 안동교구의 농민사목부와 분회조직이다. 농민사목부는 1977년 설립되어 각종 농민교육과 조사활동을 시행하였다. 당시 실시된 조사는 지역에서 농민운동을 이끌어갈 지도자 발굴과 농민운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1978년 안동가톨릭농민회가 창립된 이후에도 농민사목부는 지속적으로 교육활동과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안동가톨릭농민회가 창립된 이후에도 조직의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분회들은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설되고 있는데 처음 신설된 분회들의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적인 활동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분회들의 구성원들은 부락 내에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30,40대의 젊은 층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분회원들의 수는 10명 내외

로서 전체주민의 3%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농민운동이 대중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활동내역을 보면 안동가톨릭농민회는 부락 내의 일상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경제적 협동과 권익실천활동, 문화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경제적 협동활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작업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권익실천활동은 행정기구나 관변단체들에 의해 자행되는 비민주적인 작태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1978년까지는 분회단위의 고립적인 활동으로 전개되었으나 안동가톨릭농민회가 창립된 이후에는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경북지역에서 전개된 1983년까지의 농민운동의 특성은 철저하게 소지역, 특히 부락단위의 분회활동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분회들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1981년부터는 이사지역책임제가 실시되어 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의회와 지역운동권의 형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회들 간 및 연합회-분회 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면서 몇몇 활동의 경우에는 연합회 단위에서 함께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분회들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활동인 경우에 한하여 분회들이 참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동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이 철저하게 분회단위의 활동을 주로 하였다는 점은 분회의 활동이 지역주민의 권익과 의사를 대변하기에 용이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회들의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활동의 직접적 성과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분회들의 활동이 기존의 신앙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신앙인들의 활동이었다는 점과 경제조직을 기초로 한 생활공동체 활동이었다는 점, 분회원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폐쇄성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중적인 농민운동 전개에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역 농민운동의 성격은 1976년부터 1978년까지의 경우 종자피해보상을 비롯한 농협민주화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아직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아 주로 지역 내의 단체를 대상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는 부락민주화활동이 주된 활동이었으며, 수세와 농지세를 비롯한 각종 농업관련 세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점하였다. 이 시기에는 직접적으로 국가를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가톨릭농민운동은 활동가 중심의 운동이며,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괴리와 위화감이 내재하여 농민대중의 운동으로는 전화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농민대중의 직접적인 투

쟁보다는 협상과 타협에 의하여 전개되어 왔고, 직접적인 당사자보다는 나서서 주도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사실 경북지역의 농촌은 특유의 보수성과 동족부락 내의 강력한 가치규제로 자생적인 농촌운동이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외부집단에 의하여 농촌운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작된 농민운동은 대체로 마을 단위의 분회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들 분회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획득해간 것을 알 수 있었다.

10. 연구의의

안동가톨릭농민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톨릭농민회가 대중적인 기반을 확보해가면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운동의 방향을 달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글은 가톨릭농민회가 분회활동을 통해 보다 대중적인 관심을 표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신앙단체에서 발전된 점,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된 점에서 대중적인 활동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점은 가톨릭농민회 운동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서 향후 많은 연구를 통해 보다 엄밀한 분석을 요하는 부분이다.

1. 제목: 「가톨릭농민운동-한국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67

2. 저자: 정호경

3. 발행연도: 1984년

4. 쪽수: 8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경북대학교

7. 목차

1. 서론
2. 태동기(1964.10~1971)
3. 성장기(1972~1980.5)
4. 성숙을 지향하며(1980.5~1983)

8. 연구목적

가톨릭농민회의 연혁과 활동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작성한 글이다.

9. 연구내용

가톨릭농민회의 역사를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내에 농촌청년부로 시작된 1964년부터 1971년까지를 태동기,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1972년부터 80년까지를 성장기, 이후 83년까지를 성숙기로 분류하고 있다. 태동기에는 기성조직의 강화와 조직 확대에 주력하였고 전국단위의 농촌지도자교육에 착수하면서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을 추구하였다고 필자는 정리하고 있다. 성장기에 들어와 가톨릭농민회가 농민문제의 주체적인 해결조직으로 조직의 방향을 확정짓고 사회선교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평가하였다. 이 시기 주요 활동으로는 농협강제출자 거부, 신용협동조합조직, 경지정리 피해보상활동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이시기에 민주화운동의 확대와 함께 농민단체도 농민대회개최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활발히 나섰다고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7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농민운동에 대한 성찰분위기는 1980년대에 심화되어 70년대 운동의 부족함을 자인하면서 이데올로기보다는 삶의 문제, 생명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하고, 가톨릭농민운동의 성숙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농민회는 주로 조직의 질적 고양과 그 관리에 주력하였고 정부와의 공식적인 대화도 가졌다고 활동을 소개하였다.

10. 연구의의

가톨릭농민회의 전체적인 역사를 조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를 분석하는 글은 아니며 가톨릭농민운동의 시대적 배경 및 논리적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

1. 제목: 「가톨릭 노동청년회(지오씨)운동」. 『신학전망』 67

2. 저자: 조여옥

3. 발행연도: 1984년

4. 쪽수: 6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7. 목차
 1. 서론
 2. 지오쎬 운동의 발전과정과 시대적 배경
 3. 가톨릭 노동자 운동으로 양성
 4. 격동하는 시대적 상황과 지오쎬 운동
 5. 공장 안에 그리스도를 찾자
 6. 25년 지오쎬 운동의 반성과 전망

8. 연구목적

지오쎬 운동을 소개하고 그 연혁을 정리함으로써 가톨릭노동운동의 현단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대체로 지오쎬 운동의 연혁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하 본문내용을 요약하며 소개하고자 한다.

9. 연구내용

지오쎬란 노동하는 인간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재를 체험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치를 발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상실한 인간존엄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가톨릭 노동운동이다. 이 노동운동은 192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까르맹 추기경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한국에서는 불란서 유학시절 직접 이를 체험한 경험을 가진 박성중 신부에 의하여 1958년부터 시작되었다. 초창기는 주로 봉사활동 위주로 운동을 시작하여 불우청소년 지원과 선도, 무료식당경영 등에 주력하였다.

1963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의 지오쎬 활동은 그 방향을 점차 임금노동자 속으로 파고들어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임금노동자들이 지오쎬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과 민주노조의 결성 등이 그 주된 활동내용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자들은 더욱 혹사당하고 농촌에서 이주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나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과 독재로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는 지식인, 학생, 노동운

동가들은 극심한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1969년을 기점으로 지오쎬 운동은 ‘공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노동자의 의식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극심한 탄압에 대한 대책으로 핵심지도자 양성교육을 시행하여 소수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지오쎬 운동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비인간적 노동환경을 느끼면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노동자 양성에는 부족한 감이 있으며 공장 안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고민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전인적인 노동자’의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10. 연구의의

지오쎬 운동의 연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통일운동

1. 제목: 「분단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2. 저자: 유경춘

3. 발행연도: 2002년

4. 쪽수: 10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가톨릭대학교

7. 목차

1장 한반도 분단의 현실

1)탈냉전의 도래와 통일환경의 변화

2)분단의식의 생산과 재생산

3)분단과 국내정치

4)군사적 대립

2장 교회 통일사목의 원리

1)통일사목의 의미

2)그리스도교적 화해의 의미

3)성서에서의 통일의 원리

4) 삼위일체 하느님의 Communion과 교회의 통일사목

3장 분단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 1)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 2) 민족의 화해를 위한 교회의 반성
- 3) 국가보안법과 교회
- 4) 북한이탈주민
- 5) 북한 복음화를 위한 노력

8. 연구목적

천주교회가 통일에 대하여 가지는 입장을 밝히고 통일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글이다. 분단극복을 위해서 한국천주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북한의 복음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응책 등을 필자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9. 연구내용

필자는 1장에서 세계적인 차원의 탈냉전 상황이 도래했고 한반도에도 냉전이 극복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냉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수립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남한사회에 뿌리깊은 냉전의식이 군부통치를 거치면서 확대재생산 되었다고 지적하고 남북간의 대립이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손실을 끼쳤으므로 향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장에서는 통일을 추구하는 천주교회의 노력으로 '통일사목'의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통일사목'이란 분열을 죄의 결과로 파악하고 화해와 용서로 분열을 극복하는 길을 신앙적인 길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설명하였다. 마지막 3장에서는 분단극복을 위해 교회가 기울일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활동이 남북 민간사이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향후 천주교회가 국가보안법, 북한이탈문제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지속적으로 남북화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 복음화 즉 북한선교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재건주의노선' 즉 북한의 천주교회를 복구하는 데에 목표를 둔 선교활동이 결국 흡수통일의 논리와 맞닿아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선교'는 좁은 의미의 선교와 넓은 의미의

선교가 있는데 전자는 오로지 복음의 선포에만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분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하고 대북지원사업과 교류를 병행하는 후자의 입장을 채택하자고 역설하였다.

10. 연구의의

통일에 대한 천주교회의 관심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1970년대 이후 통일문제에 대한 천주교회의 전반적인 반응과 그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다. 천주교회가 통일문제에 대해 여타 사회운동세력에 비해 약간은 소홀했다는 평가가 타당한지의 여부, 천주교회가 통일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향후 천주교회의 사회참여운동을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제목: 「한국통일과 가톨릭교회의 입장」. 『가톨릭사회과학연구』 3

2. 저자: 양한모

3. 발행연도: 1984년

4. 쪽수: 13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가톨릭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1. 머리말
2. 문제의 소재
3. 복음적인 민족통일
4. 복음선교와 통일
5. 복음적 통일의 개념
6. 복음적 통일의 기본원리
7. 한국천주교회의 통일책임과 입장
8. 맺음말

8. 연구목적

필자에 의하면 교회가 종교라는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여 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통일정책의 수립이나 통일운동의 전개를 위한 철저한 토대를 만드는 일이 매우 긴요한 것이며, 또 내면적으로 복음정신에 의거하여 통일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의의를 지니는 일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내면적 정신토대의 구축과 통일정책의 수립을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겠다는 의도로 이 글을 작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9. 연구내용

통일문제는 주로 국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취급되어 왔다고 전제한 뒤 분단이 민족의 의사와 반대되게 강행되었기에 민족 내부의 구심적 협력과 단결에 의하여 민족의 자결능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통일문제는 민족성원인 남북의 일반대중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닐 때 관념적인 통일놀음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당국에서 국민대중의 통일의지를 수렴하는 동시에 북한의 동포를 상대로 하는 통일노력을 통하여 국민대중의 통일운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적 하에 필자는 복음이 통일을 당위적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조국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은 분단선을 헐어버리고 민족의 남과 북을 화해시켜 하나로 통일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고백만이 정치체제, 사회제도,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깨고 통일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민족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이 곧 통일을 당위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며 신앙을 갖는 행위 자체가 통일운동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종교의 ‘예언자적 사명’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서 종교자체가 사회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에 의하면 현재 남북한은 각기 다른 두 개의 통일노선을 내세워 나름대로 통일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고, 통일은 어디까지나 복음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필자가 제기하는 ‘복음적 통일’이란 민족의 분열과 대립으로부터 해방되고 화해시키는 과정이 우선되는 것을 일컫는다. ‘복음적 통일’을 지

향할 때 “참회의 정신으로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복음적인 통일론’은 자유, 정의, 진보, 평화, 형제애를 중시하는 통일관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10. 연구의의

가톨릭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쓴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그러나 가톨릭에서 중시하는 가치관을 통일운동의 방향으로 주창한 것은 종교적 사명이 사회현실적 문제와 결부되어 제기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의미가 있다.

1. 제목: 「신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가톨릭사회과학연구』

2. 저자 : 변진홍

3. 발행연도 : 1999년 11월

4. 쪽수 : 42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7. 연구목적

이 글은 1996년 가톨릭대학 성신캠퍼스에 개설된 북한학 강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를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천주교회의 통일사목에 대한 신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이후 천주교 통일운동의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통일문제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관점에서 다원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민족통일방안의 정책적 결정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문제의식이다.

8. 연구내용

본 연구조사는 대부분 설문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두 262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중 247부가 회수되어 94.2%의 응답률을 보였다. 필자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 통일가능시기, 바람직한 통일방식, 통일 후 체제, 분단의 지속원인,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 통일비용감수여지, 남북교류, 국가보안법문제,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경로와 북한에 대한 이해의 정도, 천주교 통일사목에 대한 평가, 천주교통일운동 방안 등의 문항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통계처리한 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가톨릭 신자들의 통일관이 비신자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신학교 저학년생보다 고학년생들이 통일에 적극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조사대상 신학생들의 80.9% 정도가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점과 20년 이내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76%이상이었던 점을 들어 통일에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0%가량이 통일 후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점에서 필자는 신학생들의 인식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필자에의 조사에 의하면 신학생들은 대부분 통일을 당위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통일사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신학생들은 대부분 통일사목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북한체제와 교회에 대하여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서의 직접적인 사목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통일사목의 실천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는 통일을 당위적인 차원에서 사고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관련 연구소의 활성화, 기타 제도적인 장치의 확대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9. 연구의의

80년대 가톨릭교회의 통일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된 것과 달리 최근 통일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일사목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통계 조사에 그쳐, 향후 통일사목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1. 제목: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의 역할과 전망』. 『사목』

2. 저자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3. 발행연도 : 2001. 6.

4. 형식 : 일반논문

5. 발행처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6. 연구목적

최근에 이르러 한국천주교회가 북한지역 복음화를 위한 활동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유래와 활동목표 등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7. 연구내용

1999년 한국가톨릭교회는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족의 화해를 통한 통일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 글은 민족화해위원회의 유래와 구성, 활동목표를 간략히 정리하고 2001년도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민족화해위원회는 1982년 12월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북한선교부’로 출범하여 기도운동 및 연구 활동에 주력하다가 1999년 10월 추계 주교회의에서 명칭을 민족화해위원회로 개칭하여 전국적인 차원으로 활동을 확산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각 교구와 수도회별로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 등의 형태로 모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주교회의의 산하로 통합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 의하면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목표는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형제적 나눔을 실천하며 북한교회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목표 하에 2000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강의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옥수수 등 기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대북지원사업 등을 주로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01년도의 주요활동목표로는 민족화해를 위한 기도모임, 대북지원 지침마련을 통한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 남한정착 북한주민 지원사업 등이 있다고 하였다.

8. 연구의의

이 글은 본격적인 연구논문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최근 가톨릭교회의 통일운동 방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제목: 한국천주교의 통일사목방향

2. 김성태

3. 연구목적

독일교회의 중국교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남한 천주교회가 북한의 천주교회 재흥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한 글로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고찰하지는 않고 주로 성사집행의 차원에서 교회 간 교류를 고찰하고 있다.

4. 연구내용

필자에 의하면 통일 이전 서독의 천주교회는 성당과 부속건물을 건립, 유지하고 자선사업을 하면서 거액의 기부금을 동독의 천주교회에 지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동독교회는 재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서독교회의 사업은 필자가 지적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적 화해의 정신에서 추진된 것으로 동독교회의 정체성 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이었다. 한편 중국교회는 공산정권의 종교부정정책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으나 1957년경부터 중국천주교애국회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필자는 지적하였다. 이는 교황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불법적인 교회였으나 80년대에 이르러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이 다소 완화되면서 그 활동이 이전에 비하여 개선되고 있다고 보았다. 중국교회 역시 홍콩 천주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양자간의 교류가 중국천주교회의 개방과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독일의 경우, 양지역 교회 간의 교류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는데 이는 동독정부가 천주교회를 불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교회는 정부의 간섭이 심한 편이어서 홍콩교회는 중국 측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홍콩 및 서독의 경우와 달리 남한 교회는 북한교회와 전혀 별개의 조직처럼 운영되었다고 필자는 지적하고, 북한 측이 선교활동을 외세의 간섭으로 이해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교회가 '카리타스'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중국을 원조하였음을 제시하면서 남한교회 내에 북한지원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5. 연구의의

동독과 중국 천주교회의 예를 들어 북한 교회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교류를 주장한 글이다. 이후 민족화해위원회 등의 기구가 가톨릭교회 내에 실제로 조직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가톨릭교회의 통일사목 방향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가톨릭 사회참여운동의 반성과 전망

1. 제목: 「교회변혁을 위한 교회론적 접근」

2. 저자: 박영대

3. 발행연도: 1997년

4. 쪽수: 18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우리신학연구소

7. 목차

1. 문제제기 - 교회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2. 80년대 천주교사회운동의 교회론의 내용과 한계
 - 가. '교회의 사명-하느님나라 건설'에 대한 이해
 - 나. 제2차 비티칸공의회와 교회론의 한계
3. 새로운 교회론을 위한 이론적 전제
 - 가. 교회변혁의 정의(定意)
 - 나. 계급사회 안에서의 교회
4. 한국천주교회의 기본 성격과 현황
5. 남미의 바닷공동체와 한국의 민중교회에 대한 고찰
 - 가. 바닷공동체의 자기 이해
 - 나. 민중교회의 자기 이해
6. 새로운 교회론을 위한 천주교민족민주운동의 시도들
7. 공동체운동의 기본 성격과 의의

8. 연구목적

1980년대 이후 천주교의 사회운동이 침체과정을 밟게 되고 천주교회 내적으로 보수적인 흐름이 대두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필자에 의하면 천주교민족민주운동론은 사회과학적인 인식과 함께 신학적인 배경을 갖추는 일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모습을 갖추 수 있다. 나아가 사회변혁과 종교변혁이 동시에 일어나 교회공동체가 양자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

다. 그러나 지금까지 천주교의 사회운동진영에서는 신학적인 이론의 정립에 소홀하였다는 것이다. 변혁을 지향하는 천주교민족민주운동은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와 교회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천주교의 사회운동 신학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9. 연구내용

필자에 의하면 1980년대 천주교사회운동은 변혁의 과제와 이의 실천을 위한 대안적 교회론을 정립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안에서 사회운동의 위치를 획득하는 데에 머물렀다. 교회가 변혁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사회변혁을 추상적인 언어로 정당화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애매한 자세는 결국 “교회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필자도 지적하듯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하여 가톨릭교회의 사회변혁론이 제시되었고 교회가 사회변혁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바티칸공의회 교회론이 여전히 성숙이원론을 견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천주교가 상당부분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성서가 내세우는 민중해방적 전통을 계승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천주교는 교회의 수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성’, ‘일치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필자는 그 같은 전통이 교회법을 우선시하는 율법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고 다시금 민중해방전통을 이어받아 교회의 내적 변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회상의 정립을 위하여 필자는 사회적 지배계층이 주도하는 교회를 반성하고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재조직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앙을 가진 신앙대중’으로 ‘대안적 교회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교회론은 바로 이러한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이론적 범주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한국천주교회가 보수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변혁의 축으로 천주교가 기능하는 데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한 뒤 물량주의, 여성에 대한 편견, 도시중심의 선교 등을 그 예로 제

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필자는 교회의 변혁을 사회변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새로운 교회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남미의 '바닥공동체운동', 개신교의 '민중교회운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의 공통점은 모두 민중 중심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 같은 운영모델을 천주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이 같은 인식에서 실제로 가톨릭청년운동과 가톨릭노동사목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민중들의 삶 속에 직접 뛰어들 것을 표방하고 노동, 농민현장에 직접 교회를 운영하는 '현장교회'를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존 제도교회의 반발이 거셌지만 사회변혁운동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교회운영, '민중의 삶에 다가가는 교회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인식은 이미 공감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향후 천주교회가 새로운 교회론으로 한 차원 진전하기 위해서는 '해방의 영성'과 '공동체 단위의 생활 및 공동체운동의 확산', 여타 사회운동세력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10. 연구의의

1990년대 이후 가톨릭 사회운동세력의 현실인식을 잘 드러내주는 글로서 의미가 있다. 개신교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민중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 활동이 중시되고 민중교회가 이를 떠맡으며 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적 격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독재정권과의 투쟁이 그 성과를 나타내면서 새로이 민중의 삶에 다가가는 활동을 지향하는 흐름이 대두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천주교내 사회운동진영의 현실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1. 제목: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중의 정치세력화론 검토」

2. 저자: 이대훈, 박준영

3. 발행연도: 1997년

4. 쪽수: 15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우리신학연구소

7. 목차

문제제기-억압의 환상과 자유의 정신

본론1-민중의 정치세력화, 시대의 징표

정치의 주인은 누구인가?/해방된 사회에서의 정치/진정한 민중의 정치세력화
와 정치관/민중운동의 사명 - 정치세력화/정치세력화의 실제근거?/이미
진행되고 있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민중의 참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

본론2-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

현 사회의 전면적 변혁이란 무엇인가/우리 사회에는 '전면적 대안'이 필요
하다./우리 사회에서 평화적 변혁은 가능한가?/최근 야권통합운동과
보수야당에 대하여/가톨릭운동의 정치세력화/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8. 연구목적

천주교사회운동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어느 정도의 정치세력화도 가능해졌다는 판단 하에 '민중적 정치세력화 노력'의 하나로 교회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가 타당한지를 모색한 글이다. 천주교가 제시하는 사랑, 연대, 화해 등의 개념은 자본의 논리로 얼룩져있는 기존정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종교적 개념에 기반 한 정치가 민중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9. 연구내용

필자는 “모든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관계 속에는 그 관계를 지속시켜야 기득권이 유지되는 사람들을 위한 보수적 이념조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낡은 관념을 버리고 ‘자유와 진리’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사명임을 성서 등을 제시하며 논증하고 있다. 성서적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있어서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란 기존 제도정치권에 정당의 형태로 진입하는 것에 국한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정치세력화를 논할 때 그 표현으로서 정당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또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당의 형태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각종 민주단체를 통한 활동 등을 그 예로서 들고 있다. 정당의 형태로 ‘민중의 정치화’가 모색될 필요도 있는데, 기존 야당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천주교사회운동세력을 비롯한 재야인사들의 도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취하고 그 낭비성을 버리는 ‘계획적 시장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 민주노조 등에서 경험된 규찰대와 같은 방어적 자위력과 평화수호에 대한 도덕적 주도권을 확보할 것, 선거를 이용한 대중적 지지의 획득과 활동의 확대할 기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톨릭교회 내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사회참여와 신앙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깊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고 있다. 신앙인들의 정치세력화는 이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가톨릭의 정치세력화를 신학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교회론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0. 연구의의

1980년대 개신교 및 가톨릭의 사회운동은 대체로 민중과의 직접적인 대면과 참여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흘러간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엘리트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대중적인 인식을 깊게 하지 못하였다는 자기반성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사회운동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이와 다른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개신교 및 가톨릭의 사회운동론이 정치적인 세력결집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제목: 「90년대 가톨릭운동의 새로운 신학적 토대에 대하여」

2. 저자: 박준영

3. 발행연도: 1997년

4. 쪽수: 20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우리신학연구소

7. 목차

1. 문제의 제기

1) 한국적 신학의 필요성

2) 가톨릭운동에서 신학의 지위

2. 80년대의 신학적 토대와 그 한계

- 1) 해방신학의 수용과 그 뜻
 - 2)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사회교리의 위상
 - 3) 민중신학의 흡수
 - 4) 80년대 신학적 토대의 총괄적 재검토
3. 가톨릭운동의 새 토대
- 1) 그리스도인 됨
 - 2) 가톨릭운동의 실천양식
 - 3) 가톨릭운동의 교회론적 자각-운동교회론
4. 맺음말에 갈음하여

8. 연구목적

가톨릭사회운동이 그 동안 많은 성과를 보여왔지만 그 과정에서 수입한 신학적 이론과 사상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여 일관된 신학이 정립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가톨릭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토대의 과학성'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이 같은 인식 하에 한국적 신학을 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이 글을 작성한다고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9. 연구내용

필자는 이미 한국에서 70년대에 해방신학이 수입되었고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학습의 대상이 되었으나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였다고 전제하였다. 해방신학은 '관찰-판단-행동'이라는 순환구조로 복음이 역사에 개입하는 과정을 밝히고, 그 복음의 실천자-재생산자로서 하느님백성 즉 가난한 이를 들어 보이는 기본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중에서 '관찰-판단-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적 실천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행동'에서 '관찰'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행동'만을 중요한 가치로 상정하여 '복음에 기반 한 실천' 보다는 실천 그 자체를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결국 실천을 위한 맑시즘의 수용도 큰 거부감이 없이 인정하게 되고 해방신학의 깊이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낳았으며 형이상학적인 실천에 머무르게 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관찰-판단-행동의 순환성에 주목하였는데, 이 특이성은 해방신학과 관련 없이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출발에서 까르딘 추기경에 의해 제기된 바로서 한국적인 신학전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적인 현실에 조응한 실천이론의 수립과 끊임없는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논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개신교의 민중신학은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중신학의 성과는 개신교에 대한 경계심, 가톨릭교회의 역량 부족, 가톨릭교회의 계서적인 환경 등으로 인하여 가톨릭운동에서 나눌 수 없었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필자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연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같은 그리스도신앙임을 자각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80년대 가톨릭운동에서 신학은 가톨릭운동에서 지도이념이 되지 못하였고 조직활동의 한 국면, 특히 교계제도와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청년학생층을 조직 안에서 의식화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쓰이는 초급무기로 그 역할이 국한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때문에 사회참여를 위한 신학은 80년대에 들어 상당히 혼란 되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숙이원론’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학’의 틀을 짤 필요가 있는데 필자는 현실 가운데서 성서적 진리를 접목시키려는 자세를 확립할 것, 영적인 쇄신을 기할 것,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집단으로서 교회”에 적용시키는 자세를 지닐 것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서 출애굽기의 ‘해방전승’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억압에 시달리는 민중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출애굽의 성서적 전승을 계승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적 신학은 한국적 사회상황에서 일어나는 억압의 실체를 진단하고 이를 출애굽이 기사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계 내에서 근래 일어나고 있는 대안교회 즉 현장교회 중심의 활동에 대해 필자는 한국적 신학의 정립을 위한 시도의 하나로 높게 평가하고 한국적 현실에 기반한 신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경험과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한국적 신학에 대한 논의는 해방신학이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신학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로서 개신교에서도 일찍부터 제기된 과제였다. 이미 개신교에서는 1930년대를 전후로 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신학의 정립을 모색하여왔고 그 과정에서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민중신학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간 것으로도 이해되기도 한다. 가톨릭에서도 ‘한국적 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이 같은 시각과 같은 인식을 가진 부류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새로운 운동의 모색과정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가톨릭에서 제기된 한국적 신학은 결국 사회참여에 관한 외 부신학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라고 이해되는데, 향후 가톨릭에서 제기된 한국적 신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제기되고 정착되어 가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1. 제목: 「80년대 천주교사회운동 평가와 90년대 천주교민족민주 운동 시론」

2. 저자: 박영대

3. 발행연도: 1997년

4. 쪽수: 14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우리신학연구소

7. 목차

1. 문제제기 - 정체성 논쟁은 계속 필요하다
2. 80년대 천주교사회운동의 정체성 논쟁의 의의와 한계
3. 최근 한국천주교회의 보수화 흐름
4. 천주교민족민주운동의 전망 - 천주교운동의 새로운 재편의 필요성
5. 맺는 글

8. 연구목적

1970년대 가톨릭의 사회참여운동을 보통 인권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 필자는 ‘가톨릭민족민주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통일과 민주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운동으로서의 가톨릭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톨릭의 사회운동을 정리하고 향후의 과제를 살피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9. 연구내용

80년대 천주교사회운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전개되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필자

가 나누어놓은 천주교사회운동의 단계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시기는 80년대 초반부터 84년 4월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가 창립되기까지의 시기로서,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경험하면서 70년대 운동방식을 반성하고 천주교사회운동의 변혁성에 대해 고민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주요 고민은 천주교사회운동의 변혁성의 근거를 확인하고 변혁운동으로서의 주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84년 천주교사회운동협의의 창립부터 87년 6월국민항쟁까지의 시기로서, 민족민주운동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사회구성체 논쟁과 변혁론 논쟁의 영향을 받아 이를 수용하려고 노력한 시기였다. 이 시기는 맑스주의이론의 일반화에 힘입어 첫 번째 시기의 고민을 보다 체계화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87년 6월국민항쟁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대중들의 가시적인 정치적 진출로 말미암아 대중노선이 실천적으로 제기된 시기였고, 한국 사회의 변혁론으로서 통일전선론이 일반화되는 시기였다.

각 시기에서 천주교사회운동이 보여준 이론상의 한계와 오류를 짚자는 이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의 이론상의 주요 과제는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천주교사회운동의 변혁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는 70년대 한국사회운동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운동의 주도권이 약화되어 가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고, 이러한 지위의 약화는 변혁성에 대한 고민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이 시기의 논의는 당시의 억압적인 정치상황으로 말미암아 비공개적으로 소모임 안에서 진행되었고, 아직 천주교사회운동의 역량이 결집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천주교사회운동이라는 자기완결적인 운동이 변혁운동의 내용과 전망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조직적인 고민과 논의였다기보다 오히려 운동에 투신한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과 변혁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는 개인적인 입장 정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시기의 이론적 과제는 민족민주운동 진영에서의 논쟁 성과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톨릭신자들은 어떠한 경로와 동력으로 변혁성을 획득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고민하지 못하여 사회구성체 논쟁 또는 변혁론 논쟁의 성과들이 결국 대중운동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실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세 번째 시기의 이론적 과제는 6월국민항쟁을 계기로 한 대중의 정치적 진출에 발맞추어 대중운동을 어떻게 벌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계급 계층적 기반을 가지는 가톨릭 신앙대중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들을 정확하게 분

석하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신자 대중들을 어떻게 단일 전선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결국 천주교사회운동 안에서 통일전선운동을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필자는 1990년대 천주교운동이 천주교민족민주운동으로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신자대중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교회 안의 민족민주전선을 확정함으로서 제반운동을 통일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운동논리로서 운동의 조직화를 목표로 하는 운동론이라고 필자는 설명하였다. 이렇게 보면 천주교민족민주운동은 연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인데, 필자는 천주교연합운동이 천주교사회운동의 대중성확보에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10. 연구의의

천주교사회운동을 연합운동적 성격 즉, 민족민주운동으로 확대시킬 것을 논한 것으로 당시 운동방향 모색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보통 개신교에서는 1980년대에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톨릭에서도 통일운동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통일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필자가 제기하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이 통일운동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이 ‘연합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IV. 참고문헌

IV. 참고문헌

1. 개신교의 사회참여운동

1) 개신교 사회참여운동의 배경

- 이삼열 외. 1896 『기독교와 사회이념』
- 김일주. 1991. 「한국의 민중적 기독교세력 등장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유경. 1984. 「197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발생배경과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섭. 1991. 「70년대 이후 진보적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고찰」 감리교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 윤승용. 1992. 「社會變動에 대한 宗教의 反應形態研究 : 산업화이후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길호. 1993. 「한국 현대사의 사회변동과정에서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제양태 연구」 감리교신학대 석사학위논문
- 최형묵. 1987. 「사회변혁운동 이념과 기독교신학- 1980년대 한국상황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복. 1991. 「민중신학과 토착화신학」. 『기독교사상』 91년 6월
- 송건호. 1984. 「기독교의 사회참여 -70년대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84년 11월
- 이영숙. 1991. 「한국 진보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사회변동 추진에 대한 연구 -1957~1984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91년 3월~5월
- 이영재. 1988. 「기독교의 사회참여」. 『서울시립대대학문화』 11
- 이원규. 1989. 「한국개신교회의 정치참여(1970년대 기독교진보주의 종교이념의 발전과 그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사회』 한국신학연구소
- 이준걸. 1999. 「사회적 성화사상에서 본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명선. 1982. 「메시아니즘과 민중운동」. 『기독교사상』 1982년 12월

2)반독재 민주화운동

- 김영일. 1986. 『한국기독교의 사회참여-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 김영철. 2001.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 김진배. 1987. 『1970年代 民主化運動：기독교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I-Ⅲ』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김홍수. 1995. 「5월 광주항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응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5
- 문장식. 2001. 『한국민주화와 인권운동：鹽光會를 중심으로』 쿰란출판사
- 변형윤. 1986. 『한국사회 발전과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 서영일. 1984. 『교회와 국가』
- 전택부. 1979. 『한국에큐메니칼운동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50주년 기념사업회. 1998.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50년사』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 『국가권력과 기독교』
- 강인철. 1994. 「한국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1945~196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섭. 1991. 「70년대 이후 진보적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고찰」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성훈. 1994. 「韓國基督教 進步勢力의 現實參與運動에 관한 研究 -維新體制期間 反體制運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재일. 1992.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길. 1996. 「韓國宗教에 있어서 體制抵抗의 政治運動과 그에 參與한 宗教指導者들의 特性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대. 1999. 「韓國民主化運動에서 教會의 政治的 役割에 對한 研究-197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순원. 1992. 「한국기독교 사회교육기관의 사회민주화에 대한 역할분석」. 『한신대신학연구』 33
- 김병서. 1989. 「사회운동과 기독교의 사명」. 『기독교사상』 1989년 5월
- 김병서. 2000.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기독교」. 『한국사회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 김상근. 1984. 「1970년대의 한국 기독교운동」. 『기독교사상』 84년 11월

- 김용복. 1979. 「한국기독교청년운동의 방향모색」. 『기독교사상』 1979년 6월
- 김용복. 1982. 「해방 후 교회와 국가」. 『국가권력과 기독교』 민중사
- 김홍수. 1992. 「한국기독교의 현실정치참여의 유형과 역사」. 『신학사상』 1992 가을호
- 박종렬. 1979. 「4.19 이후의 학생기독교운동」. 『기독교사상』 1979년 6월
- 이상규. 1994. 「해방 후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4
- 조승혁. 1986. 「민주화와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사회 발전과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 산업개발원
- 최종철. 1992. 「한국기독교 교회들의 정치적 태도 1972~1990」. 『경제와 사회』 1992 가을호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1985. 「기독교청년운동의 전개과정-70년대 이후 교청, 교단청년, EYC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역사 속의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1985. 「기독교학생운동의 역사와 과제」. 『한국역사 속의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3) 농민 · 노동 · 빈민운동

- 김용복. 1981. 『한국민중과 기독교』
-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 1998.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 조승혁. 1981. 『都市産業宣教의 인식』 민중사
-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1985. 『노동운동』 창간호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노동자운동과 산업민주주의』
- 김명술. 1995. 「한국기독교 도시산업선교의 계보」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일. 1991. 「한국의 농민운동과 국가 1964~199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동식. 2000. 「1970~80년대 개신교 지도자들의 사회운동 사상에 관한 연구」 감리교 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호. 2001. 「6월 민주화운동과 기독교사회운동」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영민. 1987. 「한국농민현실과 농민선교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연순. 1998. 「1970년대 노동교육 사례연구 : 크리스찬 아카데미 산업사회 중간집단 교육」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원배. 1988. 「한국농촌현실진단과 농민선교의 방향」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현영. 2002. 「1970년대 개신교의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원규. 1989. 「도시산업사회와 교회」. 『한국교회와 사회』 한국신학연구소
정명기. 1985. 「도시빈민선교의 이해」. 『한국역사 속의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4)통일운동

- 국토통일원. 1995. 『남북대화시대의 종교계 통일운동방향』
노정선. 1988. 『통일신학을 향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삼열. 1991.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출판사
전대련·노종호. 1986. 『한국기독교사회운동- 그 형성·전개·과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채수일. 1995.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한국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1990.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8. 『기사연리포트 7-민중의 진출과 민족민주운동』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8. 『노정권의 출범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민중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1991. 『분단의 실상과 교회의 통일운동』 한국기독교장
로회 총회교육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1993. 『민족의 희년을 향한 행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공헌배. 2001. 「문익환 목사와 통일운동-1989년 평양방문을 중심으로」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상우. 1993. 「한국개신교에 있어서의 반공이데올로기 형성과 변화」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나이영. 1992. 「분단시대 민족적 선교과제로서의 한국교회 통일운동」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정길. 2000. 「한반도상황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교회의 과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문은배. 2001. 「한국교회 남북통일운동의 흐름」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진. 1997. 「분단극복을 위한 남북한 교회의 역할과 과제」 한신대 석사학위논문
- 정순길. 1996. 「한국기독교의 민족통일운동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구. 1993. 「민족평화통일에 대한 기독교윤리의 새지평 모색 : 기독교평화운동의 모형검토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호. 1996. 「통일을 향한 교회의 이데올로기 전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우성. 1991. 「분단에 대처하는 한국 교회 : 1945년-1989년까지의 통일논의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승경. 1997.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문규. 1991. 「남북한 교회의 만남의 역사와 전망」. 『기독교사상』 1991년 8월
- 강문규. 1991. 「남북교회의 만남과 앞으로의 과제」. 『기사연 무크』 3
- 강문규. 1992. 「남북합의서 이후의 기독교통일운동」. 『기독교사상』 1992년 3월
- 김경재. 1981. 「분단시대 기독교와 민족운동」. 『민족주의와 기독교』 민중사
- 김상근. 2000.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평가와 제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자료집』
- 김용복. 1984. 「민족분단 속의 한국기독교」. 『한국사회와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김용복. 1985. 「민족분단 40년과 기독교」. 『한국사회연구』 3
- 노치준. 1995. 「분단극복과 기독교평화운동」. 『기독교사상』 1995년 6월
- 문익환. 1972. 「남북통일과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1972년 10월
- 박종화. 1993. 「평화통일신학의 쟁점과 전망」. 『목회와 신학』 93년 1월
- 손규태. 1990. 「평화를 위한 통일의 신학」. 『기독교사상』 90년 1월
- 안재웅. 1998. 「기독교 평화통일운동의 평가와 과제」. 『기독교사상』 98년 6월
- 양성모. 1998. 「민족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정. 1992. 「한국교회와 회년운동」. 『교회와 세계』 109
- 이재정. 1998. 「한국교회 통일운동과 신학적 논의」. 『신학사상』 100
- 이만열. 1996.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합동신학교신학정론』 26
- 이만열. 2001. 「한국기독교와 통일운동」. 『한국기독교사연구』
- 이삼열. 1988. 「한국 기독교와 통일운동-교회협의회 선언의 입장과 배경」. 『기독교사상』 88년 7월
- 임진철. 1990. 「80년대 한국기독교운동과 민족민주운동」. 『기사연 무크』 1
- 임흥기. 2001. 「현단계 평화통일운동과 교회의 과제」. 『기독교사상』 2001년 6월
- 주재용. 1981. 「한국교회의 통일론」. 『기독교사상』 81년 6월

5)개신교 사회참여운동의 반성과 전망

- 조원경. 1985. 「1960년대 이후 한국기독교운동에 대한 신학적 반성」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희만. 1922. 「한국민중교회운동의 평가와 전망」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흥화. 1988. 「전환시대의 기독교운동 : 첨단기술시대와 정신문화」. 『기독교사상』 1988년 9월
- 김명수. 1992. 「한국교회의 민중운동과 민중신학의 미래」. 『기독교사상』 92년 11월
- 김상근. 1990. 「민중의 교회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씨의 소리』 118
- 김인수. 1987. 「개혁운동의 문제점을 재조명한다. : 교회와 개혁」 『목회』 133
- 박성준. 1989. 「한국기독교의 변혁과 기독교운동의 과제」. 『신학과 실천Ⅱ』 한국기독교 학생회총연맹
- 박종화. 1988.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평가와 전망」. 『교회와 세계』 71
- 서용원. 1988. 「기독교청년운동과 미래의 방향」. 『기독교사상』 1988년 10월
- 안병무. 1982. 「민족 · 민중 · 교회」. 『민중과 한국신학』 한국신학연구소
- 이승봉. 1992. 「한국민중교회 운동의 전망과 과제 :한민연을 중심으로」. 『교회와 세계』 107
- 이원규. 1988. 「전환시대의 기독교운동 : 계층별 의식구조와 전환시대의 기독교」. 『기독교사상』 1988년 9월
- 이종오. 1992. 「기독교운동의 전망과 변화의 본질」 『교회와 세계』 107
- 장을병. 1988. 「전환시대의 기독교운동 : 정치변화와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사상』 1988년 9월
- 정호진. 1988. 「한국기독교운동의 어제와 오늘 : 한국개신교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44
- 조승혁. 1985. 「민중적 사회발전에 관한 한국교회의 반성」. 『기독교사상』 85년 8월
- 최승운. 1988. 「전환시대의 기독교운동 : 전환기의 문화예술운동」. 『기독교사상』 1988년 9월

2. 가톨릭의 사회참여운동

1) 가톨릭 사회참여운동의 배경과 국가-교회 갈등의 전개

- 김 녕. 1996. 『한국정치와 교회-국가갈등』 가톨릭사회과학연구소
- 윤여덕 · 오경환 · 박문수. 1990. 『한국 가톨릭교회와 소외층, 그리고 사회운동』
- 강경애. 2000. 「1970년대 한국 천주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70년대 천주교 사회운동을 통해 본 교회, 국가 갈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규식. 1984. 「해방신학운동의 사회학적 의의」. 『경북대평화연구』 9
- 김 녕. 1998. 「가톨릭교회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과 제약요인 : 한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가톨릭사회과학연구』 9
- 박재정. 1992. 「가톨릭교회와 한국정치」.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

2) 반독재 민주화운동

-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2000. 『암흑 속의 횃불』
- 노길명. 1988.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빅벨출판사
- 명동천주교회. 1984. 『한국가톨릭인권운동사』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985. 『한국 천주교회의 위상』
-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교회. 1994. 『명동성당 시위 전단 자료집』
- 김기석. 「1970년대 한국가톨릭의 정치참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수영. 「한국가톨릭 사제의 사회참여 활동의 특징과 변화」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균. 1987.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성직자의 정치참여」 광주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선영. 1991. 「한국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정의구현활동, 그 논리적 구조와 대안적 전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인철. 1997. 「천주교사회운동과 가톨릭의 한국화- 천주교사회운동에 대한 도전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우리신학연구소
- 노길명. 1984. 「가톨릭과 한국사회발전」. 『가톨릭사회과학연구』 2

- 노길명. 1989. 「민족사에 나타난 한국가톨릭교회의 위상」. 『사목』 130
- 강경애. 2000. 「국가, 시민사회와 가톨릭교회의 관계-제5공화국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학회보』 29-2
- 김 녕. 1999. 「유신시대 명동성당에서의 민주화운동」. 『가톨릭사회과학연구』 10
- 한용희. 1984. 「가톨릭교회와 사회정의」. 『가톨릭사회과학연구』 3
- 한용희. 1987. 「1970년대의 한국교회와 정치」. 『가톨릭사회과학연구』 4
- 함세웅. 1988.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역사와 증언」. 『종교신학연구』 1

3) 농민 · 노동 · 빈민운동

- 가톨릭정의평화연구소. 1990. 『한국가톨릭 교회와 소외층 그리고 사회운동』
- 가톨릭정의평화연구소. 1992.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 천주교도시빈민회. 1995. 『천주교도시빈민회 10년 사록』
- 한국사목연구소. 1991. 『자본주의사회와 가톨릭교회』
- 김종현. 1995. 「慶北地域 農民運動史研究, 1976~1994 -安東가톨릭농민회 활동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가톨릭정의평화연구소. 1990. 『한국가톨릭 교회와 소외층 그리고 사회운동』
- 정호경. 1984.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분도출판사
- 황상근. 1989. 『벽돌없는 학교』 성바오로출판사
- 박래성. 1998. 「경북지역 농민운동의 전개, 1976~1983 -안동가농의 분회조직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창진. 1987.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신. 1999. 「시민사회운동과 교회」 광주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호. 1996. 「종교사회운동단체의 종교성과 사회운동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천주교 도시빈민회를 사례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오. 1993. 「가톨릭농민회와 생명공동체운동」. 『가톨릭대 신학과 사상』 9
- 박문수. 1989. 「가톨릭교회와 도시빈민」. 『가톨릭사회과학연구』 6
- 박찬희. 1986. 「한국가톨릭농민회 20년」. 『조선』 81
- 윤여덕. 1989. 「가톨릭교회가 본 노동과 자본」. 『가톨릭사회과학연구』 6
- 윤 현. 1986. 「한국가톨릭농민회와 농민운동」. 『경대문화』 19

- 이용훈. 1992.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과 한국의 노동운동」. 『수원가톨릭대 이성과 신앙』 4
- 정호경. 1984. 「가톨릭농민운동-한국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67
- 정호경. 1988. 「한국가톨릭농민회」. 『종교신학연구』 1
- 조여옥. 1984. 「가톨릭 노동청년회(지오쎄)운동」. 『신학전망』 67

4) 통일운동

- 유경춘. 2002. 「분단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인철. 1999. 「종교와 통일운동 : 한국천주교의 사례」. 『한신대종교문화연구』 1
- 양한모. 1984. 「한국통일과 가톨릭교회의 입장」. 『가톨릭사회과학연구』 3
- 변진홍. 1999. 「신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가톨릭사회과학연구』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2001,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의 역할과 전망」. 『사목』
- 김성태. 「한국천주교의 통일사목방향」

5) 가톨릭 사회참여운동의 반성과 전망

- 박영대. 1997. 「교회변혁을 위한 교회론적 접근」 우리신학연구소
- 이대훈 · 박준영. 1997.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중의 정치세력화론 검토」 우리신학연구소
- 박준영. 1997. 「90년대 가톨릭운동의 새로운 신학적 토대에 대하여」 우리신학연구소
- 박영대. 1997. 「80년대 천주교사회운동 평가와 90년대 천주교민족민주운동 시론」 우리신학연구소
- 최종철. 1996. 「한국천주교회의의 어제 · 오늘 · 내일」. 『가톨릭신문』 1996년 11월 10일

한국기독교 사회참여운동관련문헌해제

펴 낸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펴 낸 이 / 박형규

펴 낸 날 / 2003년 4월

인 쇄 처 / 내일기획 (02-2279-27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43번지 신동아화재빌딩 3층

전화 : 02-3709-7500 팩스 : 02-3709-7516

<http://www.kdemocracy.or.kr>
